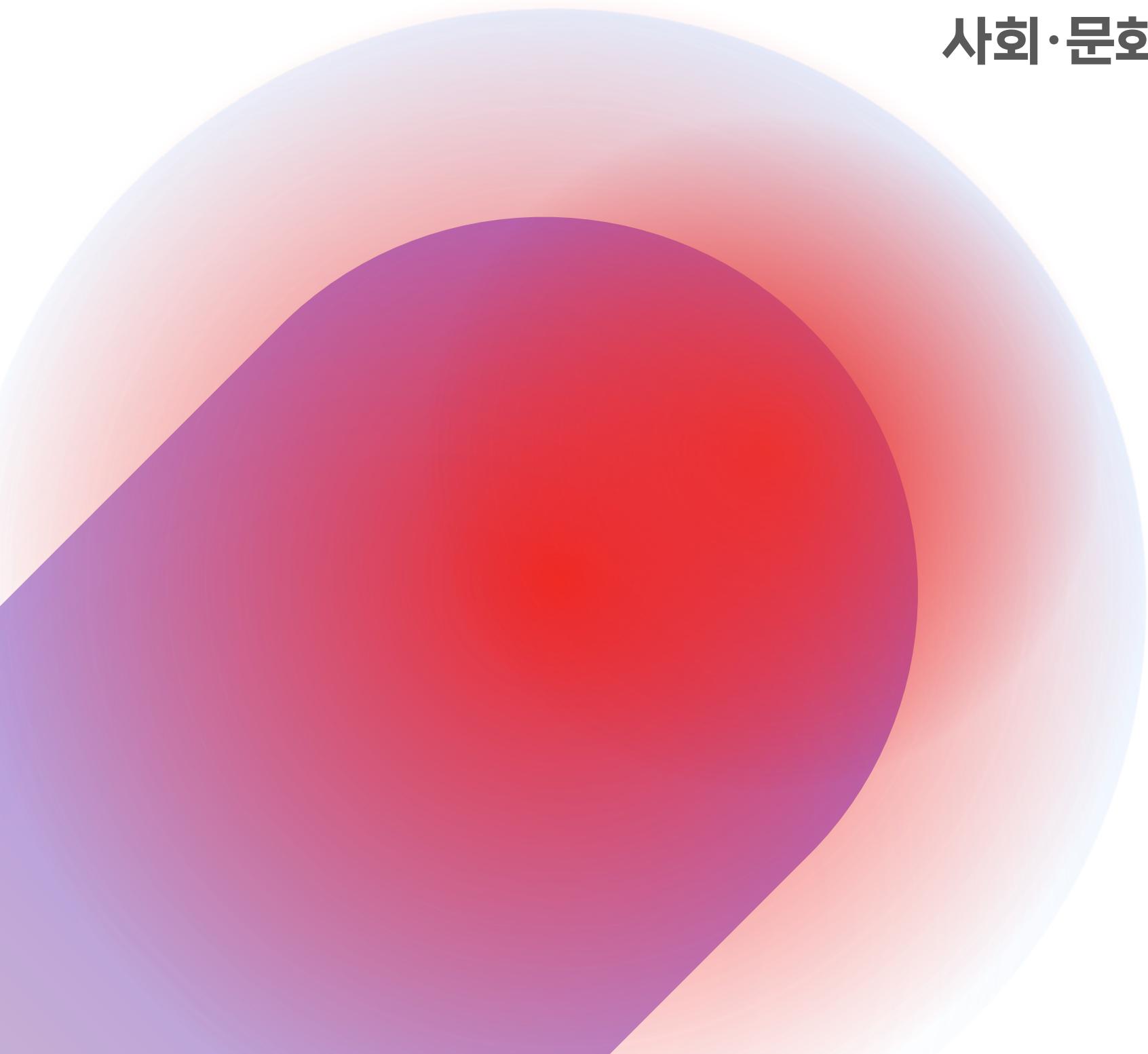


2027

Sapiens

개념 & 실전서

사회·문화



현재 입시에 있어 ‘사탐린’은 주류의 흐름이 되었으며,
이 흐름은 대부분 사회·문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의 표본 수준 상승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시험의 난이도 상승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1.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습득을 요구한다는 것
2.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문화에 있어서는 위 두 가지가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리고 본 교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념의 명확한 습득과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한 상황 판단과 문제 풀이
두 가지 모두를 잡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자 집필 의도이죠.

본 교재와 기출 문제집 한 권이면
사회·문화 고득점에 필요한 개념과 기술 모두를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제 실전입니다.
본 교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학습이
여러분의 사회·문화 성적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0. 사전 학습

#1. 케이스 분류	5
#2. 가중 평균	21
#3. 벤 다이어그램	34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1.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52
#2.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57
#3. 자료 수집 방법	63
#특강1. 연구 사례 분석	71
#4.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	81

2. 개인과 사회 구조

#5.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87
#6.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93
#특강2. 사회 집단 개수 세기	101
#7.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	110

3. 문화와 일상생활

#8. 문화의 이해	120
#9. 현대 사회의 문화 양상	127
#10. 문화 변동의 양상과 대응	131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11.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이해	141
#12.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145
#특강3. 계층 이동 도표 분석	149
#13.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162
#14.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167
#특강4. 복지 제도 도표 분석	173

5. 현대의 사회 변동

#15.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184
#16. 현대 사회의 변화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190
#특강5. 인구 부양비	196



0.

사전 학습

#1. 케이스 분류

#2. 가중 평균

#3. 벤 다이어그램

0

#1. 케이스 분류

14. 다음은 일탈 이론 A~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와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흐램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3점]

※ 질문에 따라 A, B, C, D를 ‘예’, ‘아니요’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칸에 적으시오.

질문	예	아니요	채점 결과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B, C	A, D	3점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B, D	A, C	2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B, D	A, C	1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B, C	A, D	3점

* 질문별로 채점하며, 맞게 적은 이론에는 각 1점을, 틀리게 적은 이론에는 각 0점을 부여함. 질문별 만점은 4점임.

- ① A의 사례로 신입 사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회사 선배들과 어울리면서 죄의식이 사라져 부정행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② B의 사례로 한탕주의로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을 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실업자가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③ C의 사례로 학교 폭력 가해 사실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스스로를 문제아로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④ B와 달리 D는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 ⑤ D와 달리 A는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번 – 오답률 64.5%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문화의 난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도표 문항보다는 개념형 문항의 난이도 상승에 크게 원인이 할당되어 있다.

위 문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념 문항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측에 속한 것으로 평가받은 14번 문항으로, ‘채점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채점형으로 출제되었다.

기준에 출제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던 위 문항에 수많은 수험생들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이는 곧 시험지의 체감 난이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위 문항을 필두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문화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난이도를 가진 문항들의 연속이었고, 그 결과 해당 시험은 역대 최악최흉의 사회·문화 시험으로 평가받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가는 난이도의 시험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위 문항이 출제되기 한참 전부터, 채점형 문항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지속적으로 수험생을 괴롭히는 유형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었다.

15. 다음은 사회 변동 이론 A, B 관련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3점]

질문	답변	
	갑	을
A는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는가?	예	아니요
B는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아니요	예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예	⑦
(가)	아니요	예
점수	3점	2점

* 교사는 각 질문별로 채점하고, 답변 하나가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함.

—<보기>—

ㄱ. A는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ㄴ. B는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한다.
 ㄷ. ⑦은 '예'이다.
 ㄹ. (가)에는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 오답률 72.5%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중 하나이다.)

질문	답변	
	갑	을
A는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아니요	⑦
(가)	예	예
A는 차등 분배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가?	아니요	예
B는 사회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가?	아니요	예
점수	2점	1점

* 교사는 각 질문별로 채점하고, 답변 하나가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함.

—<보기>—

ㄱ. (가)에는 'A는 B와 달리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ㄴ. ⑦은 '아니요'이다.
 ㄷ. A는 균등 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ㄹ. B는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번 – 오답률 59.1%

필자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진학을 가로막아 인생이 꼬아게 한 바로 그 문항이다.

11. 다음은 문화 이해의 태도 A~C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임.) [3점]

질문	답변	
	갑	을
A는 B, C와 달리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자문화를 낮게 평가하는가?	예	예
C는 A, B와 달리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	예	아니요
(가)	①	아니요
(나)	②	예
점수	4점	2점

* 교사는 질문별로 각각 채점하고, 각 질문당 옳은 답변을 쓴 경우는 1점, 틀린 답변을 쓴 경우는 0점을 부여함.

- ① ①이 '예'라면, (나)에는 'C는 B와 달리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② ②이 '아니요'라면, (가)에는 'A는 C와 달리 타문화와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가?'가 들어갈 수 없다.
- ③ (가)가 'B는 A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가?'라면, ②은 '아니요'이다.
- ④ (나)가 'B는 C와 달리 자기 문화의 가치만을 중시하는가?'라면, ①은 '아니요'이다.
- ⑤ (가)가 'A는 B와 달리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라면, (나)에는 'C는 A와 달리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가?'가 들어갈 수 있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오답률 33.7%

문항 자체의 오답률은 낮았으나, 다양한 케이스 구분으로 학생들의 시간을 속절없이 뺏은 문항.

19.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C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3점]

질문	답변		
	갑	을	병
A는 B와 달리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A, C는 B와 달리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가?	예	아니요	예
(가)	예	아니요	아니요
(나)	예	아니요	예
채점 결과	3점	2점	3점

* 교사는 질문별로 채점하고, 질문당 옳은 답변을 쓴 경우는 1점, 틀린 답변을 쓴 경우는 0점을 부여함.

- ① A는 C와 달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
- ② B는 A와 달리 다양한 사회 제도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한다.
- ③ C는 B와 달리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본다.
- ④ (가)에는 'B는 A와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는 'A는 C와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 오답률 54.7%

9. 다음은 일탈 이론 A~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낙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임.)

질문	답변		
	갑	을	병
A는 일탈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예	아니요	예
B와 달리 C는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B와 달리 D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아니요	예	예
B, D와 달리 A, C는 모두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아니요	예	예
채점 결과	2점	⑦	3점

* 교사는 질문별로 각각 채점하고, 옳은 답변은 1점, 틀린 답변은 0점을 부여함.

- ① ⑦은 '1점'이다.
- ② A의 사례로 비행 청소년이라는 부정적인 평판으로 인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③ B의 사례로 경찰의 치안과 공권력이 무너진 국가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④ C의 사례로 프로 야구 만년 후보 선수가 주전 선수가 되고 싶어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⑤ D의 사례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친구에게 배워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청소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 오답률 48.6%

2021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채점형 문항이 출제되어 온 양상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문항의 복잡도는 점점 증가하나, 오답률은 점점 내려가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학생들이 해당 유형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로,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문항은 정답이 1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8.6%의, 등급 변별 문항이라고는 볼 수 없는 오답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서 학생들의 해당 유형에 대한 적응도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비해 더욱 더 상승했을 것이 자명하나, 위에서 보았듯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이 64.5%의 오답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채점형 문항의 난이도 상승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조는 이후 시험들에서도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사회·문화라는 과목의 학습에 시작함에 앞서 채점형 문항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 두고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비책은, 다섯 글자의 단어로 충분히 요약될 수 있다:

‘케이스 분류’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케이스 분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라 확신한다.

‘뭔가 기뚱찬 스킬 또는 시원한 해결책을 기대했는데, 케이스 분류? 이게 뭐지?’

맞다. 시중에는 수많은 채점형 문항에 대한 ‘스킬’이 공유되고 있고, 이러한 스킬은 대부분의 기출 문항에 있어

실제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스킬이 새로이 등장할 때마다 평가원은 ‘온몸 비틀기’를 통해 그 스킬이 먹히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데 있다.

14. 다음은 일탈 이론 A~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와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3점]

※ 질문에 따라 A, B, C, D를 ‘예’, ‘아니요’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칸에 적으시오.

질문	예	아니요	채점 결과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B, C	A, D	3점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B, D	A, C	2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B, D	A, C	1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B, C	A, D	3점

* 질문별로 채점하며, 맞게 적은 이론에는 각 1점을, 틀리게 적은 이론에는 각 0점을 부여함. 질문별 만점은 4점임.

- ① A의 사례로 신입 사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회사 선배들과 어울리면서 죄의식이 사라져 부정행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② B의 사례로 한탕주의로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을 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실업자가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③ C의 사례로 학교 폭력 가해 사실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스스로를 문제아로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④ B와 달리 D는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 ⑤ D와 달리 A는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다른 채점형 문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극히 이질적이다.

질문에 대해 ‘예’와 ‘아니요’로 답했던 기준의 문항들과 다르게, 위 문항은 질문에 대해 ‘실제 이론’을 활용해 답하고, 해당 이론에 대한 채점 결과의 분석을 요구한다.

이는 당시 유행했던, 기존의 기출 문항 전부에 모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모 스킬의 등장에 기인한다.

해당 스킬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모든 채점형 문항의 풀이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여줄 수 있었고, 곧 전 커뮤니티 사이에 퍼지게 되었다.

물론 평가원이 해당 스킬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제에 대하여 100% 확신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번 문항은 해당 스킬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출제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배경으로는 해당 스킬에 대한 평가원의 인지가 강력한 심증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누군가는 또 다른 스킬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는 유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될 것이고, 평가원은 이를 저격할 문항을 반드시 출제할 것이다.

그럼 이러한 사유로 새로이 등장할 문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에 대해, ‘정공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정공법은, 바로 ‘케이스 분류’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창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이 투박한 모습의 ‘케이스 분류’를 사회·문화의 학습

에 있어 먼저 해결하고 가야 하는 것이다.

케이스 분류의 기본 자세는 이 사고이다: ‘어떤 방식으로 케이스를 나눌 것인가?’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잘 감이 잡히지 않을 테니,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15. 다음은 사회 변동 이론 A, B 관련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다음은 위에서 살펴본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문항의 일부이다: 사회 변동 이론 두 가지를 다루고 있고, 이를 이용해 출제된 채점형 문항이다.

사회 변동 이론 A와 B,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일까?

순열을 배운 학생이라면, 바로 두 가지라는 답변을 내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A, B) 또는 (B, A)의 두 가지 경우만이 존재하기에, 비록 현재 우리는 진화론과 순환론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A가 진화론, B가 순환론인 경우’ 또는 ‘A가 순환론, B가 진화론인 경우’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

19.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C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3점]

다음은 위에서 살펴본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의 일부이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를 다루고 있고, 이를 이용해 출제된 채점형 문항이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C,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일까?

순열을 배운 학생이라면, 바로 여섯 가지라는 답변을 내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하나 따져보기에는 너무 많은 경우라는 점을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C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갑	을	병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예
3점	2점	3점

다음은 위 문항에서 제시한 각 학생별 채점표이다: 갑과 병은 3점, 을은 2점을 획득했고, 옳은 답변 1개당 1점을 획득하는 게 규칙이다.

이를 활용했을 땐 어떻게 경우를 나눌 수 있을까?

우선, 읊을 활용하여 규칙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 4개의 답변 중 옳은 2개의 답변을 무작위로 고르는 것 또한 6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3점을 획득한 갑과 병, 이 둘을 활용했을 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까?

4개의 답변 중 옳은 3개의 답변을 무작위로 고르는 것, 여기에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4가지 경우의 수는 위에서 살펴본 6가지 경우의 수에 비하면 훨씬 빠르게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라는 판단을 끝내고 나면, 갑 또는 병을 기준으로 삼아 옳지 않은 답변 하나를 선정해 케이스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다음과 같은 사고가 가능하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갑과 병의 답변이 다르다: 이는, 각 질문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옳지 않은 답변을 내어 놓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갑과 병은 한 가지 질문에만 옳지 않게 답변했다: 이는 곳, 어느 한 명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모두 옳지 않게 답했다는 것이 아닌, 한 명은 첫 번째, 한 명은 세 번째 질문을 옳지 않게 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찌 되었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옳지 않은 답변을 한 갑과 병은 모두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질문 중 하나에 옳지 않은 답변을 한 것이 되므로,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옳은 답변을 했다는 것이 된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우리가 따져봐야 할 케이스는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갑이 첫 번째, 병이 세 번째 질문에 옳지 않게 답변한 경우

2. 갑이 세 번째, 병이 첫 번째 질문에 옳지 않게 답변한 경우

물론 이는 매우 숙련된 후에야 할 수 있는 사고 과정이니, 당장 이를 떠올리지 못했다고, 또는 이 글을 읽은 뒤에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자.

이 교재를 모두 학습한 뒤에는, 이러한 사고과정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되어 있을 테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

14. 다음은 일탈 이론 A~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와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3점]

다음은 위에서 살펴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번 문항의 일부이다: 일탈 이론 네 가지를 다루고 있고, 이를 이용해 출제된 채점형 문항이다.

네 가지의 일탈 이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그마치 24가지이다: A~D가 각각 어떤 이론인지 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까?

예	아니요	채점 결과
<i>B, C</i>	<i>A, D</i>	3점
<i>B, D</i>	<i>A, C</i>	2점
<i>B, D</i>	<i>A, C</i>	1점
<i>B, C</i>	<i>A, D</i>	3점

다음은 위 문항에서 제시한 각 질문별 채점표이다: 첫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채점은 3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채점은 2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채점은 1점이다.

‘예’ 또는 ‘아니요’ 각 칸에 옳게 쓴 이론 한 개당 1점을 얻는 상황에서, 두 번째 질문을 활용하여 케이스를 나누는 것(6가지)보단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활용하여 케이스를 나누는 것(4가지)가 훨씬 편한 선택임을, 위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했다면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사회·문화에서 실제로 출제되는 것과 유사한 실전 문제를 풀어 보며, 어떤 사고 과정을 따라가야 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1. 다음은 필기구 A, B 관련 질문에 대한 학생들이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A와 B가 무엇인지와 ⑦에 들어갈 답변이 무엇인지 각각 구하시오. (단, A, B는 각각 샤프, 볼펜 중 하나임.)

질문	구분	
	갑	을
A는 한 번 필기를 한 뒤 지우개를 활용해 지우는 것이 불가능한가?	예	아니요
B는 사용을 위해 주기적으로 새로운 심을 구매해 갈아 줘야 하는가?	아니요	예
B는 A와 달리 검은색 외에도 빨간색, 파란색이 종종 활용되는가?	예	⑦
(가)	아니요	예
점수	3점	2점

* 교사는 각 질문별로 채점하고, 답변 하나가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함.

필기구 A와 B,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라는 것을, 그렇기에 A와 B가 각각 (샤프, 볼펜) 또는 (볼펜, 샤프)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은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1) A와 B가 각각 (샤프, 볼펜)인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아니요'이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예'이다.
- 2) A와 B가 각각 (볼펜, 샤프)인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예'이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아니요'이다.

여기서 2)의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은 옳지 않은데, 이는 갑이 3점을 얻었다는 데 있어 모순이다.

따라서 1)이 옳은 경우이며, A와 B는 각각 (샤프, 볼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은 옳지 않으므로 두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은 옳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아니요'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을의 답변은 옳지 않은데, 을은 2점을 얻었으므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을의 답변은 옳은 답변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⑦에 들어갈 것은 '예'임을 알 수 있다.

위는 가장 쉬운 케이스 분류의 형태 문항으로, 방금 전보다 약간 심화된 형태의 문항을 해결해 보자.

2. 다음은 교통 수단 A~C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A~C가 무엇인지 각각 구하시오. (단, A~C는 각각 자동차, 비행기, 배 중 하나임.)

질문	답변		
	갑	을	병
A는 B와 달리 탑승을 위해 일반적으로 공항에 방문하는 절차가 요구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A, C는 B와 달리 파도의 높이에 따라 운행에 구애를 받지 않는가?	예	아니요	예
(가)	예	아니요	아니요
(나)	예	아니요	예
채점 결과	3점	2점	3점

* 교사는 각 질문별로 채점하고, 질문당 옳은 답변을 쓴 경우는 1점, 틀린 답변을 쓴 경우는 0점을 부여함.

교통 수단 A~C,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여섯 가지라는 것을, 그렇기에 A~C가 각각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경우를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은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갑~병의 답변, 그 중에서 을의 답변을 먼저 살펴보자면, 4개 중 옳은 답변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존재한다.

반면에 갑, 병의 답변에서 4개 중 옳은 답변 1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케이스는 을이 아닌 갑, 병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갑과 병 중 누구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눌지는, 둘 다 4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이다: 필자는 갑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두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은 옳고, 이에 따라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답변에 대한 병의 답변은 옳고, 세 번째 답변에 대한 병의 답변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 모든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아니요’가 되어 을이 2점을 얻었다는 데 모순이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은 옳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은 옳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 또한 옳지 않은 것이 되어 병이 3점을 얻었다는 데 모순이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은 옳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은 옳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은 옳다.

그리고 이 경우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아니요’,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예’가 되어 을이 2점을 얻었다는 데, 병이 3점을 얻었다는 데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첫 번째~세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은 옳고,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 또한 옳지 않은 것이 되어 병이 3점을 얻었다는 데

모순이다: 따라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은 옳다.

따라서 갑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옳지 않게 답변했으며, 첫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아니요’, ‘예’, ‘아니요’, ‘예’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질문에서 B는 ‘배’임을 알 수 있으며, 첫 번째 질문에서 A는 ‘자동차’, C는 ‘비행기’가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더 심화된 사고를 한 번 해 보자: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갑과 병의 답변이 다르다는 것은, 각 질문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옳지 않은 답변을 내어 놓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갑과 병은 한 가지 질문에만 옳지 않게 답변했다: 이는 곳, 어느 한 명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모두 옳지 않게 답했다는 것이 아닌, 한 명은 첫 번째, 한 명은 세 번째 질문을 옳지 않게 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찌 되었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옳지 않은 답변을 한 갑과 병은 모두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질문 중 하나에 옳지 않은 답변을 한 것이 되므로,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옳은 답변을 했다는 것이 된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우리가 따져봐야 할 케이스는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갑이 첫 번째, 병이 세 번째 질문에 옳지 않게 답변한 경우

2. 갑이 세 번째, 병이 첫 번째 질문에 옳지 않게 답변한 경우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하나하나 따져 보면, 우리가 찾는 케이스는 두 번째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위와 유사한 형태의 문항을 한 가지 더 해결해 보자.

3. 다음은 교육 기관 A~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A~D가 무엇인지와 ㉠에 들어갈 것을 각각 구하시오.
(단, A~D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 하나임.)

질문	답변		
	갑	을	병
A에 진학한 학생들은 '내신'이 아닌 '학점'으로써 그들의 학업을 평가받게 되는가?	예	아니요	예
B와 달리 C에 진학한 학생들은 졸업 직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B와 달리 D의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는 '삼각비'가 처음 등장하는가?	아니요	예	예
B, D와 달리 A, C는 모두 17세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관인가?	아니요	예	예
채점 결과	2점	㉠	3점

* 교사는 질문별로 각각 채점하고, 옳은 답변은 1점, 틀린 답변은 0점을 부여함.

교육 기관 A~D,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자그마치 스물 네 가지라는 것을, 그렇기에 A~D가 각각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경우를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은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갑, 병의 답변, 그 중에서 갑의 답변을 먼저 살펴보자면, 4개 중 옳은 답변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존재한다.

반면에 병의 답변에서 4개 중 옳지 않은 답변 1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케이스는 갑이 아닌 병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을은 점수 자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그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두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은 모두 옳은 답변이므로 첫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아니요', '예', '예', '예'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갑이 2점을 얻었다는 데 모순이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은 옳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은 모두 옳은 답변이므로 첫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아니요', '예', '예'이다.

그리고 이 경우는 갑이 2점을 얻었다는 데 아무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은 모두 옳은 답변이므로 첫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예', '아니요', '예'이다.

그리고 이 경우 역시 갑이 2점을 얻었다는 데 아무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첫 번째~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은 모두 옳은 답변이므로 첫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예', '예', '아니요'이다.\

그리고 이 경우 역시 갑이 2점을 얻었다는 데 아무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네 번째 경우 모두에서 갑~병의 점수만 가지고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각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첫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아니

요’, ‘예’, ‘예’이다: 첫 번째 질문에서 A는 대학교, 네 번째 질문에서 C는 고등학교, 세 번째 질문에서 D는 중학교가 되고, 이에 따라 B는 초등학교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 역시 ‘예’가 되므로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는 모순이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첫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예’, ‘아니요’, ‘예’이다: 첫 번째 질문에서 A는 대학교, 두 번째 질문에서 C는 고등학교, 세 번째 질문에서 D는 초등학교가 되고, 이에 따라 B는 중학교가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네 번째 질문에 대해 아무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 경우가 답인 경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 첫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예’, ‘예’, ‘아니요’이다: 첫 번째 질문에서 A는 대학교, 두 번째 질문에서 C는 고등학교, 세 번째 질문에서 D는 중학교가 되고, 이에 따라 B는 초등학교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 역시 ‘예’가 되므로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는 모순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경우가 답이 되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며, A~D는 각각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첫 번째~네 번째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은 각각 ‘예’, ‘예’, ‘아니요’, ‘예’이므로 을의 점수, 다시 말해 ⑦에 들어갈 것은 ‘1점’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출제되었던 채점형 문항 중 가장 어려운 형태를 한 번 해결해 보자.

4. 다음은 고등 과목 A~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와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A~D가 무엇인지를 각각 구하시오. (단, A~D는 각각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하나임.)

※ 질문에 따라 A, B, C, D를 ‘예’, ‘아니요’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칸에 적으시오.

질문	예	아니요	채점 결과
이공계 학생들이 수능에서 주로 응시하는 탐구 과목들로 구성되는가?	B, C	A, D	3점
수능에서 ‘탐구 과목’으로 둑이며, 총 배점 50점에 30분의 시험 시간을 가지는가?	B, D	A, C	2점
수능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 2의 여덟 과목으로 나누어지지 않는가?	B, D	A, C	1점
100분간 총 30문항을 풀어야 하는 시험지 구성을 수능에서 가지는가?	B, C	A, D	3점

* 질문별로 채점하며, 맞게 적은 과목에는 각 1점을, 틀리게 적은 과목에는 각 0점을 부여함. 질문별 만점은 4점임.

고등 과목 A~D,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자그마치 스물 네 가지라는 것을, 그렇기에 A~D가 각각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경우를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은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채점 결과, 그 중에서 결과가 2점인 두 번째 질문을 먼저 살펴보자면, 4개의 답변 중 2개의 옳은 답변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존재한다.

반면에 채점 결과가 3점 또는 1점인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있어서 4개의 답변 중 총 3개(1개)의 옳은 답변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케이스는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네 번째 질문 중 하나를 골라서 구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세 질문 중 어떤 질문을 바탕으로 나누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각 질문에 대해 ‘예’로 답변하는 과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질문: 과학

두 번째 질문: 사회, 과학

세 번째 질문: 국어, 수학, 사회

네 번째 질문: 수학

‘예’로 답변하는 과목이 1개인 첫 번째, 네 번째 질문은 모두 점수가 3점인, 다시 이야기해 그에 대한 3개의 답변이 옳은 질문들이다: 반면에 세 번째 질문은 점수가 1점인, 다시 이야기해 그에 대한 1개의 답변만이 옳은 질문이다.

그러나 ‘예’로 답변하는 과목이 1개라는 것은 ‘예’에 있어서 한 개의 답변은 무조건 옳지 않은 답변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는, ‘예’에 있어서 다른 한 개의 답변과 ‘아니요’에 있어서 두 개의 답변 모두 옳은 답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첫 번째 질문 또는 네 번째 질문을 가지고 케이스를 나누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케이스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질문에서, 과학이 B 또는 C가 아니라면 채점 결과가 3점이라는 데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이 B인 경우(1)과 과학이 C인 경우(2)로 케이스를 나눠볼 수 있다.

(1) 과학이 B인 경우 –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B’는 옳지 않은 답변이고 해당 질문의 채점 결과는 3점이므로 나머지 답변은 모두 옳은 답변이며, 따라서 C는 수학이다.

이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B’와 ‘C’는 옳은 답변이고 해당 질문의 채점 결과는 2점이므로 나머지 답변은 모두 옳지 않은 답변이며, 따라서 A는 ‘사회’, D는 ‘국어’이다.

이 경우 세 번째 질문의 채점 결과가 1점이라는 데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 경우가 답인 경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과학이 C인 경우 –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C’는 옳지 않은 답변이고 해당 질문의 채점 결과는 3점이므로 나머지 답변은 모두 옳은 답변이며, 따라서 B는 수학이다.

이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B’와 ‘C’는 옳지 않은 답변이고 해당 질문의 채점 결과는 2점이므로 나머지 답변은 모두 옳은 답변이며, 따라서 A는 ‘국어’, D는 ‘사회’이다.

그러나 이 경우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채점 결과는 3점이 되어 모순이 발생하며, 따라서 이 경우는 답인 경우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1)과 (2)의 두 가지 케이스 중 (1)이 옳은 케이스이며, A~D는 각각 ‘사회’, ‘과학’, ‘수학’, ‘국어’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케이스 분류의 기본 태도와 예제, 실제 문제에 적용되는 양상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다.

앞으로 사회·문화에 대한 개념을 학습해 나가고 기출 문제를 풀어 나감에 있어 우리는 수많은 케이스 분류 문항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이는 수능 당일에 있어서도 높은 확률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습득한 태도를 연마해 나가고 그대로 밀어붙여 나간다면, 결국 케이스 분류를 바탕으로 한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한 영역이 되어 있으리라 확신한다.

쫄지 말자 – 결국에는 누군가는 풀어내라고 만든 문제들이고, 그 ‘누군가’가 이 교재를 보고 있는 독자들이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으니.

● 확인 문제 Check

※ [1~5] 다음은 의류 A, B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A, B는 각각 청바지, 셔츠 중 하나임.)

질문	구분	
	갑	을
A는 의류의 구분에 있어 상의로 분류되는가?	아니요	예
B는 일반적으로 총 4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가?	예	⑦
A는 B에 비해 너무 큰 차수를 입었을 시 바닥에 끌리기 쉬운가?	아니요	아니요
(가)	예	예
점수	1점	2점

1. A는 청바지, B는 셔츠이다. (O / X)
2.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갑의 답변은 옳고, 을의 답변은 옳지 않다. (O / X)
3.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갑과 을의 답변은 모두 옳다. (O / X)
4. ⑦에 들어갈 것은 '예'이다. (O / X)
5. 'B는 A와 달리 영문명이 'Jeans'이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O / X)

※ [6~10] 다음은 직업 A~C에 대한 6가지 진술을 [집합 1]과 [집합 2]로 나눈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A~C는 각각 교사, 요리사, 군인 중 하나임.)

[집합 1]	1	A는 B와 달리 영문명이 'Driver'이다.
	2	B는 C와 달리 주로 레스토랑에서 근무한다.
	3	C는 A에 비해 더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
[집합 2]	1	A와 B는 모두 국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2	B와 C는 모두 공무원에 속한다.
	3	(가)

* 집합 1과 2 모두에서 한 가지 진술은 옳고, 두 가지 진술은 옳지 않다.

6. [집합 1]의 1번 진술은 옳은 진술이다. (O / X)
7. [집합 1]과 [집합 2]에서 옳은 진술의 번호는 같지 않다. (O / X)
8. A는 요리사, B는 교사, C는 군인이다. (O / X)
9. 3번 진술은 [집합 1]과 [집합 2] 모두에서 옳지 않은 진술이다. (O / X)
10. 'A, C는 B에 비해 음식과의 관계가 약한 직업이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O / X)

0 #2. 가중 평균

‘가중 평균’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변수의 평균을 구할 때 자료 값의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게 될 모든 경우에서, 그 가중치는 ‘분수로 표현된 변수의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된다.

당연히 이 가중 평균의 정의만 보고서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가중 평균은 정의 그 자체보다는 아래에서 언급할 실제 활용되는 원리를 위주로 기억하는 것이 좋다.

가중 평균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산술 평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산술 평균’이란, 변수들의 총합을 변수의 개수로 나눈 값으로, 각각의 변수들에 모두 같은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산술 평균의 예시로 학생 수가 30명으로 같은 두 반 A, B의 국어 성적 평균(변수)이 각각 50점, 40점일 때, 이 두 반의 국어 성적 평균은 50점과 40점의 한가운데인 45점이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엄밀하게 계산하면 $(50 \times 30 + 40 \times 30) / 60 = 45$ 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두 반의 학생 수가 30명으로 같기에 어차피 이 30명은 위 식의 분모와 분자에서 약분되어 사라지며, 우리 역시도 이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의 상황에서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아래의 방법이 아닌 위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 A, B반의 학생 수가 각각 30명, 20명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상황에서 두 반의 국어 성적의 평균은 $(50 \times 30 + 40 \times 20) / 50 = 46$ 점이 된다.

두 반의 학생 수가 같지 않으므로, 더 이상 두 반의 국어 성적을 더한 뒤 2로 나누어 평균을 구할 수 없게 되었고, 바로 이 상황을 우리는 가중 평균의 상황이라 부른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 반 A, B의 국어 성적 평균(변수)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각 반의 학생 수’가 된다는 것이다.

각 반의 학생 수가 변동함에 따라서 각 반의 국어 성적 평균이 달라지니, 바로 이 학생 수가 가중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각 반의 학생 수’는 각 반의 국어 성적 평균(변수)을 구하는 식의 분모라는 것이다: A(B)반의 국어 성적은 (A(B)반의 국어 성적의 총합 / A(B)반의 학생 수)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일반화하면, 가중 평균의 상황에서 가중치가 되는 것은 변수(각 반의 국어 성적 평균)를 구하는 식의 분모(각 반의 학생 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가중 평균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변수를 구하는 식의 분모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위 사례에서 (A반의 국어 성적 평균의 가중치 : B반의 국어 성적 평균의 가중치) = 3 : 2이고, (A반의 국어 성적 평균과 두 반의 국어 성적 평균 간 거리 : B반의 국어 성적 평균과 두 반의 국어 성적 평균 간 거리) = 2 : 3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어떤 두 변수의 가중치(위의 사례에서는 학생 수)의 비가 A : B라면, 그 두 변수가 가진 값의 평균과 각 변수가 가진 값 간의 거리는 B : A라는 가중평균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중 평균은 ‘각 변수의 가중치가 평균을 얼마나 강한 힘으로 끌어당기는가?’의 문제로 접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특정 가중치가 클수록 그 가중치를 가진 변수는 평균을 더 강한 힘으로 끌어당길 것 이고, 그에 따라 해당 가중치를 가진 변수와 두 변수의 평균 간 거리는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편할 것이다.

이 성질을 활용하여 출제된 문제는 두 집단이 가진 값의 평균과 각 집단이 가진 값을 알려준 뒤 두 집단의 가중치를 구하게끔 하는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역으로 두 집단의 가중치를 알려준 뒤 특정 집단이 가진 값, 또는 두 집단이 가진 값의 평균을 구하게끔 하는 형태일 수도 있다.

아래 제시된 갑국을 구성하는 A, B 지역의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에 관한 자료를 통해 이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연습해 보자.

구분	A 지역	B 지역	갑국 전체
(가) 제도	12%	9%	11%
(나) 제도	10%	⑦%	9%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해당 지역 수급자 수 / 해당 지역 전체 인구) × 100

** 갑국은 A 지역과 B 지역으로만 구성됨.

우선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을 통해 A 지역과 B 지역 전체 인구를 구해보자: ‘갑국 전체 수급자 비율과 A 지역 수급자 비율 간 차 : 갑국 전체 수급자 비율과 B 지역 수급자 비율 간 차’ = ‘1 : 2’이므로 ‘A 지역 전체 인구 : B 지역 전체 인구’ = ‘2 : 1’이 된다.

이제 위에서 구한 A 지역과 B 지역 전체 인구를 통해 ⑦에 들어갈 값을 구해보자: ‘A 지역 전체 인구 : B 지역 전체 인구’ = ‘2 : 1’이므로 ‘갑국 전체 수급자 비율과 A 지역 수급자 비율 간 차 : 갑국 전체 수급자 비율과 B 지역 수급자 비율 간 차’는 ‘1 : 2’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제도에서 전자는 1%이니 후자는 2%가 되어야 하고, A 지역 수급자 비율은 갑국 전체 수급자 비율보다 높으므로 B 지역 수급자 비율은 갑국 전체 수급자 비율보다 2% 낮은 7%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⑦에 들어갈 값은 7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두 변수가 가진 각각의 특정 값이 제시되고 그 두 변수 전체가 가진 특정 값이 제시된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상황은 가중평균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 글을 읽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아니, 도대체 가중 평균이 뭐길래 배경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개념 설명부터 지르고 가는 거에요?

필자 또한 충분히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배경 설명 없이 바로 개념 설명부터 시작한 이유는, 가중 평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갖춰지는 것이 선행되었을 때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중 평균’은, 아마 이 글을 읽고 있을 독자들이 미취학 아동이던 시절부터 최근까지 사회·문화 도표 문항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고난도 주제이다.

15.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가)~(다)와 ○○시의 수급자 비율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시는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3점]

(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고용주, 기입자 등이 부담한다.
(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둘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생계 급여 등을 지급한다.

〈○○시 지역별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단위: %)			
지역 \ 제도	(가)	(나)	(다)
A 지역	6.7	5.5	1.9
B 지역	6.7	7.6	1.6
전체	6.7	6.9	1.7

- ① A 지역의 경우, (가)~(다) 중에서 의무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12.2%이다.
- ② B 지역의 경우, (가)~(다) 중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6.7%이다.
- ③ (가)~(다) 중에서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 ④ (가)~(다) 중에서 가입자 간 상호 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
- ⑤ 지역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높다.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오답률 68.0%

위 문항은 ‘필자가 명확하게 인지하는’ 가장 오래된 가중 평균 문항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위 문항이 출제되기 한참 전부터 가중 평균은 사회·문화 도표 문항에 있어 난이도를 높이는 국밥 주제로 작용해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흔히 말하는 ‘계층 도표’가 사라진 2021학년도 이후, 가중 평균은 사회·문화 도표 문항에 있어 기존의 계층 도표가 가지고 있던 최고난도 주제의 지위를 완벽하게 빼앗아 왔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나) 이외의 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 1>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가) 노인 세대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인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자료 2> 우리나라 A, B 지역 (가)~(다) 제도 수혜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가)	10.0	9.6	9.8	10.2	9.4
(나)	1.6	2.0	1.8	2.8	2.0
(다)	1.2	1.6	1.4	1.2	1.6

* A 지역과 B 지역의 총인구는 동일함.
** 해당 지역 남성(여성) 수혜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남성(여성) 수혜자 수}}{\text{해당 지역 남성(여성) 인구}} \times 100$

<보기>					
ㄱ.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성별 수혜자 수 차이는 A, B 지역이 같다.					
ㄴ.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여성 수혜자 수 대비 남성 수혜자 수의 비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작다.					
ㄷ.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가진 제도의 경우, 남성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ㄹ. 여성의 경우,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혜자 비율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작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오답률 80.9%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노인 세대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인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나)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전체
(가)	4	3	7	7	5
(나)	20	10	30	40	24

*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함.
** 갑국은 A~D 내 지역으로만 구성되고, B와 D 지역 인구는 각각 A 지역 인구의 0.5배임.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①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 D 지역 수급자 수는 A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②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A 지역 수급자 수는 C 지역 수급자 수의 1.5배이다.
 ③ 상호 부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A와 B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는 C와 D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와 동일하다.
 ④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는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의 2.5배이다.
 ⑤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 대비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의 비는 C 지역이 B 지역보다 작다.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오답률 65.5%

자그마치 네 개(,,,)의 변수를 가지고 출제된 가중 평균 문항이나, 다행히 해당 유형은 2022수능 이후로 사장되었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공공부조, 사회 보험 중 하나임.) [3점]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A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B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표는 갑국의 시기별 (가), (나) 지역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은 (가), (나)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전체 인구는 t년에 비해 t+20년이 20% 많다.

구분	t년			t+20년			(단위: %)
	(가) 지역	(나) 지역	전체	(가) 지역	(나) 지역	전체	
A 수급자	46	36	40	46	52	50	
B 수급자	30	20	24	30	42	38	
A와 B 중복 수급자	15	10	12	6	18	14	

- ①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20년의 (가) 지역이 t년의 (가) 지역보다 20% 많다.
- ②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20년의 (가) 지역이 t년의 (나) 지역보다 많다.
- ③ t년의 (가) 지역에서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와 B 중복 수급자 수의 2배이다.
- ④ t+20년에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2배이다.
- ⑤ t+20년에 A와 B 중복 수급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3배 이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오답률 63.4%

뒤에서 설명할 ‘벤 다이어그램’과 융합된 형태로 출제된 문항이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다)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가)~(다) 제도의 지역별 수혜자 비율

(단위: %)

제도	지역	A	B	전체
	(가)	①	8	10
(나)	3	6	4	
(다)	10	7	②	

*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함.

** 해당 지역 수혜자 비율(%) = (해당 지역 수혜자 수/해당 지역 인구) × 100

- ① ①은 11, ②은 8이다.
- ② (가)와 (나) 중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적다.
- ③ 갑국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3배이다.
- ④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2배보다 많다.
- ⑤ 갑국 전체에서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수혜자 수의 2배보다 적다.

▲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오답률 51.8%

가장 최근에 출제된 가중 평균을 활용한 문항이다.

출제자로서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중 평균은 빼어난 아이디어 없이도 ‘손쉽게’ 고난도 문항을 만들 수 있는 ‘치트키’와도 같고, 그에 따라 해당 요소는 매우 오랜 세월 동안 고난도 사회·문화 도표 문항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요소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2023년 중반 있었던 일명 ‘킬러 문항’ 파동으로 인해 가중 평균 문항에 대한 출제는 이전에 비해서는 그 빈도가 줄어들었고, 때마침 뒤에서 다룰 ‘벤 다이어그램’의 부상으로 인해 가중 평균은 현재 잠깐 쉬어가는 출제 요소가 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참고가 될 수 있도록, 2021학년도~2026학년도까지 사회·문화 평가원 시험에 있어 가중 평균을 활용한 문항이 출제된 시험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구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2021학년도	○	○	○
2022학년도	×	○	○
2023학년도	×	○	○
2024학년도	×	×	×
2025학년도	○	×	×
2026학년도	×	×	×

2023학년도까지에 비하면, 킬러 문항 파동이 발생한 2024학년도 이후 가중 평균을 활용한 문항의 출제 빈도는 확연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유일하게 출제된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항 또한, 51.8%의 오답률을 보면 알 수 있듯 매우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하지만 킬러 문항 파동은 2025학년도 1월 기준 진작에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흔히 말하는 ‘사탐린’으로 인해 사회·문화 표본 수준 상승 또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중 평균이니, 만일을 대비해 충분히 대비를 해 놓도록 하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 변수가 가진 각각의 특정 값이 제시되고 그 두 변수 전체가 가진 특정 값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을 활용하면 안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가중평균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만족되어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해당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위에서 제시했던 사례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A, B반 국어 평균 성적의 예시에서 A반의 국어 성적 평균의 가중치(분모)인 A반의 학생 수와 B반의 국어 성적 평균의 가중치(분모)인 B반의 학생 수를 더하면 두 반의 국어 성적 평균의 분모인 두 반의 학생 수가 된다.

갑국 A, B 지역의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의 예시에서도, A 지역 수급자 비율의 가중치(분모)인 A 지역 전체 인구와 B 지역 수급자 비율의 가중치(분모)인 B 지역 전체 인구를 더하면 갑국 전체 수급자 비율의 분모인 갑국 전체 인구가 된다.

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가중평균 활용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변수가 되는 두 비율의 각 분모(가중치)를 구성하는 요소를 더하면 전체 비율의 분모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비교를 위해, 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다음은 갑국의 성별 가구주 가구 월 소득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자료로, 갑국에는 각 6개의 남성 가구주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구분	가구 월 소득(만 원)											
남성 가구주 가구	A1	640	A2	600	A3	560	A4	490	A5	450	A6	400
여성 가구주 가구	B1	540	B2	500	B3	430	B4	380	B5	350	B6	320

위 자료를 바탕으로 남성 가구주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 가구 월 소득 상위 50%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구하면, 남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640 + 600 + 560) / 3 = 600$ (만 원)이 되고,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540 + 500 + 430) / 3 = 490$ (만 원)이 된다.

이제 전체 가구에서 가구 월 소득 상위 50%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구해 보자: 월 소득 상위 50%인 남성 가구주 가구 수와 여성 가구주 가구 수가 같으므로 가중평균을 이용하면, 해당 평균 소득은 $(600 + 490) / 2 = 545$ (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당 평균 소득을 실제로 구해 보면, 상위 50%인 가구는 A1, A2, A3, A4, B1, B2이므로 $(640 + 600 + 560 + 490 + 540 + 500) / 6 = 555$ (만 원)이 된다.

이는 ① 남성 가구주 가구에서 가구 월 소득 상위 50%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라는 비율의 분모를 구성하는 요소, 그리고 ②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 가구 월 소득 상위 50%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라는 비율의 분모를 구성하는 요소를 더한 것이 ③ 전체 가구에서 가구 월 소득 상위 50%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라는 비율의 분모를 구성하는 요소와 같지 않기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①은 A1, A2, A3이고 ②은 B1, B2, B3이나, ③은 A1, A2, A3, A4, B1, B2가 되므로 ①과 ②을 더한 것이 ③과 다르고,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가중평균을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듯 겉보기에는 가중평균의 활용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아닌 사례가 존재하고, 그렇기에 가중 평균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주어진 사례가 가중평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주어진 사례에서 변수가 되는 두 비율의 각 분모(가중치)를 구성하는 요소를 더하면 전체 비율의 분모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가중 평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내용을 습득하고 가야 하며, 해당 내용들을 실제 문제에 원활하게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만큼 이 가중 평균이라는 개념은 도표 문제에 있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 개념으로 작용하며, 그에 따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개념에 대해 습득하고 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보며 해당 사례에 가중 평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떤 양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를 직접 판단해 보며 내공을 키우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제 실제 출제되는 문항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1. 표는 A 지역의 연도별 가구 월평균 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①, ②번 선지의 정오를 구하시오. (단, A 지역은 빈곤 가구 수보다 비빈곤 가구 수가 많음.)

〈A 지역의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빈곤 가구	100	110	120
비빈곤 가구	500	530	550

① 2015년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은 빈곤 가구 월평균 소득의 3배보다 많다.

② 2016년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은 320만 원이다.

① A 지역은 빈곤 가구 수보다 비빈곤 가구 수가 많으므로 가중 평균의 원리에 의해 2015년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은 빈곤 가구 월평균 소득과 비빈곤 가구 월평균 소득의 평균인 300만 원보다 많다.

2015년 빈곤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이므로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은 빈곤 가구 월평균 소득의 3배보다 많다.

② A 지역은 빈곤 가구 수보다 비빈곤 가구 수가 많으므로 가중 평균의 원리에 의해 2016년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은 빈곤 가구 월평균 소득과 비빈곤 가구 월평균 소득의 평균인 320만 원보다 많다.

2. 표는 연도·지역별 (가), (나) 제도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시 A, B 지역의 전체 인구에 대한 관계를 구하시오.

(단위 : %)

구분	(가)		(나)	
	t년	t+10년	t년	t+10년
A 지역	4.8	5.0	3.4	4.0
B 지역	2.8	3.6	7.4	8.0
전체	4.4	4.3	4.2	6.0

$$* \text{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시에는 A, B 지역만 있고, t년과 t+10년의 ○○시 총인구는 동일함.

t년의 경우 (가) 제도에서 ‘A 지역 수급자 비율과 전체 수급자 비율 간 거리’ : ‘B 지역 수급자 비율과 전체 수급자 비율 간 거리’ = 1 : 40이므로 해당 비율들의 분모가 되는 ‘A 지역 인구’ : ‘B 지역 인구’ = 4 : 1임을 알 수 있다.

t+10년의 경우 (가) 제도에서 ‘A 지역 수급자 비율과 전체 수급자 비율 간 거리’ : ‘B 지역 수급자 비율과 전체 수급자 비율 간 거리’ = 1 : 10이므로 해당 비율들의 분모가 되는 ‘A 지역 인구’ : ‘B 지역 인구’ = 1 : 1임을 알 수 있다.

t년과 t+10년의 ○○시 총인구는 동일하므로 t년 A 지역 인구를 800, B 지역 인구를 200으로 두면, 자연스럽게 t+10년 A 지역 인구는 500, B 지역 인구는 500으로 둘 수 있는 것이다.

3. 표는 성별·지역별 (가)~(다) 제도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성별 A, B 지역의 전체 인구에 대한 관계를 구하시오.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가)	10.0	9.6	9.8	10.2	9.4	9.6
(나)	1.6	2.0	1.8	2.8	2.0	2.2
(다)	1.2	1.6	1.4	1.2	1.6	1.5

* A 지역과 B 지역의 총인구는 동일함.

** 해당 지역 남성(여성) 수혜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남성(여성) 수혜자 수}}{\text{해당 지역 남성(여성) 인구}} \times 100$

A 지역의 경우 (가) 제도에서 ‘남성 수급자 비율과 전체 수급자 비율 간 거리’ : ‘여성 수급자 비율과 전체 수급자 비율 간 거리’ = 1 : 10이므로 해당 비율들의 분모가 되는 ‘남성 인구’ : ‘여성 인구’ = 1 : 1임을 알 수 있다.

B 지역의 경우 (가) 제도에서 ‘남성 수급자 비율과 전체 수급자 비율 간 거리’ : ‘여성 수급자 비율과 전체 수급자 비율 간 거리’ = 3 : 10이므로 해당 비율들의 분모가 되는 ‘남성 인구’ : ‘여성 인구’ = 1 : 3임을 알 수 있다.

A 지역과 B 지역의 총인구는 동일하므로 A 지역 남성 인구를 200, 여성 인구도 200으로 둔다면, B 지역 남성 인구는 100, 여성 인구는 300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4. 표는 갑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농촌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을 구하시오.
(단, 전체 가구는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로 구성되며 구성비는 1:1임.)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전체 가구	절대적 빈곤율(%)	7.5	8.0
	상대적 빈곤율(%)	10.0	12.0
도시 가구	절대적 빈곤율(%)	4.5	4.0
	상대적 빈곤율(%)	8.0	9.0

* 절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전체 가구는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로 구성되며 구성비는 1:1이므로,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모두에서 ‘전체 가구와 도시 가구 간 거리’ = ‘전체 가구와 농촌 가구 간 거리’이다.

그에 따라 2010년 농촌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각각 10.5%와 12.0%가 되며, 2011년 농촌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각각 12.0%와 15.0%가 된다.

별개로,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이후 개념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으로, 미리 알아둬도 좋으나 꼭 알아둘 필요는 없다.

5. 표는 갑국의 연도별 소득 5분위 배율을 나타낸 것이다. ①번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시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가구	13.2	12.8	13.0	12.7
남성 가구주 가구	12.3	11.9	12.0	11.6
여성 가구주 가구	13.0	12.4	12.5	12.6

* '소득 5분위 배율 = 5분위 평균 소득 / 1분위 평균 소득'이며, 5분위는 소득 상위 20% 이내, 1분위는 소득 하위 20% 이내 가구들을 의미함.

** 각 연도에서 개별 가구의 소득은 서로 다름.

① 2016년 전체 가구 중 과반이 여성 가구주 가구이다.

① 언뜻 봐서, 이 선지는 가중 평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선지처럼 보인다: 이는 주어진 자료에서 전체 가구주 가구와 남성, 여성 가구주 가구가 가진 값이 모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자료를 잘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전체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남성 가구주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보다 모두 높다.

가중 평균의 상황에서 두 변수가 가진 값의 평균은 무조건 각 변수가 가진 두 개의 값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자료에서 주어진 상황은 이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는 각 연도의 남/여성 가구주 가구 소득 5분위 배율의 분모, 다시 말해 각 연도의 남/여성 가구주 가구 1분위 평균 소득과 각 연도의 전체 가구 소득 5분위 배율의 분모, 다시 말해 각 연도의 전체 가구 1분위 평균 소득이 서로 관련이 없는 값이기 때문이다.

가중 평균의 상황에서 두 비율의 각 분모(가중치)를 구성하는 요소를 더하면 전체 비율의 분모(가중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야 하나, 남성 가구주 가구 1분위 평균 소득과 여성 가구주 가구 1분위 평균 소득을 더한다고 해서 전체 가구 1분위 평균 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이 상황에서 가중 평균을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언급하는 내용이 옳다고 볼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X)

이와 같이 우리는 가중 평균에 대해서도 모든 요소에 대한 학습을 마무리했다.

더 심화된 영역으로 나아가면 변수가 세 개 이상인 상황에서의 가중 평균 또한 존재하기는 하나, 해당 요소를 이용한 문항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완전히 사장이 되었으므로, 이 챕터에서 굳이 살펴보지는 않도록 하자.

비록 현재는 출제가 뜸해진 요소라 할지라도, 지난 십 수년간 계속해서 출제가 되어 왔고, 여러 사설에서는 여전히 국밥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 요소이기에, 확실하게 학습을 해 둔다면 '손해'를 볼 여지는 없을 것이라 장담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을 기억하자.

● 확인 문제 Check

- 갑국의 A 지역과 B 지역의 인구 비는 2 : 1이고, 각 지역의 운전면허 소지 비율은 A 지역이 40%, B 지역이 55%일 때, 갑국 전체의 면허 소지 비율은? (단,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 XX고등학교의 1반 학생 평균 국어 성적이 50점, 2반 학생 평균 국어 성적이 45점이고 두 반의 평균 국어 성적이 47점일 때, 1반과 2반의 학생 수 비는?
- 전체 인구 대비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은 갑 권역이 48%, 을 권역이 52%이고 전체 인구는 을 권역이 갑 권역보다 많을 때, 두 권역을 합친 지역에서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은 50%를 초과한다. (O / X)
- 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2,500만 원, K도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2,700만 원이고 △△시 직장인 수가 □□시 직장인 수의 0.5배일 때, △△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천만 원 이상이다. (단, K도는 □□시와 △△시로만 이루어져 있다.) (O / X)

※ 5~6. 다음 표는 A 지역의 성별 자가용 소유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전체 인구 대비 자가용 소유 비율	65%	55%	X

- X가 61%일 때, A 지역의 남성 전체 인구 : 여성 전체 인구의 비는?

- A 지역의 남성 전체 인구 : 여성 전체 인구의 비가 7 : 3일 때, X에 들어갈 값은?

※ 7~10. 다음 표는 연도별 A, B 지역의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A 지역 수급자 비율(%)	28	30	32	28
B 지역 수급자 비율(%)	20	24	30	32

* 주어진 기간 동안 B 지역의 전체 인구는 A 지역의 전체 인구보다 항상 많으며,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음.

** 해당 지역 (가) 제도 수급자 비율(%) = (해당 지역 (가) 제도 수급자 수 / 해당 지역 전체 인구) × 100

- 2005년 (가) 제도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적다. (O / X)

- 2010년 A 지역 (가) 제도 수급자 비율 대비 갑국 전체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의 비는 90% 이상이다. (O / X)

- 갑국 전체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은 2010년이 2005년보다 높다. (O /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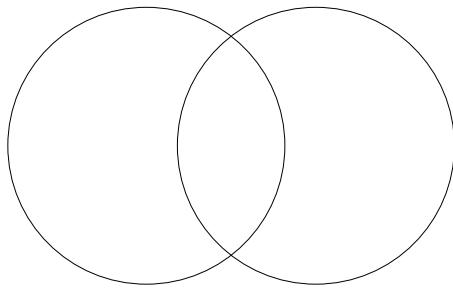
-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은 2015년 B 지역보다 2020년 갑국 전체가 높다. (O / X)

‘벤 다이어그램’이란, 서로 다른 집합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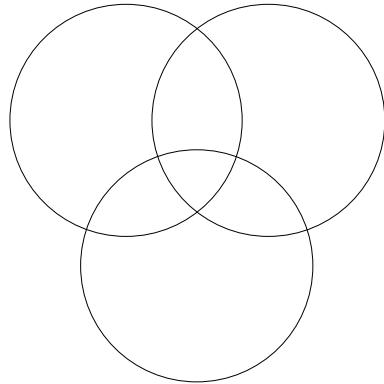
전체 집합과 그 부분집합의 관계, 또 부분집합과 부분집합의 합집합 및 교집합, 그리고 부분집합의 전체집합에 대한 여집합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으로, 현 교육과정 체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하)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사회·문화에서 출제되었던 도표 문항에서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이 2개 또는 3개인 경우가 다루어졌으며, 각 경우 그려지는 그림은 다음과 같다.

〈집합이 2개인 경우〉



〈집합이 3개인 경우〉



집합이 2개인 경우의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고, 집합이 3개인 경우 역시 2025학년도 이전까지는 단 한 차례밖에 출제되지 않았으나, 2026학년도 이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에 모두 등장하는 등 가중 평균이 잠깐 출제 요소로서 자취를 감춘 현재는 도표 문항의 난이도를 올리는 1등 공신으로써 크게 활약하고 있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3점]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유형 A~C 중 A는 B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C는 A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가), (나) 지역의 모든 가구는 A~C 중 한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역별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A와 B의 중복 수혜 가구	10	20
A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6	9
B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50	45

* (가)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2%)이, (나)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5%)이 포함되어 있다.

- ① A는 B, C와 달리 사전 예방적 목적을 가진다.
- ② B는 A, C와 달리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 ③ C는 A, B와 달리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 ④ 사회 보험과 사회 서비스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공공 부조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높다.
- ⑤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사회 서비스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가), (나) 지역이 같다.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오답률 64.7%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3점]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중 (가), (나)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가) 수급자	45	⑦	60	60
(나) 수급자	⑧	19	19	20
(가)와 (나) 중복 수급자	6	10	4	6

* 갑국은 A~C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65세 이상 인구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임.

① ⑦은 65, ⑧은 23이다.
 ②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C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③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이다.
 ④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C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⑤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C 지역이 가장 높다.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오답률 74.8%

벤 다이어그램과 세 변수(,,,)의 가중평균이 결합된 형태로, 실질 난이도는 이 시험지에서 가장 높았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함.) [3점]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나)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중 (가), (나)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전체 지역
(가) 수급자	26	⑦	⑧
(나) 수급자	76	68	70
(가)와 (나) 중복 수급자	⑨	6	10

*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됨.

** 갑국 전체 지역 65세 이상 인구 중 (가)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비율이 (가)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가) 수급자 비율의 6배임.

① ⑨은 ⑦보다 크고 ⑧보다 작다.
 ②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A 지역이 B 지역의 3배이다.
 ③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④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이다.
 ⑤ 갑국 전체 지역에서 (가)와 (나) 중복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와 동일하다.

▲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 오답률 70.1%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공공부조, 사회 보험 중 하나임.) [3점]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A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B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표는 갑국의 시기별 (가), (나) 지역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은 (가), (나)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전체 인구는 t 년에 비해 $t+20$ 년이 20% 많다.

구분	t 년			$t+20$ 년			(단위: %)
	(가) 지역	(나) 지역	전체	(가) 지역	(나) 지역	전체	
A 수급자	46	36	40	46	52	50	
B 수급자	30	20	24	30	42	38	
A와 B 중복 수급자	15	10	12	6	18	14	

- ①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20$ 년의 (가) 지역이 t 년의 (가) 지역보다 20% 많다.
- ②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20$ 년의 (가) 지역이 t 년의 (나) 지역보다 많다.
- ③ t 년의 (가) 지역에서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와 B 중복 수급자 수의 2배이다.
- ④ $t+20$ 년에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2배이다.
- ⑤ $t+20$ 년에 A와 B 중복 수급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3배이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오답률 63.4%

벤 다이어그램과 가중평균이 결합된 형태로 출제되었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A는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이고, B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표는 갑국의 전체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과 시기에 따른 비율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t 년 대비 $t+30$ 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50% 증가하였다.

<표 1> t 년의 수급자 비율

A 수급자	B 수급자	A와 B의 중복 수급자	(단위: %)
40	15	8	

<표 2> t 년 대비 $t+30$ 년의 수급자 비율 차이*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A와 B의 중복 수급자
2	-3	8

* 수급자 비율 차이 = $t+30$ 년의 수급자 비율 - t 년의 수급자 비율

- ① t 년에 전체 인구 중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A와 B의 중복 수급자 비율보다 크다.
- ② $t+30$ 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 년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非)수급자 수보다 많다.
- ③ $t+30$ 년에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와 B의 중복 수급자 수보다 적다.
- ④ t 년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는 $t+30$ 년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의 2배이다.
- ⑤ t 년 대비 $t+30$ 년에 A 수급자 수의 증가율은 B 수급자 수의 증가율보다 크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오답률 66.7%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A와 B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고,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중복 수급자 비율은 $t+30$ 년이 t 년에 비해 50% 감소하였고, 중복 수급자 수는 t 년과 $t+30$ 년이 동일하다.

<갑국의 A, B 수급자와 비(非)수급자의 비율>

(단위: %)

구분	t 년	$t+30$ 년
A 수급자	70	77
B 수급자	26	①
비(非)수급자	14	15

* 비(非)수급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사람

** 중복 수급자: A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B 수급자인 사람

- ① ①은 t 년의 중복 수급자 비율보다 작고 $t+30$ 년의 중복 수급자 비율보다 크다.
- ②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t+30$ 년이 t 년에 비해 8% 감소하였다.
- ③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 년과 $t+30$ 년이 동일하다.
- ④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t+30$ 년이 t 년의 2배이다.
- ⑤ t 년에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t+30$ 년 비(非)수급자 수의 2배이다.

▲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 오답률 75.4%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하나임.)

갑국에는 사회 보장 제도 A, B만 존재하며, A, B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고,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표는 갑국의 (가)~(다) 지역별 전체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 및 비(非)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비(非)수급자는 A나 B 중 어느 것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A나 B의 복지 혜택이 필요하지만 수급 자격 조건에 미달하여 받지 못하는 사람(탈락자)과 비(非)수급자에서 탈락자를 제외한 사람(비(非)탈락자)으로 구성된다. 단, (가)~(다) 지역의 중복 수급자 수는 동일하다.

(단위: %)

구분	A 수급자	B 수급자	중복 수급자	비(非)수급자	
				탈락자	비(非)탈락자
(가) 지역	73	20	①	12	10
(나) 지역	72	28	15	5	②
(다) 지역	50	③	10	8	32

* 중복 수급자: A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B 수급자인 사람

- ① ①은 (나) 지역의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보다 작다.
- ② ②은 (가) 지역의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과 같다.
- ③ ③은 (다) 지역의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의 2배이다.
- ④ (가) 지역의 탈락자 수보다 (나) 지역의 비(非)탈락자 수가 많다.
- 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다) 지역이 가장 많다.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오답률 75.6%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공공부조, 사회 보험 중 하나임.) [3점]

갑국에는 사회 보장 제도 A, B만 존재하며, A, B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갑국은 (가), (나)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가) 지역 인구는 (나) 지역 인구의 2배이다. <자료 1>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 A, B를 구분한 것이고, <자료 2>는 갑국의 지역별 수급자 현황의 일부이다. 단, A 수급자 수 대비 중복 수급자 수의 비율은 (가) 지역이 10%, (나) 지역이 20%이다.

<자료 1>

<자료 2> (단위: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비(非)수급자 비율	18	20
중복 수급자 비율	8	15

* 비(非)수급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사람
** 중복 수급자: A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B 수급자인 사람
*** 비수급자(중복 수급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비수급자(중복 수급자) 수}}{\text{해당 지역 인구}} \times 100$

- ① ①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③ B 수급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
- ④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낮다.
- 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의 2배이다.

▲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오답률 75.1%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우리나라와 동일한 사회 보장 제도 A~C를 운영하고 있는 갑국에서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A에 해당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실직을 한 청년에게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B에 해당하는 제도로 청년 기초 수급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C에 해당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온둔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표는 갑국 20대 청년 실업자 중 A~C 수혜자와 비(非)수혜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중복 수혜자 중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와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는 각각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의 2배이다.

(단위: %)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3중 수혜자	비(非)수혜자
70	19	12	2	8

* 중복 수혜자: A, B, C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3중 수혜자: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비(非)수혜자: A, B, C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

- ① 중복 수혜자 수는 비(非)수혜자 수보다 많다.
- ②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의 4배이다.
- ③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보다 적다.
- ④ 비(非)수혜자 수는 중복 수혜자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의 2배이다.
- ⑤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보다 많다.

▲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 오답률 78.3%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임.) [3점]

갑국에는 사회 보장 제도 A~C만 존재하고, 모두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A는 선별적 복지의 이념을, B는 상호 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다. C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상당이나 돌봄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t 년에 중복 수혜자 중 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와 $t+30$ 년에 중복 수혜자 중 A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각각 전체 인구의 10%이다. 금전적 지원이 원칙인 두 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 수는 t 년이 전체 인구의 5%이고, $t+30$ 년은 전체 인구의 2%이다. 단, 갑국의 t 년과 $t+30$ 년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전체 인구 중 A~C 수혜자의 비율>
(단위: %)

구분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3종 수혜자	전체 수혜자
t 년	20	60	15	0	82
$t+30$ 년	15	75	20	2	95

* 중복 수혜자: A, B, C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3종 수혜자: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전체 수혜자: A, B, C 중 1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① t 년에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보다 적다.
- ② $t+30$ 년에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가 전체 수혜자 수의 70%이다.
- ③ 전체 인구 중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는 $t+30$ 년이 t 년보다 많다.
- ④ 중복 수혜자 중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t 년이 $t+30$ 년보다 많다.
- ⑤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 수는 t 년과 $t+30$ 년이 동일하다.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오답률 75.1%

이처럼 2021학년도 이후 벤 다이어그램은 가중 평균과 함께 도표 문항에 매우 빈번히 활용되는 퀄리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었으며, 가중 평균이 자취를 감춘 2024학년도 이후 본격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난도가 높아져 벤 다이어그램이 적용된 2025학년도 9평, 수능과 2026학년도 6평, 9평, 수능은 모두 오답률 75%를 상회하는 고난도로 출제되었다.

이에 따라 참고가 될 수 있도록, 2021학년도~2025학년도까지 사회·문화 평가원 시험에 있어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문항이 출제된 시험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구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2021학년도	×	×	×
2022학년도	○	×	○
2023학년도	×	○	○
2024학년도	×	×	○
2025학년도	×	○	○
2026학년도	○	○	○

위 표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에 벤 다이어그램이 적용되어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으며,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는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는 매우 기초적인 형태만 물어봤으나, 2024학년도 이후에는 한층 더 심화된 내용 또한 물어봤다는 사실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출제 요소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해당 요소에 대한 본격적인 개념 설명으로 넘어가 보자.

벤 다이어그램에 들어가야 할 수를 채워 넣는 것 자체는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아닙니다: 이 요소형에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지금 마주한 이 문항이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야 하는 문항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다른 요소를 활용하여 출제된 도표 문항에서와 달리,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출제된 도표 문항은 해당 문항이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야 하는 종류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있다: 만약 문항에서 ‘중복’ 또는 ‘단독’과 관련된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해당 문항은 높은 확률로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야 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항에서 ‘(가) 제도 수급자, (나) 제도 수급자, (가)와 (나) 제도 중복 수급자’에 관한 조건이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 (가) 제도 수급자와 (나) 제도 수급자 중 (가)와 (나) 제도 중복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인지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것.

따라서 만약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중복’ 또는 ‘단독’과 관련된 조건이 있다면,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문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가야 한다.

만약 해당 문제가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 당연히 주어진 정보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문제에서 주어진 중복될 수 있는 변수가 두 개인지 혹은 세 개인지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중복될 수 있는 변수가 두 개인 경우 어떤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구분	A 지역	B 지역	A, B 지역 전체
(가) 제도 수급자 비율(%)	14	17	15
(나) 제도 수급자 비율(%)	31	⑦25	29
(가), (나) 제도 중복 수급자 비율(%)	10	13	⑧11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A 지역의 전체 인구는 B 지역의 2배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활용해 ⑦에 들어갈 값은 25, ⑧에 들어갈 값은 11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사례에서는 ‘중복’과 관련된 중복 수급자 비율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례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다.

A 지역에서 (가), (나) 제도 중복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10%인데, (가) 제도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4%이므로 (가) 제도만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4-10)\% = 4\%$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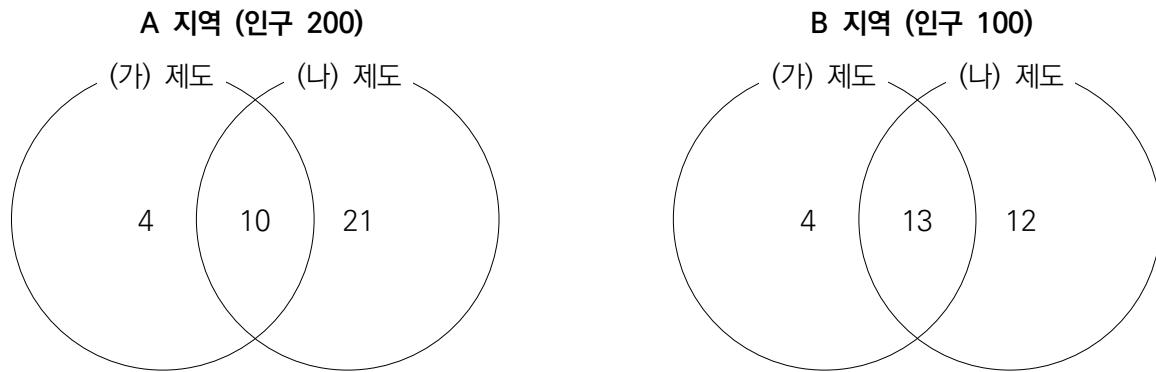
또한 해당 지역에서 (나) 제도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31%이므로 (나) 제도만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31-10)\% = 21\%$ 이다.

B 지역에서 (가), (나) 제도 중복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13%인데, (가) 제도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7%이므로 (가) 제도만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7-13)\% = 4\%$ 이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나) 제도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25%이므로 (나) 제도만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25-13)%=12%이다.

중복될 수 있는 변수는 (가), (나) 제도의 두 가지가 있고, 이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 주어진 정보를 정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 여기서 더 심화가 된 형태로 변수가 세 개인 경우가 등장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어떤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야 하는지는 아래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보자.

구분	갑국	을국
(가) 제도 수급자 비율(%)	22	30
(나) 제도 수급자 비율(%)	19	17
(다) 제도 수급자 비율(%)	31	29
(가), (나) 제도 중복 수급자 비율(%)	7	6
(나), (다) 제도 중복 수급자 비율(%)	5	9
(가), (다) 제도 중복 수급자 비율(%)	8	5
(가), (나), (다) 제도 중복 수급자 비율(%)	2	2

갑국에서 (가), (나), (다) 제도 중복 수급자 비율은 2%인데, (가), (나) 제도 중복 수급자 비율은 7%이므로 (가), (나)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7-2)=5\%$ 이다.

또한 (나), (다) 제도 중복 수급자 비율은 5%이므로 (나), (다)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5-2)=3\%$ 이며, (가),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은 8%이므로 (가), (다)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8-2)=6\%$ 이다.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은 22%인데, (가), (나)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5%, (가), (나),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은 2%, (가), (다)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6%이므로 (가)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22-5-2-6)\%=9\%$ 이다.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은 19%인데, (가), (나)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5%, (가), (나),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은 2%, (나), (다)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3%이므로 (나)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19-5-2-3)\%=9\%$ 이다.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은 31%인데, (가), (다)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6%, (가), (나),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은 2%, (나), (다)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3%이므로 (다)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31-6-2-3)\%=20\%$ 이다.

을국에서 (가), (나), (다) 제도 중복 수급자 비율은 2%인데, (가), (나) 제도 중복 수급자 비율은 6%이므로

(가), (나)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6-2)=4\%$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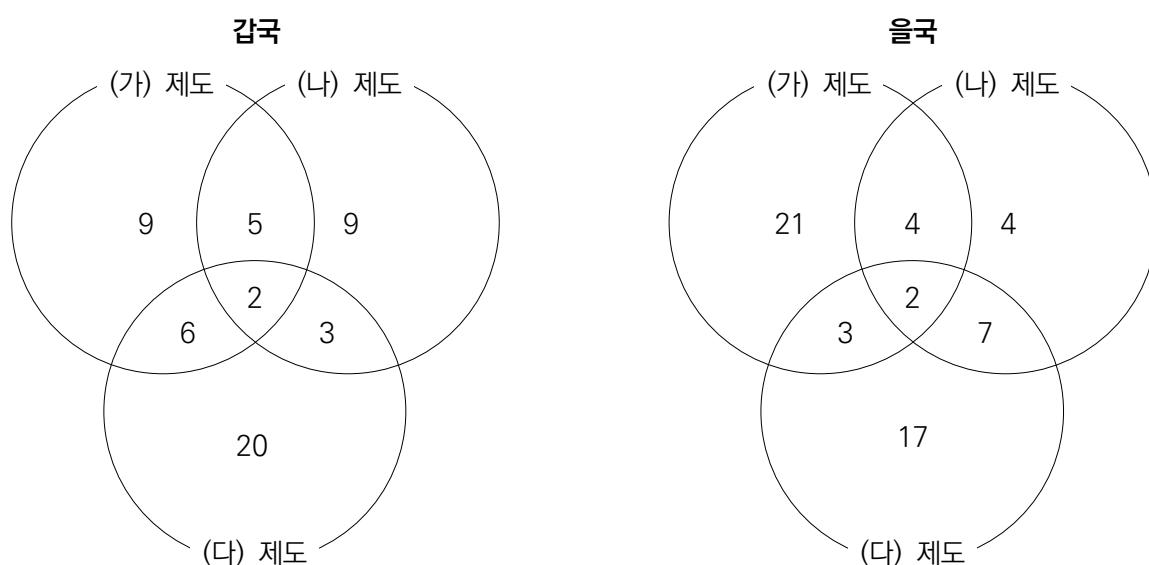
또한 (나), (다) 제도 중복 수급자 비율은 9%이므로 (나), (다)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9-2)\% = 7\%$ 이며, (가),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은 5%이므로 (가), (다)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5-2)\% = 3\%$ 이다.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은 30%인데, (가), (나)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4%, (가), (나),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은 2%, (가), (다)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3%이므로 (가)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30-4-2-3)\% = 21\%$ 이다.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은 17%인데, (가), (나)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4%, (가), (나),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은 2%, (나), (다)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7%이므로 (나)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17-4-2-7)\% = 4\%$ 이다.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은 29%인데, (가), (다)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3%, (가), (나),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은 2%, (나), (다)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7%이므로 (다) 제도만의 수급자 비율은 $(29-3-2-7)\% = 17\%$ 이다.

중복될 수 있는 변수는 (가), (나), (다) 제도의 세 가지가 있고, 이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 주어진 정보를 정리해 줄 수 있겠다.



위와 같이 중복이나 단독과 관련된 특정 조건이 주어지면, 해당 조건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교재를 읽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변수가 네 개인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해당 문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하자면, 변수가 네 개인 형태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혹여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네 개의 변수 중 서로 중복되지 않는 변수가 존재해 변수가 두 개 또는 세 개인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형태로 등장을 할 것이고, 또 해야만 한다.

이는 변수가 네 개인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은 교육 과정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개 또는 세 개인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은 수학(하)의 교육 과정에 등장하고, 이 #3. 벤 다이어그램도 이 교육 과정 덕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교육 과정 안에 변수가 네 개인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은 들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해당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에 관한 문제는 출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애초에 해당 형태는, 그리는 것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그리려고 시도를 해 보다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교재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변수가 두 개 또는 세 개인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의 활용만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뒤, 이에 대해 대비해 나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문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연습을 하기 바란다.

또한 주어진 문제 형태에 맞는 벤 다이어그램을 선택하는 것,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뒤 실제 들어갈 숫자를 채워넣는 것 모두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학습이 진행되면 좋을 것이다.

1. 표는 우리나라 (가), (나) 각 지역의 A,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각 지역의 A, B 수급자 비율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고, A, B 제도가 각각 어떤 제도인지 구하시오. (단, A, B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임.)

표에 따르면 (가) 지역에서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중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frac{3}{4}$ 을 차지한다.

(단위 :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A의 수급자	16	10
B의 수급자	12	15
A와 B 모두의 수급자	9	9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중 ‘A와 B 모두의 수급자’, 즉 A와 B 공동 수급자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의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파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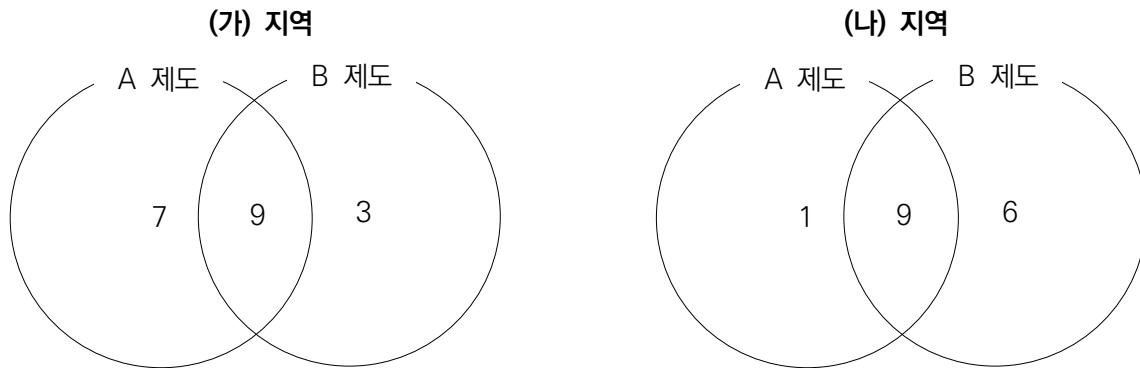
(가) 지역에서 A와 B 모두의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9%인데, A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6%이므로 A만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6-9)\% = 7\%$ 이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B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2%이므로 B만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2-9)\% = 3\%$ 이다.

(나) 지역에서 A와 B 모두의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9%인데, A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0%이므로 A만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0-9)\% = 1\%$ 이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B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5%이므로 B만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5-9)\% = 6\%$ 이다.

이를 모두 반영해 벤 다이어그램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가) 지역에서 B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인구 12% 중 A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인구는 9%이고, 전자 대비 후자는 75%를 차지하므로, B 제도가 사회 보험, A 제도가 공공 부조인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차차 살펴 볼 것이므로,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좋다.

2. 표는 우리나라 (가), (나) 각 지역의 A~C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각 지역의 A~C 수급자 비율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시오.

(단위 :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A와 B의 중복 수혜 가구	10	20
A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6	9
B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50	45

* (가)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2%)이, (나)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5%)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중 ‘A와 B의 중복 수혜 가구’, ‘A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B와 C의 중복 수혜 가구’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의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파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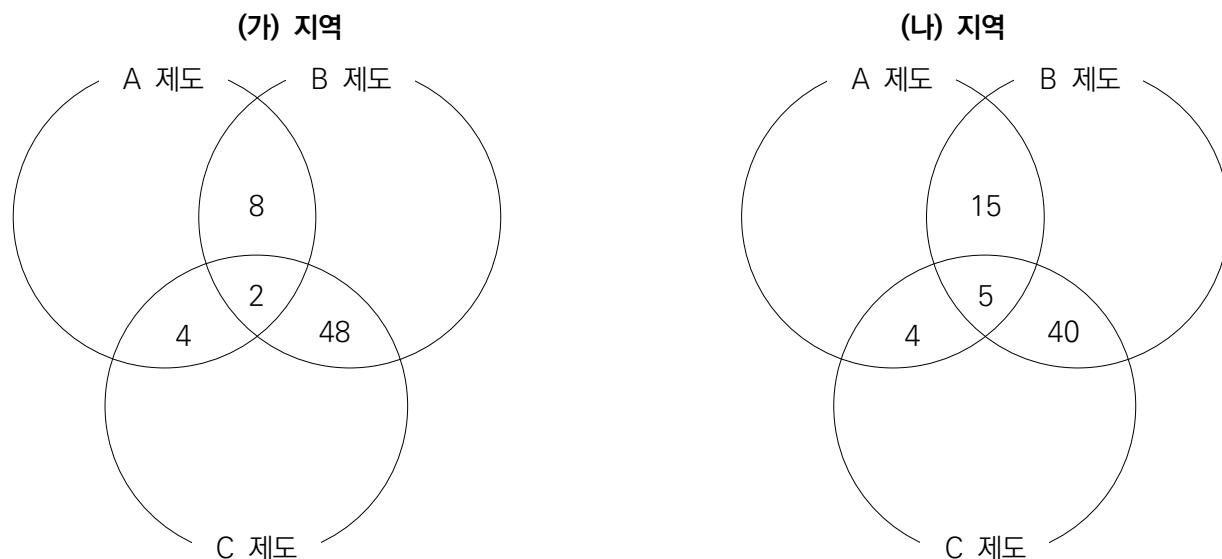
(가) 지역에서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인데, A와 B의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10%이므로 A와 B만의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10-2)\% = 8\%$ 이다.

또한 A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6%이므로 A와 C만의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6-2)\% = 4\%$ 이고, B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50%이므로 B와 C만의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50-2)\% = 48\%$ 이다.

(나) 지역에서 A, B, C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5%인데, A와 B의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0%이므로 A와 B만의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0-5)\% = 15\%$ 이다.

또한 A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9%이므로 A와 C만의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9-5)\% = 4\%$ 이고, B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50%이므로 B와 C만의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45-5)\% = 40\%$ 이다.

주어진 정보들을 모두 반영해 벤 다이어그램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표는 갑국의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중 (가), (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각 지역과 갑국 전체의 인구, ⑦~⑨에 들어갈 수를 구하고, (가), (나) 수급자 비율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시오.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전체 지역
(가) 수급자	26	⑦	⑨
(나) 수급자	76	68	70
(가)와 (나) 중복 수급자	⑨	6	10

*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됨.

** 갑국 전체 지역 65세 이상 인구 중 (가)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비율이 (가)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가) 수급자 비율의 6배임.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중 ‘(가)와 (나) 중복 수급자’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의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파악해야 한다.

‘갑국 전체 지역 65세 이상 인구 중 (가)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비율이 (가)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가) 수급자 비율의 6배임.’의 조건을 통해 ⑦, ⑨, ⑨에 들어갈 수를 구할 수 있다.

갑국 전체 지역 65세 이상 인구 중 (가)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비율은 $(70-10)\% = 60\%$ 이며, (가)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가) 수급자 비율은 $(\textcircled{9}-10)\% = 10\%$ 이다.

전자가 후자의 6배이므로 $60 = (\textcircled{9}-10) \times 6$, $\textcircled{9} = 20$ 임을 알 수 있으며, (나) 수급자에서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A 지역 65세 이상 인구:B 지역 65세 이상 인구 = 1:3임을 알 수 있으므로 ⑦과 ⑨은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각각 18, 22임을 알 수 있다.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전체 지역
(가) 수급자	26	18	20
(나) 수급자	76	68	70
(가)와 (나) 중복 수급자	22	6	10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 B 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A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의 3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전자를 300, 후자를 100으로 둘 수 있다.

A 지역에서 (가)와 (나) 중복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22%인데, (가)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26%이므로 (가)만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26-22)\% = 4\%$ 이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76%이므로 (나)만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76-22)\% = 54\%$ 이다.

B 지역에서 (가)와 (나) 중복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6%인데, (가)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8%이므로 (가)만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8-6)\% = 12\%$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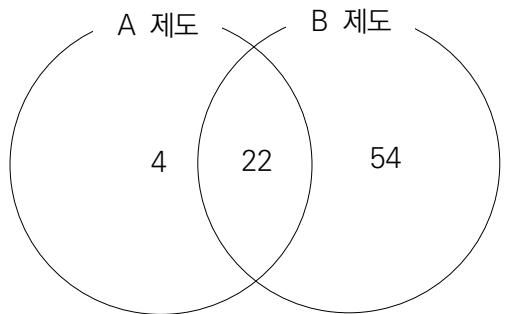
또한 해당 지역에서 (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68%이므로 (나)만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68-6)\% = 62\%$ 이다.

전체 지역에서 (가)와 (나) 중복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10%인데, (가)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20%이므로 (가)만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20-10)\% = 10\%$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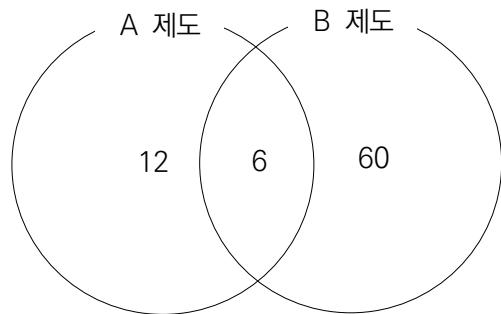
또한 해당 지역에서 (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70%이므로 (나)만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70-10)\% = 60\%$ 이다

주어진 정보들을 모두 반영해 벤 다이어그램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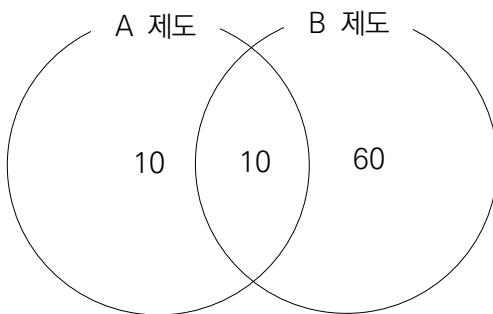
A 지역 (인구 100)



B 지역 (인구 300)



전체 지역 (인구 400)



4. 표는 우리나라 (가), (나) 각 지역의 A~C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각 지역의 A~C 수급자 비율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시오.

표는 갑국 20대 청년 실업자 중 A~C 수혜자와 비(非)수혜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중복 수혜자 중 A,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와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는 각각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의 2배이다.

(단위 : %)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3중 수혜자	비(非)수혜자
70	19	12	2	8

* 중복 수혜자 : A, B, C 중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

** 3중 수혜자 :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 비(非)수혜자 : A, B, C 어느 것의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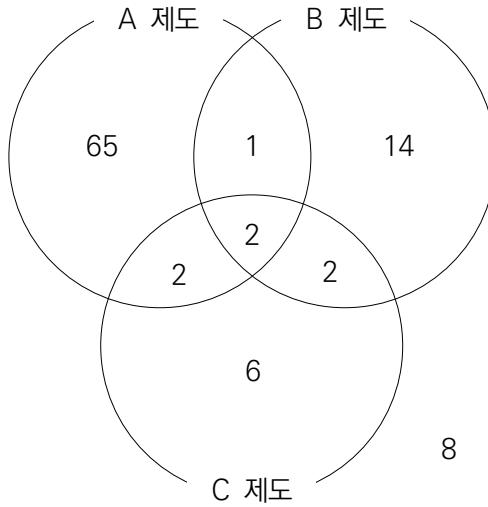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중 ‘3중 수혜자’, ‘비(非)수혜자’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의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파악해야 한다.

중복 수혜자 중 A,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와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는 각각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 즉 3중 수혜자의 2배이므로 해당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4%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C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6%임을 알 수 있고, 비(非)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8%이므로 A, B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를 전체 인구의 a%로 둔다면 $(70+19-a+6)\% = 92\%$ 가 되어 $a=3$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복 수혜자 중 A, B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이고, A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65%, B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4%임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정보들을 모두 반영해 벤 다이어그램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확인 문제 Check

※ 1~5.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 중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구분	(가) 수급자	(나) 수급자	(가)와 (나) 중복 수급자
갑국	36	18	5
을국	32	20	4

* 해당 국가 수급자 비율(%) = (해당 국가 수급자 수 / 해당 국가 전체 인구) × 100

** 을국의 전체 인구는 갑국의 2배임.

1. (가) 제도 단독 수급자 비율은 갑국이 을국보다 높다. (O / X)
2. 갑국의 (가) 제도 수급자 수는 을국의 (나) 제도 단독 수급자 수보다 많다. (O / X)
3. (가)와 (나) 중 적어도 한 제도를 수급하는 수급자 비율은 을국이 갑국보다 높다. (O / X)
4. 을국의 (가)와 (나) 중복 수급자 수 대비 갑국의 (가) 수급자 수의 비율은?
5. 을국의 (나) 제도 수급자 수 대비 갑국의 (가), (나) 제도 중복 수급자 수의 비율은?

※ 6~10. 다음은 갑국의 전체 인구 중 (가)~(다) 제도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구분	(가) 수급자		(가) 비수급자	
	(나) 수급자	(나) 비수급자	(나) 수급자	(나) 비수급자
(다) 수급자	6	8	4	12
(다) 비수급자	10	18	10	32

* 해당 국가 수급자 비율(%) = (해당 국가 수급자 수 / 해당 국가 전체 인구) × 100

6. (가)~(다) 중 두 가지 제도를 수급하는 사람은 (가)만 수급하는 사람보다 많다. (O / X)
7. (가)~(다) 중 어떤 제도도 수급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수급하는 사람보다 많다. (O / X)
8. (가)와 (나)를 동시에 수급하는 사람은 (다)만 수급하는 사람보다 많다. (O / X)
9. (가)~(다)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수급하는 제도는?
10. (가)~(다) 중 한 가지 제도만 수급하는 사람 대비 두 가지 이상의 제도를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사회·문화 기초 & 실전 개념서

Sapiens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1.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2.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3. 자료 수집 방법

#특강1. 연구 사례 분석

#4.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

● 개념 Check

1.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자연 현상의 의미

구분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의미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계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현상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현상
사례	자연재해, 계절 변화, 기후 변화 등	범죄, 교육, 생산 활동 등

▶ 실제 문항에 있어서는 제시된(밑줄 친) 내용이 자연 현상인지 또는 사회·문화 현상인지를 구분하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 이 경우, ‘밑줄 친’ 부분만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었는지, 또는 개입되지 않았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된다.

Ex1. 최근 과학자들은 혈액뇌장벽을 일시적으로 열어 뇌에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 방법을 발표하였다.
→ ‘발표’를 한 것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현상이므로 사회·문화 현상이다.

Ex2. 우리 뇌의 혈액뇌장벽이 대부분의 약물을 전달을 억제한다.
→ ‘억제’를 한 것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현상이 아니므로 자연 현상이다. 인간의 몸에서 이루어진 현상이지만, 인간의 의지에 따라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자연 현상인 것이다.

Ex3. 하지만 특수 오일은 그러한 행동을 못 하게 하여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앓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기출되어 많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내용으로, ‘특수 오일은 사람이 만든 거 아냐?’라고 생각해 위를 사회·문화 현상으로 판단한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넘쳐나 1번 문항임에도 오답률 60%를 찍게 만들었던 주범이다.
하지만 ‘피부에 앓는 것을 차단’하는 것만 놓고 보면, 거기에 인간이 개입하는 부분은 일절 없으므로 빼박 자연 현상.

2.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의 특징

(1)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가치 함축성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들의 가치나 의지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당위적 규범의 반영	사회·문화 현상은 종종 사회의 규범적 요구가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	사회·문화 현상은 발생 요인과 그 결과가 무조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건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어 예외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사회·문화 현상이 존재하는 한편,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 또한 존재한다.

- ▶ 단순히 글자 그대로를 외우기보다는, 어차피 위 특징들은 선지에서 주어지므로 해당 특징이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인 이유만을 이해하면 된다.
- ▶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들의 가치 또는 의지가 반영, 즉 함축되어 있기에 ‘가치 함축성’을 띠고, 사회의 규범, 즉 당연히 해야 할 당위를 담은 요구가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하기에 ‘당위적 규범의 반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당위 법칙에 지배’받는다고 표현되기도 한다.
- ▶ 또한 어떠한 원인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Ex. 똑같이 시험을 망쳤을 때 누군가는 좌절하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필연적이지 않고 개연적이며 특정 결과가 확률적으로 나타나기에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나타난다.
- ▶ 그리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현상(Ex. 상대방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은 적대감의 표현)이 존재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특수하게 나타나는 현상(Ex. 손가락 육의 형태가 국가마다 다른 것)도 존재하므로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이 나타나는 것.

(2) 자연 현상의 특징

몰가치성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존재 법칙의 지배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인식과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	자연 현상은 특정 원인이 존재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확실하게 발생한다.
보편성	자연 현상은 시대와 공간에 상관없이 그 발생 원리가 동일하므로 일정한 조건만 맞춰 지면 어느 환경 하에서건 같은 현상을 보편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 ▶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특징이 자연 현상의 특징인 이유만을 이해하면 된다. ‘몰상식하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는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몰상식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자연 현상은 인간이 매긴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몰가치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 또한 자연 현상은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건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 자연재해를 많은 사람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이처럼 자연 현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므로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 그리고 생각해 보자. 연못에 돌이 떨어지면 물결은 반드시 일어난다: 연못에 돌이 떨어진 ‘원인’은 반드시 물결이라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오며, 이는 어느 시대 또는 공간 아래서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연 현상은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를 따르며 ‘보편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3.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1)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 **거시적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사회 구조나 제도 등 개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체계, 즉 ‘거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으로, 뒤에서 살펴볼 기능론과 갈등론이 여기에 해당함.
- **미시적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상호 작용이나 개개인의 주관적인 세계, 즉 ‘미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으로, 뒤에서 살펴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여기에 해당함.

(2) 기능론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는 유기체처럼 다양한 부분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이루며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 사회 불평등은 사회 체계를 유지하고, 각 개인이 능력껏 보상을 받게 하기에 불가피하다.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는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한 불안정한 상태 또한 사회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사회 속의 한 부분으로서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한 기능의 수행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 사회 규범이나 사회 제도 등이 수행하는 역할은 ‘사회 전체’의 합의가 반영된 것으로, 전체 사회의 통합과 존속,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안정이 유지되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불리하다. • 현재의 사회를 이상적으로 보기에 기준의 질서나 권력관계의 유지에 기여하는 보수적 관점이다.

(3) 갈등론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갈등과 대립의 장이다. • 사회 불평등은 각 개인이 가진 능력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기에 척결해야 한다.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에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존재하며, 사회 질서와 안정은 지배 계급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다. •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기에 갈등은 필연적이며, 그 갈등은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 • 사회 규범과 제도는 지배 계급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현재의 계급을 재생산해 영원히 지배 계급으로써 남아 있게끔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및 갈등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각 부분 간의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한다. 사회에서 나타나는 협동과 조화의 현상을 설명하기 불리하다. 사회 질서와 안정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	---

- ▶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 차이는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면 이해가 쉽다: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은 각 개인이 가진 능력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은 각 개인의 출신 배경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한마디로 기능론은 ‘노력론’, 갈등론은 ‘수저론’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
- ▶ 기능론의 입장서, 사회 불평등은 각 개인이 가진 능력에 따른 것이기에 각 개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에 걸맞는 구성 요소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능력이 좋은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안 좋은 사람은 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이렇게 위치된 구성 요소들로 사회는 작동하는 것이다.
- ▶ 갈등론의 입장서, 사회 불평등은 각 개인의 출신 배경에 따른 것이기에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 내(피지배 계급)가 저 사람(지배 계급)보다 능력은 훨씬 좋은데 출신 배경 때문에 더 낮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렇기에 저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반대로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끌어내려지지 않도록 기존의 사회 구조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4) 상징적 상호 작용론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이며,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주체이다.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정의(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인간은 상징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을 하며, 일상생활은 이러한 상호 작용 하나하나가 모여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는 그것이 발생하는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나 행위의 측면을 잘 설명할 수 있다.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행위가 사회 구조나 제도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수 있음을 경시한다.

- ▶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기능론, 갈등론과는 사회 불평등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취한다: 사회 불평등은 각 개인이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돈이 많지만 못생긴 A와 돈이 적지만 잘생긴 B가 있다 했을 때, 누군가는 A가 B에 비해 불평등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B가 A에 비해 불평등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 ▶ 기능론과 갈등론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전제가 하나 있다: 사회적 희소가치, 다시 말해 ‘자산’은 이미 사회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기에 개인은 이미 규정된 사회적 희소가치를 자신이 가진 능력에 따라 정의롭게 배분받거나(기능론), 출신 배경에 따라 정의롭지 못하게 배분받아 피 터지게 싸우게 된다는 것(갈등론). 두 관점 모두 사회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는 사회적 희소가치에 대한 정의를 공유하므로 개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이다.
- ▶ 반면에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보기에, 사회적 희소가치는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누군가는 돈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희소가치로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외모를 가장 중요한 사회적 희소가치로 볼 수도, 또 누군가는 제3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사회적 희소가치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 ▶ 그렇기에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적 희소가치가 사회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므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상호 작용이나 개개인의 주관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이다.

● 확인 문제 Check

※ 1~5. 제시된 특징이 자연 현상의 특징에 해당하면 '자',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에 해당하면 '사'를 고르시오.

1. 가치 함축성 (자 / 사)
2. 존재 법칙의 지배 (자 / 사)
3. 보편성 (자 / 사)
4.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 (자 / 사)
5. 필연성과 확실의 원리 (자 / 사)

※ 6~10. 밑줄 친 내용이 자연 현상에 해당하면 '자',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에 해당하면 '사'를 고르시오.

6. 사과의 껍질을 깎아 공기 중에 노출시킨다. (자 / 사)
7.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차가 잘 미끄러지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 / 사)
8. 벽지나 가구 등에 함유된 화학 물질이 방출된다. (자 / 사)
9.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의 질을 관리한다. (자 / 사)
10. 도심 속 가로수는 그늘을 만들어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 (자 / 사)

※ 11~20. 제시된 특징이 기능론의 특징에 해당하면 '기', 갈등론의 특징에 해당하면 '갈',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특징에 해당하면 '상'을 고르시오.

11.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기 / 갈 / 상)
12. 미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기 / 갈 / 상)
13. 사회가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기 / 갈 / 상)
14. 인간을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 본다. (기 / 갈 / 상)
15. 인간의 능동적 행위의 측면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평을 받는다. (기 / 갈 / 상)
16. 사회를 집단 간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본다. (기 / 갈 / 상)
17.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에 있어 개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체계에 초점을 둔다. (기 / 갈 / 상)
18.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현상을 설명하기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 / 갈 / 상)
19. 사회 규범과 제도는 지배 계급의 합의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본다. (기 / 갈 / 상)
20. 인간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정의에 기초해 행동한다고 본다. (기 / 갈 / 상)

[정답]	1. 사	2. 자	3. 자, 사	4. 사	5. 자
	6. 사	7. 자	8. 자	9. 사	10. 자
	11. 기, 갈	12. 상	13. 기	14. 상	15. 상
	16. 갈	17. 기, 갈	18. 기	19. 갈	20. 상

● 개념 Check

1. 양적 연구

(1) 의미

계량화된 자료 수집과 통계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2) 연구 목적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일반화, 법칙을 찾고자 함

(3) 전제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본질적으로 같은 특성을 공유하므로, 자연 현상에 대한 자연 과학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함. (방법론적 일원론)

(4) 기본 입장

-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측정과 계량화,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일정한 규칙성이 존재한다.
- 자연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 것과 같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법칙 발견이나 일반화의 마련이 가능함.

▶ 한 마디로, 양적 연구는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동일한 특성을 공유한다고 전제하므로, 자연 현상에 대한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 #1에서 자연 현상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반드시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와 유사한 현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굳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가정할 필요 없이, 뭉뚱그려서 다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질문지를 뿐만 아니라, 실험을 한다던가,,

(5) 일반적인 연구 과정

1. 문제 인식 및 연구 주제의 설정

기존의 이론이나 가설, 새롭게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 등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으로부터 연구 주제가 설정됨.

2. 가설 설정

연구 주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가설) – Ex: 백색 소음에 대한 청취는 학습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을 제시하는 단계로, 변인(백색 소음에 대한 청취)과 변인(학습 효율성) 간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정함.

3. 연구의 설계

- 개념의 조작적 정의: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으로, 추상적 개념의 속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를 활용함(Ex. 학습 효율성 – 일련의 시험에서 거둔 100점 만점의 성적).
- 세부 실행 계획 구상: 연구 대상, 자료 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방법, 연구 기간 등 연구의 진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을 설계함.

4. 자료 수집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3에서 언급한 자료 수집 방법 중 주로 질문지법 또는 실험법 등을 활용함.

5.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하는 과정으로, 주로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해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함.

6. 가설 검증

수집한 자료의 분석 결과에 따라 가설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해당 과정에서 가설은 수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으며, 수용과 기각 모두 검증에 포함됨.

- ▶ 기각은 검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헛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잘 알아두어야 한다.

7.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연구 주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뒤, 다른 상황에 적용 가능한 일반화를 정립함.

- ▶ 단, 모든 상황에 대해 일반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된 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공유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일반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는 고등 학생 전체에 대한 일반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이를 넘어서 청소년 전체에 대해 일반화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6) 장점과 단점

- **장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측정과 계량화, 통계 분석을 통해 정밀하고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법칙 발견 또는 일반화의 정립에도 유리하다.
- **단점:**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곤란한(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어려운)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행위 주체인 인간의 주관적 의도나 동기를 배제한 연구를 함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피상적인 연구에 그칠 우려가 있다.

▶ 한 마디로,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더해 인간의 주관적 의도 또는 동기가 나타 난다는 특성까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양적 연구는 원래 자연 현상에 활용되고 또 특화된 연구 방법이므로 인간의 주관적 의도 또는 동기와 관련된 특성에 대한 연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2. 질적 연구

(1) 의미

연구 대상자의 생활 세계에 대한 관찰이나 면담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2) 연구 목적

현상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 및 행위 동기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3) 전제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공유하므로, 자연 현상에 대한 자연 과학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 있어서 동일한 적용이 어려움. (방법론적 이원론)

(4) 기본 입장

-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주관적 의도나 동기를 가진 인간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현상이다.
-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측정과 계량화,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는 인간에 의해 주관적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구성되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
-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상황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사회·문화 현상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 마디로, 질적 연구는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다른 특성을 공유한다고 전제하므로, 자연 현상에 대한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 이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자연 현상에 대한 연구와 달리 좀 더 인간 내의 주관적인 측면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1:1로 면접을 진행한다던가, 연구 대상자들이 영위하는 일상생활에 직접 참여해서 관찰한다던가,,

(5) 일반적인 연구 과정

1. 문제 인식 및 연구 주제의 설정

주관적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는 단계임.

2. 연구의 설계

연구 대상, 자료 수집 방법, 자료 해석 방법, 연구 기간 등 연구 진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임.

- ▶ 자료 ‘분석’이 아닌 ‘해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그리고 ‘가설 설정’의 단계가 없는 것에 주목하자. 사회·문화 현상은 같은 조건 하에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므로 가설을 설정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 이 질적 연구의 입장이며, 자료 ‘분석’이 아닌 ‘해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 ▶ 이에 따라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할 필요도 없어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자료 수집 및 해석

- #3에서 언급한 자료 수집 방법 중 주로 참여 관찰법 또는 면접법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
- 직관적 통찰(통계적 분석이나 논리적 계산이 아닌, 주의 깊은 관찰과 경험의 과정을 통해 현상의 본질적인 측면을 깨뚫어 보는 것)과 감정 이입적 이해(말 그대로 감정을 이입해서 연구 대상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를 통해 자료를 수집함.
- 이후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는데, 그 특성상 자료 수집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음.

4. 결론 도출

개별적인 자료로부터 해석된 행위자의 주관적 세계가 갖는 의미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함.

(6) 장점과 단점

- **장점:** 통계 자료와 같은 양적 분석이 이루어진 자료나 인과 법칙과 같은 단순화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현상의 이면에 담긴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 ▶ 앞에서도 여러 번 살펴봤듯, 사회·문화 현상은 같은 조건 하에서도 다른 결과가 종종 도출되므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므로 그 ‘행동’을 다루는 인과 법칙으로는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 ▶ 이에 따라 ‘행동’을 다루는 인과 법칙이 아닌, ‘생각’을 다루는 기법을 활용함으로서 심층적인 이해를 갖출 수 있다는 것.
- **단점:** 연구 결과의 일반화나 법칙 발견이 어려우며,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 ▶ 연구 결과의 일반화나 법칙 발견이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주의 깊은 관찰과 경험’과 ‘감정의 이입’에서 과연 연구자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연구자도 인간인 만큼 결국 이에 있어서는 주관 개입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
- ▶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그 특성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실제 연구 사례를 준 뒤, 각 연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양상을 분석하는 유형으로 출제된다. 그렇기에 위에서 설명한 개념들을 달달 외우기보다는 실제 문항에 적용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다시 이야기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같은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 지역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학업 성취도와 ① 문해력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자료에서 문해력을 기준으로, 상위 100명(A 집단)과 하위 100명(B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업 성취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② B 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A 집단의 학업 성취도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③ ○○ 독서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갑과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갑의 연구에서 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판명된 B 집단을 무작위로 50명씩 C 집단과 D 집단으로 나눈 후 C 집단에게만 4주간 ④ ○○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독서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갑이 활용한 측정 도구로 ⑤ 문해력 수준을 측정한 결과, C 집단의 문해력 수준은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나 D 집단의 문해력 수준은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이후 을은 D 집단에게만 ⑥ ○○ 독서 프로그램을 4주간 적용하였다. 그 결과 D 집단의 문해력 수준이 높아져 최종적으로 ⑦ C 집단과 D 집단 간에는 문해력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①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 지역 고등학생이다.
- ② ⑦은 을의 연구에서 사전 검사로 활용되었다.
- ③ ⑤은 문해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부(-)의 관계를 보여 준다.
- ④ 을은 을의 연구에서 실험 처치에 해당한다.
- ⑤ ⑥은 ⑦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문항 – 오답률 53.0%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연구자 갑은 요즘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후 갑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게임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가) []를 가설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갑은 A 기관이 공개한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 자료에서 ①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과 게임 의존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해 청소년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가 청소년 게임 의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갑은 (나) []라고 제언하였다.

<보기>

ㄱ. ⑦은 갑의 연구에서 1차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도구이다.
 ㄴ. (가)에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게임 의존도가 높을 것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ㄷ. (나)에는 '청소년의 게임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가 들어갈 수 없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문항 – 오답률 63.4%

실제 연구 사례에 대한 분석을 묻고 있다.

▶ 그리고 해당 유형은 수능 사회·문화 과목에 있어 고난도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실제 문항에 적용되는 양상은 자료 수집 방법까지 학습한 뒤 특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확인 문제 Check

※ 1~10. 제시된 특징이 양적 연구의 특징에 해당하면 ‘양’, 질적 연구의 특징에 해당하면 ‘질’을 고르시오.

1. 방법론적 일원론을 바탕으로 한다. (양 / 질)
2. 자료의 해석을 전제로 진행된다. (양 / 질)
3. 일반적으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진다. (양 / 질)
4. 가설 검증의 절차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양 / 질)
5. 자료의 분석을 전제로 진행된다. (양 / 질)
6. 연구 결과의 일반화나 법칙 발견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양 / 질)
7. 현상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 및 행위 동기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양 / 질)
8.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피상적인 연구에 그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 (양 / 질)
9.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 (양 / 질)
10. 직관적 통찰과 감정 이입적 이해 기법을 주로 활용한다. (양 / 질)

● 개념 Check

1. 질문지법

(1) 의미

조사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질문지를 미리 제작한 후, 조사 대상자에게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2) 특징

- 일반적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분석할 목적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된다.
-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질문지가 제시되는, 구조화·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 모두를 조사하는 전수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하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문서화된 질문지를 조사 대상에게 직접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활용한 설문 조사 또한 질문지법에 포함된다.

▶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를 한 사례를 질문지법을 활용한 사례로 판단해야 하는 문항이 추후 출제될 수 있으니 알아 두자.

(3) 장점과 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교적 효율적이다. 분석 기준이 명확하고 통계 처리가 용이하여 분석 연구에 적합하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 언어를 통해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곤란하다. 회수율, 응답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무성의한 응답, 악의적인 응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곤란하다.

▶ 일대일로 대화를 하거나, 실험 상황을 구성하거나,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직접 참여하는 뒤에서 살펴볼 다른 자료 수집 방법과 다르게, 질문지법은 질문지 딱 뿌리고 응답 딱 받으면 끝이다. 그러기에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가장 유리하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

▶ 하지만 생각해보자.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때 성심성의껏 답변한 경우가 많은가, 아니면 바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가? 이와 정확히 같은 이유로 회수율, 응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응답을 하더라도 무성의하거나 악의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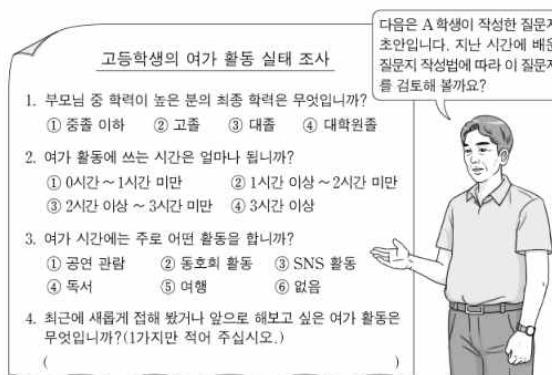
▶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곤란한 건,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양적 연구가 영원히 안고 가야 할 숙제와도 같다. 막말로 일반화하는 대상이 ‘직장인’ 또는 ‘고등학생’의 매우 큰 집단이라면, 어떻게 표본을 뽑아도 그 집단의 전체 속성을 대변하게끔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4) 질문지 작성 시 유의점

유의점	잘못된 질문의 사례
1. 응답 선택지에 중복된 내용이 존재해서는 안 됨. 다시 이야기하면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함.	Q. 당신의 하루 평균 운동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시간 이하 ②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 ③ 2시간 이상
2. 응답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제시해야 함. 다시 이야기하면 선택지는 포괄성이 있어야 함.	Q. 당신의 하루 평균 운동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시간 이하 ② 2시간 이상 3시간 이하 ③ 4시간 이상
3. 질문의 의미가 명확해야 함.	Q. 최근 당신의 평균 운동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4. 한 질문에는 한 가지 정보만을 물어봐야 함.	Q. 당신은 당신이 매일 충분한 시간을 운동 또는 수면에 할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됨.	Q. 꾸준한 운동은 건강 유지에 필수입니다. 대학교에서의 체육 교양 이수 필수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엔 출제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에는 질문지 작성 시 유의점을 활용한 문항이 종종 출제되었다. 언제 다시 등장할지 혹시 모르니, 이해만 해 두고 넘어가자.

12. 교사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옳게 검토한 학생을 고른 것은? [3점]



학생	문항	검토 내용
갑	1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어요.
을	2	응답에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어요.
병	3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에요.
정	1, 4	한 질문에서 두 가지 사항을 묻고 있어요.
무	2, 3	선택지가 포괄적이지 않아요.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질문지 작성 시 유의점에 관한 문항 – 오답률 62.3%

2. 실험법

(1)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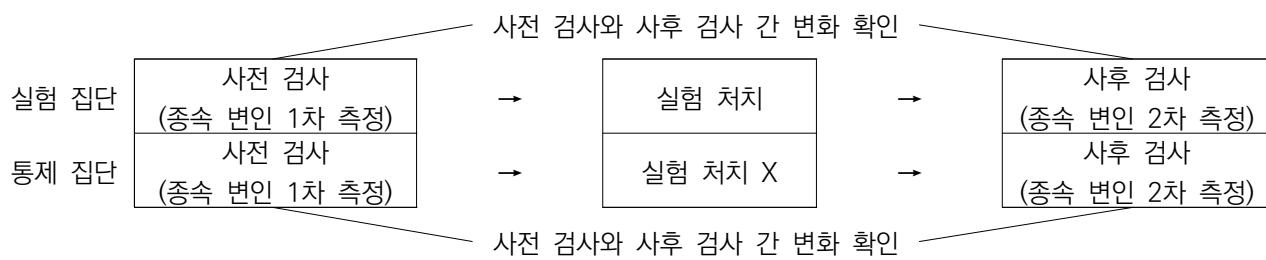
실험 상황을 만들어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후, 그에 따라 나타난 변화를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2) 특징

- 일반적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분석할 목적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된다.
- 사회·문화 과목에서 다루는 자료 수집 방법 중 가장 강한 통제가 가해지는 방법이다.

▶ 실험 상황을 만들어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다는 특성상, 한 가지 상황이라도 틀어지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변화에 제3의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장 강한 통제가 가해질 수밖에 없으며, 또 가 해져야 한다.

(3) 일반적 구조



→ 이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나타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 변화의 비교

(4) 사례

연구자 갑은 자신이 개발한 알코올 의존증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갑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 20명을 연구 대상자로 모집한 뒤 그들의 알코올 의존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이후 그들을 각각 10명씩 집단 A, B로 나눈 뒤 1주일간 집단 A에는 자신이 개발한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집단 B에는 별도의 처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1주일이 지난 뒤 집단 A와 B에 속한 연구 대상자들의 알코올 의존 정도를 재측정하였으며, 해당 측정 결과를 기존의 측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5) 장점과 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과 관계의 파악을 위해 법칙을 발견하는 데 유리하다. 정확성, 정밀성, 객관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수집된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집단 간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과학에서와 달리 사회 과학에서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실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험 대상이 인간이라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통제된 상황에서의 실험 결과를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발생한다.

- ▶ 애초에 인과 관계의 파악을 위해서 실험을 위한 그 모든 세팅을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수고를 들이는 만큼, 인과 관계의 파악과 법칙의 발견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정확성과 정밀성, 객관성 또한 (실험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는 가정 하에) 직접 상황을 세팅해서 그 결과를 보는 만큼 높을 수밖에 없는 것.
- ▶ 하지만 #1에서 보았듯 사회·문화 현상에는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실험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설령 완전한 통제가 성공한 실험을 통해 결과를 얻어도 그걸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 역시 예외가 너무나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3. 면접법

(1) 의미

조사 대상자와 대면하면서 조사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2) 특징

- 일반적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활용된다.
- 조사 대상자, 진행 상황, 응답 내용 등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유연하게 제시하는 비구조화·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 ▶ 질문지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냥 종이 뿌리면 끝날 일을 굳이 한명한명 만나가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연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며 대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
- ▶ 질문지법은 종이에 적혀 있는 구조에 따라 자료 수집을 하기에 구조화된, 그리고 그 내용이 표준이 되기에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인 것이고, 면접법은 반드시 따라야만 하기로 정해진 구조가 없고 표준이 될 내용도 없기에 비구조화·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인 것이다.

- 일반적으로 심층적 조사를 위해 소수를 연구 대상자로 하며, 필요 시 추가 면접을 진행하기도 한다.
- 라포(rapport), 즉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호의적 분위기의 형성이 조사 목적 달성에 중요하다.

(3) 장점과 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자의 행위 동기나 가치 등 주관적인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용이하다. •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해 응답 거부나 회피, 무성의한 응답, 조사 의도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응답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므로 문맹자(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도 실시할 수 있다. • 자료 수집 방법에서 조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	--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를 대상으로 면접을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듈다. • 조사 주제에 부합하는 조사 대상자를 올바르게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 • 조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 개입할 우려가 크다.
----	--

- ▶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조사 대상자의 진실된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의 주관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질문지법, 실험법에 비해) 용이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응답 거부나 회피, 무성의한 응답, 조사 의도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응답 문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잘 친해질 수 있는’ 조사자의 역량에 따라서.
- ▶ 문맹자를 아예 ‘언어를 모르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데, 문맹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다시 말하면 문맹자도 말을 하고 알아들을 수는 있다. 그렇기에 질문지법은 문맹자를 상대로 활용이 어렵지만 면접법은 활용이 가능한 것.
- ▶ 조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 개입할 우려가 큰 것은 질적 연구가 영원히 안고 갈 숙제와 같다. 결국 조사 과정서 ‘해석’이 들어가므로 조사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생각이 양적 연구에 비해 들어갈 여지가 훨씬 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

4. 참여 관찰법

(1) 의미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참여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2) 특징

- 일반적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활용된다.
- 가장 전형적인 비구조화·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의 행동에 일체의 조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많이 소요된다.

(3) 장점과 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용이하다. • 외국인, 문맹자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시간,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 연구 대상자가 조사자의 의도를 알게 될 경우 정확한 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 • 조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 개입할 우려가 크다.

- ▶ 직접 연구 대상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가서 살펴보는 것이니 당연히 자료의 실제성 확보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냥 ‘실제’ 자료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일상생활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용이한데, 왜냐하면 ‘일상생활’ 그 자체를 관찰하는 거니까.

- ▶ 연구 대상자가 조사자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일부러 의도에 부합하게 행동을 하거나(도와주거나), 일부러 의도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을 하는(방해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
- ▶ 조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 개입할 우려가 큰 것은 질적 연구가 영원히 안고 갈 숙제와 같다. 결국 조사 과정서 ‘해석’이 들어가므로 조사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생각이 양적 연구에 비해 들어갈 여지가 훨씬 큰 것은 참여 관찰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팩트.

5. 문헌 연구법

(1) 의미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2) 특징

-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다.
- ▶ 양적 연구를 통해 남이 수집했던 자료를 참고하면 그게 양적 연구에서의 활용이고, 질적 연구를 통해 남이 수집했던 자료를 참고하면 그게 질적 연구에서의 활용이다.
- 신문 기사, 논문, 도서뿐만 아니라 인터넷 문서, 그림, 동영상 등 문헌의 형태는 다양하다.
- 2차 자료의 수집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 ▶ 1차 자료는 본인이 어떻게든 스스로의 연구를 수행해서 직접 수집한 자료를 말하고, 2차 자료는 기존의 자료, 다시 말해 남이 수집한 자료를 현재 본인이 수행 중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자료를 말한다. 다시 말해 문헌 연구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정말 웬만하면 다 2차 자료.

(3) 장점과 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 기존 연구 동향이나 성과 파악을 통한 ‘참고’ 자료 수집에 적합하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 문헌 해석 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

- ▶ 남이 수행한 연구 자료 훌랑 먹으면 되므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밖에 없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
- ▶ 문헌을 해석하는 맥락은 사실 질적 연구에서 상황의 해석과 유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 역시 배제할 수 없다.

- ▶ 자료 수집 방법에서 주로 출제되는 유형은 자료 수집 방법이 활용된 실제 사례를 보고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이 활용되었는지 판단을 하는 형태인데, 여기서 문헌 연구법을 활용한 낚시가 자주 출제된다. ‘다른 사람이 질문지법/실험법/면접법/참여 관찰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문헌 연구법으로 수집했지롱 짜잔’과 같은 형태.
- ▶ 예시 1: 갑은 도심 재생 사업이 지역 공동체 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에 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한 ○○ 지역의 도심 재생 사업 위원회가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자료집을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에는 도심 재생 사업 효과의 평가 및 주민 만족도, 사업 후 이웃 간 협력과 신뢰 정도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 예시 2: 을은 학생들의 교우 관계와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연구 기관이 발행한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후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확인 문제 Check

※ 1~10. 제시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을 모두 적으시오.

1.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2. 질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3. 문맹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활용이 곤란하다.
4. 조사자의 유연성이나 융통성 발휘에 유리하다.
5. 다수를 상대로 한 자료 수집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6. 일반적으로 자료 수집에 있어 가장 강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7. 인과 관계의 파악을 통한 법칙 발견을 그 목적으로 한다.
8.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용이하다.
9. 연구 대상자가 조사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
10.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일반적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다.

※ 11~15. 다음 사례에서 활용된 자료 수집 방법을 모두 적으시오.

11. 갑은 진로 집중 학기제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한 학기 동안 참관하며 관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이후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 집중 학기제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12. 을은 학생들의 교우 관계와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연구 기관이 발행한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후 □□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13. 갑은 청소년이 휴대 전화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 고등학교 학생의 일상생활을 관찰한 연구 기관의 보고서를 분석함. 이후 휴대 전화 의존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사용 용도와 중독 증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고 이 과정을 녹음함.
14. 을은 팬덤 문화 연구를 위해 ☆☆ 야구단의 팬클럽에 가입하여 6개월간 회원들과 경기를 관람하며 그들의 대화와 응원 모습을 기록함. 이후 아이돌 팬클럽의 열성팬을 대상으로 그들만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경험을 직접 듣고 심층적인 자료를 얻음.
15. 병은 대학생의 정치 성향과 정치 참여 연구를 위해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함. 또한 선거 관련 기관이 발간한 대학생 정치 성향 면접 조사 자료집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정치 참여 과정을 연구함.

[정답]	1. 질문지법, 실험법 4. 면접법 7. 질문지법, 실험법 10. 문헌 연구법 13. 문헌 연구법, 면접법	2. 면접법, 참여 관찰법 5. 질문지법 8. 면접법, 참여 관찰법 11. 참여 관찰법, 질문지법 14. 참여 관찰법, 면접법	3. 질문지법 6. 실험법 9. 참여 관찰법 12. 문헌 연구법, 질문지법 15. 질문지법, 문헌 연구법
------	---	--	--

● 개념 Check

‘연구 사례 분석’ 유형은 아마 이 교재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보다도 훨씬 전부터, 제각기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어 매년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고난도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8.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연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 ① 연구 주제 설정: 정보 격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A 지역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형태에 부모의 경제 수준 및 부모의 인터넷 이용 형태가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로 하였다.
- ② (가) ①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아지고, ② 부모의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 ③ (나) A 지역에서 선정된 6개 ④ 고등학교 학생 1,000명 중 ⑤ 부모도 응답 가능한 3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 ④ (다) 경제 수준은 ⑥ 월평균 소득으로,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는 ⑦ 인터넷 이용 시간 중 정보 검색 시간 비중으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 ⑤ (라) 부모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자녀의 정보 검색 시간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부모의 정보 검색 시간 비중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보 검색 시간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⑦은 독립 변수, ② ⑤은 종속 변수이다.
 ② ⑥은 모집단, ③ ④은 표본이다.
 ③ ⑥은 ①의, ④은 ②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④ (라)로 보아 가설은 검증되었다.
 ⑤ (다)–(나)–(가)–(라)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 오답률 69.7%

5.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연구 주제: 독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연구 가설

– 가설 1: (가)

– 가설 2: 독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 연구 설계 및 자료 수집: ① ②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각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학년별로 50명씩 A, B 두 집단으로 나누었음. 1개월간 A 집단에는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B 집단은 평소와 같이 생활하게 하였음. 프로그램 적용 전후에 검사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정도와 자아 존중감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였음.

○ 자료 분석 및 가설 검증: 자료 분석 결과는 표와 같으며, 가설 1과 가설 2 중 하나만 수용되었음.

(단위: 점)

학년	집단	① 스트레스		② 자아 존중감	
		사전	사후	사전	사후
③ 3학년	A	6.0	5.0	6.9	7.3
	B	5.9	5.8	6.9	7.2
④ 6학년	A	5.9	5.0	6.9	6.8
	B	6.0	5.9	6.9	6.9

* 표의 점수는 각각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을 10점 만점으로 한 해당 집단의 평균값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높음.

**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보기>

ㄱ. ①은 실험 집단, ②는 통제 집단이다.
 ㄴ. ③, ④는 모두 종속 변수이다.
 ㄷ. ⑤의 경우, ①의 B 집단은 ②의 B 집단과 달리 독서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았다.
 ㄹ. (가)에는 ‘독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 시킬 것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 오답률 37.6%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 지역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학업 성취도와 ① 문해력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자료에서 문해력을 기준으로, 상위 100명(A 집단)과 하위 100명(B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업 성취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② B 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A 집단의 학업 성취도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을은 ③ ○○ 독서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갑과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갑의 연구에서 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판명된 B 집단을 무작위로 50명씩 C 집단과 D 집단으로 나눈 후 C 집단에게만 4주간 ○○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독서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갑이 활용한 측정 도구로 ④ 문해력 수준을 측정한 결과, C 집단의 문해력 수준은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나 D 집단의 문해력 수준은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이후 을은 D 집단에게만 ○○ 독서 프로그램을 4주간 적용하였다. 그 결과 D 집단의 문해력 수준이 높아져 최종적으로 ⑤ C 집단과 D 집단 간에는 문해력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①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 지역 고등학생이다.
- ② ①은 을의 연구에서 사전 검사로 활용되었다.
- ③ ②은 문해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부(-)의 관계를 보여 준다.
- ④ ③은 을의 연구에서 실험 처치에 해당한다.
- ⑤ ④은 ⑤를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 오답률 53.0%

위와 같이 ‘연구 사례 분석’ 문항은 그 형태는 다를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난이도가 높은 형태로 출제되어 왔으며, 18학년도까지의 ‘순서 없이’ 형태, 21학년도까지의 ‘수 계산’ 형태를 이어 현재는 ‘텍스트 폭탄’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

각 형태별로 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 또는 행동강령은 모두 서로 다르기에 21학년도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항을 학습하는 것은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 우리는 22학년도 이후에 출제된 형태의 문항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면 되는 것.

그리고 해당 형태의 문항에 있어 필자가 강조하는 점은 딱 한 가지이다:

‘선지에서 요구하는 판단을 미리 확인하는 것’

유의미한 스킬이 존재했던 21학년도 이전까지의 문항과는 달리, 현재 출제되고 있는 문항들에 있어 스킬이랄 것은 냉정히 말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평가원이 현재 강조하고 있는 출제 스타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에서 말한 ‘선지에서 요구하는 판단에 대한 사전 확인’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문제 풀이 훈련 역시 독해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선지에서 요구하는 판단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며, 이를 확인한 후에는 어떤 작업을 진행해야 할까?

이 지점에 관해서는, 실제 출제된 문항을 통해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1. 각 선지에 밑줄이 주어져 있는 경우

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연구자 갑은 ㉠ '온라인 게임 내 이용자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를 연구 주제로 설정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를 통해 온라인 게임에서는 ㉡ 게임 캐릭터 레벨을 기준으로 게임 이용자들 간 서열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 서열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 연구를 수행하였다. 갑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10개월 동안 게임 이용자로 활동 하며 선행 연구 결과를 재확인하였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대면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의 ㉣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드러난 이후에는 기준에 형성되었던 온라인 게임 내 이용자들 간 서열이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이에 갑은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 추가 연구를 실시하였다. ㉥ 온라인 게임 이용자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갑은 ㉧ 온라인 게임에만 참여한 사람들은 게임 캐릭터 레벨에 의존해서 서열을 형성한 반면, ㉨ 대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 학력, 소득 등을 중심으로 서열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① ㉠ 단계와 ㉧ 단계 모두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 ② ㉛에서 ㉛은 표본 집단, ㉜은 모집단에 해당한다.
- ③ ㉛에서 ㉜은 독립 변수, ㉜은 종속 변수에 해당한다.
- ④ ㉧은 ㉛의 결과 중 대면 모임 이후 발견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 ⑤ ㉛과 ㉜은 모두 양적 연구이다.

▲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항

각 선지에 밑줄이 주어져 있는 경우 행동강령은 간단하다:

1. 선지에 따라 밑줄이 주어진 부분을 본다.
2. 해당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한다.
3. 지문을 읽으며 1, 2번에서 주목한 부분이 나타나면 관련 선지를 판단한다.

위 문항을 통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연습해 보자.

1번 선지에서 밑줄은 ㉠과 ㉧에 주어져 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이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다른 부분을 참고할 필요도 없이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

㉧ 단계는 자료 분석 단계이므로 가치 중립이 요구되나, ㉠ 단계는 가설 설정 단계로 가치 중립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므로 바로 옳지 않은 선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2번 선지에서 밑줄은 ㉛과 ㉧, ㉜에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이 표본 집단(연구에 참여하는 집단), 모집단(연구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집단)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무래도 해당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봐야 할 것 같다.

3번 선지에서 밑줄은 ㉛과 ㉧, ㉜에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이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또한 해당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봐야 안전하게 판단이 가능하다.

4번 선지에서 밑줄은 ㉧과 ㉜에 주어져 있다: 이는 아예 연구 전반을 지지하는 결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당연히 지문 전반을 읽어보며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5번 선지에서 밑줄은 ⑤과 ⑥에 주어져 있다: 해당 연구가 양적 연구인지 질적 연구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서는, 해당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 무엇인지가 나타난 부분을 읽으면 판단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지문을 읽어보자: 본 문항의 경우에는 밑줄이 지나치게 많이 주어져 있어, 아예 끝까지 읽어 본 뒤에 선지 판단을 하는 게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베스트이다.

지문을 모두 다 읽은 뒤, 2번 선지에서 ④에서 ⑤은 표본 집단에 해당하나, ⑥은 표본 집단 중에서도 일부이므로 모집단과 아예 동떨어져 있기에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3번 선지에서 ④에서 독립 변수는 ④이 아닌 '온라인 게임 또는 대면 모임 참여의 여부'이고, 종속 변수는 ⑤이 아닌 '서열 형성 시 중심이 되는 요소'이기에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4번 선지에서 ④의 결과 중 대면 모임 이후 발견한 연구 결과는 '대면 모임 이후 온라인 게임 내 이용자들 간 서열은 변화한다.'이고, ⑤ 또한 서열이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해당 연구 결과를 지지하기에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5번 선지에서 ④은 질문지법을 활용하였으므로 양적 연구이나, ⑤은 참여 관찰법을 활용하였으므로 질적 연구에 해당하기에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문항의 정답은 ④번이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

5. 밑줄 친 ⑦~⑩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A국 65세 이상 노인의 ⑦ 사회 관계망이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 소비에 대한 ⑧ 가족 관계망, 지인 관계망, 단체 관계망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갑은 전국에서 ⑨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을 추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 소비는 지난 1년간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로, 가족 관계망은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로, 지인 관계망은 가족과 친척 이외에 평소 교류하는 사람의 수로. 단체 관계망은 참여하는 단체의 수로 파악하였다. … (중략) … ⑩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문화 소비와 사회 관계망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문화 소비와 단체 관계망 사이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문화 소비와 가족 관계망, 문화 소비와 지인 관계망 사이에는 각각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기>

- ㄱ. ⑦은 ⑦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 ㄴ. ⑧은 갑이 선정한 표본이다.
- ㄷ. ⑨로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가 많을수록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는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항

ㄱ 선지에서 밑줄은 ⑦과 ⑧에 주어져 있다: 그리고 후자가 전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다른 부분을 참고할 필요도 없이 그 문장만 읽고도 판단이 가능하다.

조작적 정의는 '측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나, ⑧은 여전히 측정이 불가능한 개념이고, 무엇보다 뒤에서 '문화 소비는 지난 1년간~단체의 수로 파악하였다.'의 부분에서 조작적 정의가 나타나므로 해당 선지

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바로 알 수 있다.

ㄴ 선지에서 밑줄은 ④에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갑이 선정한 표본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부분을 참고할 필요도 없이 그 문장만 읽고도 판단이 가능하다.

갑은 전국에서 ‘④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을 추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으므로 이는 갑이 선정한 표본이 맞고,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ㄷ 선지에서 밑줄은 ④에 주어져 있고, 분석 결과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딱 봐도 모든 내용을 읽어봐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읽어 본 후,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가족 관계망)의 수와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문화 소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ㄷ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이고, 위 문항의 정답은 ①번이다.

2. 각 선지에 밑줄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직장인의 업무 과부하와 직무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 기업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① 업무량, ② 업무 이해도, 직무 스트레스를 각각 5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한 후, 이 자료를 분석하여 업무 과부하가 직무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을은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정서적 지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을은 갑의 연구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가 업무량과 업무 이해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도한 업무량에서 비롯된 업무 과부하를 ③ 양적 과부하로, 낮은 업무 이해도에서 비롯된 업무 과부하를 ④ 질적 과부하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 기업 고충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 기업 직원 중 양적 과부하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직원 40명을 무작위로 뽑아 A 집단에 배치하고, 질적 과부하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직원 40명을 무작위로 뽑아 B 집단에 배치하였다. 이어 A 집단을 무작위로 20명씩 A₁, A₂로 나누고, 같은 방식으로 B 집단을 B₁, B₂로 나눈 뒤, A₁과 B₁에만 직속 상사가 일정 기간 동안 격려와 신뢰를 표현하도록 했다. 이러한 연구 절차에 따라 수집된 사전·사후 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사의 정서적 지원은 B 집단이 겪는 유형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A 집단이 겪는 유형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갑의 연구에서 표본은 ○○ 기업 직원 전체이고, 을의 연구에서 표집단은 △△ 기업 직원 전체이다.
- ② 을의 연구에서 ④은 ①의 조작적 정의에, ③은 ②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 ③ 을의 연구에서 직속 상사가 일정 기간 동안 격려와 신뢰를 표현한 것은 실험 처치에 해당한다.
- ④ 을의 사후 검사 결과에 따르면, B₁의 직무 스트레스 수치는 A₁의 직무 스트레스 수치보다 낮을 것이다.
- ⑤ 을의 연구 결과는 업무 과부하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갑의 연구 결과를 반박한다.

▲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항

각 선지에 밑줄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선지가 연구 과정 중 어떤 단계를 언급하는지 본다.

2. 각 과정에 관해 어디를 중점적으로 읽어 봐야 할지를 파악한다.

3. 해당 부분을 읽어 보며 연관된 선지를 판단한다.

위 문항을 통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연습해 보자.

위 문항에서 밑줄은 2번 선지에만 주어져 있다: 그리고 해당 선지는 조작적 정의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그 부분만 읽어 보는 것이 아니라, 지문 전체를 읽어 봐야겠다는 예감이 강하게 든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선지는 밑줄조차 주어져 있지 않다: 해당 선지들을 읽어 보며 각 선지가 연구 과정 중 어떤 단계를 언급하고 있는지 보자.

1번 선지: 모집단과 표본 선정

3번 선지: 실험법에서의 실험 처치

4번 선지: 결과 분석

5번 선지: 결과 분석

1번 선지는 그나마 만만하나, 3~5번 선지는 모두 그냥 주는 것 없이 만만치 않게 출제되었다는 생각이 바로 든다아니 어떻게 이게 오답률이 47.7%밖에 안 되자.

우선 갑의 연구까지 읽어보면, 표본이 ○○ 기업 직원 전체임은 바로 알 수 있다: 다만 나머지는 모두 을의 연구에 관한 선지이므로, 그냥 끝까지 읽어봐야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까지 읽어본 뒤, 1번 선지에 대해서는 을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 기업 직원 전체가 아닌 직장인 전체이기에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번 선지에서, ‘양적 과부하’는 ‘업무량’ 자체가 아닌 ‘업무량에서 비롯된 과부하’에 대한 조작적 정의임을, ‘질적 과부하’는 ‘업무 이해도에서 비롯된 과부하’에 대한 조작적 정의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3번 선지에서,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상사의 정서적 지원(독립 변수, 실험 처치)이 스트레스(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직속 상사가 일정 기간 동안 격려와 신뢰를 표현한 것은 상사의 정서적 지원에 해당하므로 이는 실험 처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4번 선지에서, A1 집단과 B1 집단의 스트레스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는 지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B1 집단은 사후 검사에서 스트레스가 낮아졌고 A1 집단은 낮아지지 않았으나, 원래 A1 집단이 B1 집단보다 스트레스가 낮았고, B1 집단이 사후 검사 결과 스트레스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1 집단보다 높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5번 선지에서, 을은 애초에 직무 스트레스가 업무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마지막 까지 반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을의 연구 결과는 업무 과부하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갑의 연구 결과를 반박하지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문항의 정답은 ③번이다.

이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사례를 살펴보자.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 연구에서 '정보 제공이 응답자의 ⑦응답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질문 방식을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제시 없이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것(유형 A), 정부 정책에 대한 중립적인 정보를 제시한 후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것(유형 B), ⑤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제시한 후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것(유형 C)으로 구분한 후, 다음과 같이 두 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 1단계: 동일한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수행된 여론 조사 결과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여론 조사에서 ④정보 제공 여부가 응답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2단계: 1단계에서 확인한 결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성인 2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유형 A를 배부하여 ④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측정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제안된 정책에 반대하였다. 반대한 사람을 40명씩 무작위로 세 집단으로 나눈 뒤, 첫째 집단에는 유형 A에, 둘째 집단에는 유형 B에, 셋째 집단에는 유형 C에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세 집단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첫째 집단과 둘째 집단 간, 첫째 집단과 셋째 집단 간에는 제안된 정책에 반대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지만, 둘째 집단과 셋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① 2단계에서 갑은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② 유형 B에 응답한 사람들은 통제 집단, 유형 C에 응답한 사람들은 실험 집단이다.
- ③ ⑦은 ④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 ④ ⑤은 질문지 작성 시 특정 응답을 유도한 것이므로 갑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 ⑤ 2단계에서 도출한 분석 결과는 ④을 지지한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위 문항에서 밑줄은 3~5번 선지에 주어져 있다: 3번 선지는 멀리 떨어진 두 밑줄에 대해, 5번 선지는 아예 분석 결과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지문 전체를 읽어봐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든다. 애초에 평가원이 마쳤다고 발췌독으로 해결 가능한 선자를 정답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선지는 밑줄조차 주어져 있지 않다: 해당 선지들을 읽어 보면 각 선지가 연구 과정 중 어떤 단계를 언급하고 있는지 보자.

1번 선지: 사전 검사의 여부

2번 선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선정

우선 그 부분만 읽어도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 4번 선지를 먼저 보자: 애초에 자료 분석 단계에 대한 설명이므로 질문지 작성과는 아예 관계가 없어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선지임을 알 수 있다. 애초에 기대도 안 했다.

이제 지문을 모두 읽은 후 각 선지를 살펴보자.

1번 선지에서, 2단계에서 갑은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측정하였고 이는 사전 검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가 된다.

2번 선지에 관해, 갑의 연구에서 독립 변수는 '정보 제공'이고, 유형 B와 C에 응답한 사람들 모두에게 정보가 제공되었으므로 두 집단 모두 실험 집단에 해당하기에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판단할 수 있다.

3번 선지에 관해, ⑦이 ④에 관한 조작적 정의가 아니라 ④이 ⑦에 관한 조작적 정의라는 사실은 지문을 읽으면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5번 선지, 2단계에서 도출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40명 중 유형 A에 응답한 사람들(A)은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B, C에 응답한 사람들(B, C)은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들이고, A와 B, A와 C 간에는 제안된 정책에 반대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으나 B와 C 간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B와 C 간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 제공 외 다른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A와 B, A와 C 간에 차이가 났다는 점에서 정보 제공 여부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결과는 ⑤을 지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고, 위 문항의 정답은 ⑤번이다.

한 가지 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사례를 살펴보자.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 지역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학업 성취도와 ① 문해력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자료에서 문해력을 기준으로, 상위 100명(A 집단)과 하위 100명(B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업 성취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⑤ B 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A 집단의 학업 성취도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을은 ④ ○○ 독서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갑과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갑의 연구에서 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판명된 B 집단을 무작위로 50명씩 C 집단과 D 집단으로 나눈 후 C 집단에게만 4주간 ○○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독서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갑이 활용한 측정 도구로 ② 문해력 수준을 측정한 결과, C 집단의 문해력 수준은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나 D 집단의 문해력 수준은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이후 을은 D 집단에게만 ○○ 독서 프로그램을 4주간 적용하였다. 그 결과 D 집단의 문해력 수준이 높아져 최종적으로 ④ C 집단과 D 집단 간에는 문해력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①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 지역 고등학생이다.
- ② ④ 을의 연구에서 사전 검사로 활용되었다.
- ③ ⑤ 은 문해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부(-)의 관계를 보여 준다.
- ④ ④ 을의 연구에서 실험 처치에 해당한다.
- ⑤ ④ 을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위 문항에서 막줄은 2~5번 선지에 주어져 있다: 2번 선지는 사전 검사 여부에 대해, 3번 선지는 두 변수 간 관계에 대해, 4번 선지는 실험 처치 여부에 대해, 5번 선지는 아예 분석 결과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그나마 나아 보이는 4번 선지를 제외하면 발췌독으로 절대 안 뚫릴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굳이 굳이 4번 선지를 발췌독으로 판단하자면, 을의 연구에서 독립 변수는 ‘○○ 독서 프로그램’이고 ‘문해력 수준의 측정’은 아예 생뚱맞은 이야기이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라는 사실을 판단하는 식으로 논리 과정의 전개가 가능하다.

또한 1번 선지는 모집단의 선정에 관해 묻고 있다: 이는 관련된 부분만 확인하면 바로 해결이 가능할 내용이나, 어차피 지문의 가장 앞쪽에 있는 거, 그냥 끝까지 읽고 판단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으므로 1번 선지는 바로 아웃, 이제 지문을 마지막까지 한 번 읽어보자.

2번 선지에 관해, 을은 일단 독서 프로그램이 종료된 시점에 문해력 수준을 다시 측정(사후 검사)하였고, ‘갑의 연구에서 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판명된’에서 ⑦을 문해력 수준에 대한 판단 지표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④ 을의 연구에서 사전 검사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인 것을 알 수 있다.

3번 선지에서는, A 집단은 문해력이 높은 집단, B 집단은 낮은 집단이고 B 집단이 A 집단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므로 ⑤은 문해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부(-)가 아닌 정(+)의 관계를 보여 준다는 사실을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애초에 문해력이 낮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을 리가~~.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이다.

마지막으로 5번 선지에서, ⑤은 '○○ 독서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C 집단과 D 집단 중 C 집단에만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하니까 C 집단의 문해력은 바로 올라가고, D 집단에도 나중에 적용하니 D 집단도 바로 올라가버린 시점에서 ○○ 독서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도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C 집단과 D 집단 모두에 ○○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했고, 그렇기에 두 집단 모두 문해력이 올라가 두 집단 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

이에 따라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위 문항의 정답은 ②번이다.

마지막으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사례를 살펴보자.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연구자 갑은 요즘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후 갑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게임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가) []를 가설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갑은 A 기관이 공개한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 자료에서 ⑤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과 게임 의존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해 청소년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가 청소년 게임 의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갑은 (나) []라고 제언하였다.

<보기>

ㄱ. ⑤은 갑의 연구에서 1차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도구이다.
 ㄴ. (가)에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게임 의존도가 높을 것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ㄷ. (나)에는 '청소년의 게임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가 들어갈 수 없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위 문항에서 밑줄은 ㄱ 선지에 주어져 있다: 그리고 해당 선지는 1차 자료 / 2차 자료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큰 어려움 없이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실제로 ⑤은 갑이 아닌 A 기관이 공개한 설문 조사 자료이므로 1차 자료가 아닌 2차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도구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선지는 가설의 설정, 또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묻고 있다: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독해를 해 나가야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ㄴ 선지에서는, 갑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게임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갑의 연구에서 독립 변수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종속 변수는 '청소년의 게임 의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도록 청소년의 게임 의존도가 높을 것이다.’는 해당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그대로 가지고 온 내용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가 된다.

□ 선지에서는, ‘청소년의 게임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주어져 있는데, 애초에 조사 결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가 청소년 게임 의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게임 의존 정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청소년의 게임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연히 함축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고, □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가 되어 위 문항의 정답은 ①번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고 과정을 따라와 보면 알겠지만, 위 유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해력’ 하나만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유형이다.

물론 발췌독이 유효한 선지가 출제되긴 하지만, 이 선지로 인해 정답이 결정적으로 도출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결국 수험생들은 제시된 연구 상황을 전부 다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습은 당연히 다양한 연구 상황을 접해보는 것이 될 것이고, 위에서 제시한 방식을 바탕으로 해 꾸준히 연습하여 연구 사례 분석 문항에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리를 응원한다.

● 개념 Check

1.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

(1) 가치 중립

- 의미: 연구자가 특정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존재하는 사실에만 의존하여 연구하려는 자세
- 연구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움 → 하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유지하게끔 '노력'은 해야 함.

(2)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의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주제 선정 • 가설 설정 • 연구 설계 	어쩔 수 없이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치 중립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 등을 통해 그 적절성이 평가되는 부분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수집 및 분석 • 가설 검증 • 결론 도출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면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문화 현상이 가진 의미가 왜곡되므로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결과의 활용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은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 결과에 따른 대책 등을 마련할 때 사회적 가치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식의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

- ▶ 이 역시 달달 외울 필요는 전혀 없으며, 문제에서는 텍스트로 사례를 제시한 뒤에 그에 대한 상황 판단을 요구할 것이므로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정말로 외워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필자가 명시적으로 '이것만큼은 외워야 한다.'라고 코멘트를 남길 것이므로, 그 부분이 아니면 굳이 외우지 않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자.
- ▶ 연구 주제를 무엇으로 할지, 가설을 어떤 것으로 정할지,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도가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애초에 특정 의도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일 텐데, 그 연구를 설계하는 데 있어 의도를 반영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 하지만 연구를 설계한 뒤 실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데, 매뉴얼라이징(가치가 개입되는 부분)을 전부 수행한 뒤 그에 맞춰서 연구를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지점에서 의도가 개입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개입되면 수행한 연구의 내용이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연구 윤리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서 연구 윤리의 필요성

-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해 보다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된다.
-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유익할지라도 연구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부적절한 연구 과정은 연구 결과로써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이다.

(2)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원칙

-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이나 연구 과정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일 연구 목적이나 연구 과정을 연구 대상자에게 알려 주는 것이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연구가 끝난 후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알리고 연구 결과의 공표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연구 대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예상되는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생활 관련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연구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3)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 원칙

- 연구자는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의도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면 안 된다.
- 수집한 자료 및 분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해석, 즉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

(4) 연구 결과의 공표와 관련된 윤리 원칙

- 연구 결과의 공표가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거나 공표를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왜곡, 축소, 과장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연구자의 연구물을 활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연구 성과가 사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결과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실제 문항은 위 윤리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은 연구 사례를 제시한 뒤, 해당 연구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형태로 출제된다.

연구자 갑은 설문 조사 참여에 동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조사에 앞서 연구 대상자가 응답 중단을 요청할 경우 즉각 조사가 중단된다고 설명하였다. 갑은 실제로 조사 진행 중 응답 중단을 요청하는 노인들에 대해 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답변 자료를 폐기하였다. 노인들이 연구 목적을 알게 되면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갑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 갑은 자신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관심을 가진 □□ 기업이 연구 자료를 요청하자, 연구비 지원을 받는 대가로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 모든 연구 자료를 제공하였다.

▲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예시

- ▶ 위 사례에서는 ‘연구 목적의 고지 의무 위반’, ‘연구 자료의 목적 외 이용’이라는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만 할 수 있다면 문항 해결에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확인 문제 Check

※ 1~7. 제시된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 가치 중립이 요구되면 '중', 개입이 허용되면 '개'를 고르시오.

1. 연구 주제 설정 (중 / 개)
2. 가설 설정 (중 / 개)
3. 연구 설계 (중 / 개)
4. 자료 수집 빛 분석 (중 / 개)
5. 가설 검증 (중 / 개)
6. 결론 도출 (중 / 개)
7. 연구 결과의 활용 (중 / 개)

※ 8~10. 다음은 갑의 연구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연구자 갑은 '자동차의 외관에 대한 판단이 운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해외 연구자가 새롭게 개발한 연구 설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로에서 각각 경차와 중·대형차로 주변 차량보다 느리게 달리면서, 뒤차가 추월을 시도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하고 뒤차의 추월 상황과 차량 번호를 녹화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예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록과 동영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구 설계를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기술하였다. 이후 연구 결과가 사회의 관심을 받자 언론사의 요청으로 원본 영상을 제공하였다.

8.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였다. (O / X)
9. 수집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O / X)
10.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의적으로 자료를 선별하였다. (O / X)

[정답] 1. 개 2. 개 3. 개 4. 중 5. 중
6. 중 7. 개 8. X 9. O 10. X



사회·문화 기초 & 실전 개념서

Sapiens

2.

개인과 사회 구조

#5.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6.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특강2. 사회 집단 개수 세기

#7.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

● 개념 Check

1. 사회화

(1) 의미

인간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 및 규범 등을 습득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 사회·문화 과목에 있어서 ‘사회화’는 ‘학습’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2) 특징

-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며, 시대와 사회에 따라 사회화의 내용과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주로 모방과 동일시되며, 보상과 제재, 언어적 상호 작용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3) 기능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사회생활에 대해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의 자아 정체성 및 사회적 소속감 형성에 기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공유 및 세대 간 전승을 가능하게 한다. • 사회 구성원 간에 동질성(동질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의 유지와 통합, 존속에 기여한다.

(4) 사회화 기관

- 의미: 사회화 과정에서 지식과 기능, 가치 및 규범 등을 전수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나 집단 등
- ▶ 굳이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을지라도, 해당 단체나 집단 등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배워가기만 한다면 그 단체나 집단은 사회화 기관이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모든 단체나 집단은 전부 사회화 기관인데, 거의 무조건 누군가는 해당 단체나 집단에서 무엇인가를 배워갈 것이기 때문.

• 유형

기준	사회화 기관의 유형	역할	예시
설립 목적	공식적 사회화 기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화를 담당한다.	고등학교, 직업 훈련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사회화의 역할도 수행한다.	가족, 시민 단체, 또래 집단, 대중 매체

사회화 내용	1차적 사회화 기관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데, 기본적인 가치 및 규범, 언어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인성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 유아기나 아동기의 또래 집단
	2차적 사회화 기관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한다.	대학교, 회사, 대중 매체

▶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그 기준이 매우 명확하나,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있다. 그렇기에 1차적 사회화 기관은 ‘누가 봐도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것만 출제되는데, 이는 예시로 제시한 가족과 또래 집단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만약 다른 기관이 1차적 사회화 기관임을 의도로 가지고 문항이 출제된다면 해당 문항에서는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가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언급을 따로 넣어 줄 것이다.

(5) 주요 사회화 기관의 예시

구분	특징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인 기능 및 규범, 언어 등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부분에서의 사회화를 담당함 가장 대표적인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또래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규범의식 등을 습득하게 함 유년기의 또래 집단은 1차적 사회화 기관, 청소년기 이후의 또래 집단은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형태의 사회화를 수행함 가장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성인기의 사회화를 담당함 개인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형태의 사회화가 이루어짐
대중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 가지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

▶ ‘대중 매체’가 사회화 기관임을 캐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이 지점을 저격한 문항이 출제되어 자그마치 86.7%의 오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언론’이나 ‘신문’, ‘SNS’ 등이 문항이 등장하면 반드시 ‘대중 매체’인 것으로 파악하도록 하자.

(6) 사회화의 유형

• **예기 사회화:** 미래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속하게 될 집단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능, 가치 및 규범을 미리 학습하는 과정

Ex. 육군사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군 관련 지식에 대한 사회화, 과거 사법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이루어지던 사회화

• **재사회화:**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소속 집단 등의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 가치 및 규범을 학습하는 과정

Ex. 이직 후 해당 직장에서 새로이 이루어지는 사회화, 반수 성공 후 입학한 대학의 학사 과정에 대한 사회화

- ▶ 예기 사회화는 특정 개인이 현재는 속해 있지 않으나, 미래에 속하기를 바라거나 또는 속하게 될 집단,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미래에 가지기를 바라는, 또는 가지게 될 직업과 지위를 전제로 한다. 미래의 집단이나 직업, 지위에서 요구되는 행동 방식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 ▶ 재사회화는 이미 습득한 사회화의 내용이 개인이 새로이 속한 집단이나 새롭게 가진 직업과 지위, 변화한 상황에 부적합하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미 습득한 사회화의 내용을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함으로써 개인이 새로운 집단이나 직업, 지위, 변화한 상황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2. 지위와 역할

(1) 지위

- **의미:** 개인이 소속 집단이나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 **종류**

귀속 지위: 개인의 노력이나 업적과 상관없이 선천적,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지위

Ex. 아들, 청소년, 노인, 세습 지위 등

성취 지위: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 업적 등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

Ex. 아버지, 사장, 교사, 정치인 등

- ▶ 귀속 지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획득할 수 있는 지위’를 모두 포함한다. 그렇기에 청소년과 노인이 귀속 지위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것.
- ▶ 성취 지위는 ‘노력을 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모’는 배우자 찾기 및 결혼이라는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지위이기에 성취 지위이며, 남성/여성의 경우에도 성 전환 수술을 통해 해당 성별을 가지게 된 것이라면 성취 지위로 볼 수 있다.

(2) 역할과 역할 행동

- **역할:** 개인이 가진 ‘지위에 대하여’ 소속 집단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 방식
- **역할 행동(역할 수행)**

1. 개인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식

Ex. ‘교사’라는 지위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침’이라는 역할이 기대되고, 그에 따라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동’이라는 역할 행동을 함

2. 동일한 지위나 역할을 가진 개인들 간에도 역할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Ex. 같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남

3. 개인의 역할 행동에 따라 보상과 제재가 주어짐

- ▶ ‘역할 행동’에 따라 보상과 제재가 주어지는 것이지, ‘역할’에 따라 보상과 제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아두자. ‘계약금’의 느낌으로 어떤 역할을 받게 됨과 동시에 특정 보상 또는 제재가 주어지는 사례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사례가 실제로 출제되어 ‘역할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와 같은 선지가 정답으로 등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3) 역할 갈등

- **역할 갈등:** 개인에게 요구되는 서로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할들 간 충돌이 발생하여 발생하는 갈등
- ▶ 한 가지 지위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서 각각의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 ▶ 전자의 사례로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졸업식을 가는 역할 Vs 딸에게 줄 옷을 사러 가는 역할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을 들 수 있고, 후자로는 남편으로서 임신한 아내를 돌보는 역할 Vs 사장으로서 파견 근무를 나가는 역할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 단순히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역할 갈등이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한 고등학생이 부모의 요구대로 공무원이 되는 것 Vs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역할 갈등이라 할 수 없으며, 역할 갈등은 필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이 충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한다.

● 확인 문제 Check

※ 1~5. 제시된 사회화 기관이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면 ‘공’,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면 ‘비’를 고르시오.

1. 가족 (공 / 비)
2. 또래 집단 (공 / 비)
3. 학교 (공 / 비)
4. 직장 (공 / 비)
5. 대중 매체 (공 / 비)

※ 6~10. 제시된 사회화 기관이 1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면 ‘1’,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면 ‘2’를 고르시오.

6. 가족 (1 / 2)
7. 대학교 (1 / 2)
8. 회사 (1 / 2)
9. 유아기의 또래 집단 (1 / 2)
10. 대중 매체 (1 / 2)
11. 사회화는 인생의 전 시기에 걸쳐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O / X)
12. 미래에 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속하게 될 집단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능, 가치 및 규범을 미리 학습하는 과정은?
13.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소속 집단 등의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 가치 및 규범을 학습하는 과정은?
14. 개인의 노력이나 업적과 상관없이 선천적,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지위는?
15.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 업적 등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는?

※ 16~20. 제시된 지위가 귀속 지위에 해당하면 ‘귀’, 성취 지위에 해당하면 ‘성’을 고르시오.

16. 노인 (귀 / 성)
17. 사장 (귀 / 성)
18. 아버지 (귀 / 성)

19. 청소년 (귀 / 성)

20. 정치인 (귀 / 성)

21. 개인이 가진 지위에 대하여 소속 집단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 방식은?

22. 개인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행동 방식을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23. 개인에게 요구되는 서로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할들 간 충돌이 발생하는 현상은?

[정답] 1. 비 2. 비 3. 공 4. 비 5. 비 6. 1 7. 2 8. 2 9. 1 10. 2 11. O
12. 예기 사회화 13. 재사회화 14. 귀속 지위 15. 성취 지위 16. 귀
17. 성 18. 성 19. 귀 20. 성 21. 역할 22. 역할 행동 23. 역할 갈등

● 개념 Check

1. 사회 집단

(1) 의미

2명 이상의 구성원들이 모여 소속감이나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비교적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 집합체

(2) 종류

- 구성원 간의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

구분	1차 집단(원초 집단)	2차 집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적인 대면 접촉, 전인격적인 접촉, 인간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접촉이 중심이 된다. 도덕이나 윤리, 관습 등 비공식적인 규범을 통한 통제 방식이 일반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적인 접촉, 과업 지향적인 접촉,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이고 단편적인 접촉이 중심이 된다. 법률이나 규칙 등 공식적인 규범을 통한 통제 방식이 일반적이다.
사례	가족, 또래 집단 등	회사, 대학교, 시민 단체 등

- ‘접촉 방식’이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리는 것이 목적인가 Vs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판단하자.
- 물론 그 구분 자체가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떤 집단이 ‘1차 집단인가?’ 혹은 ‘2차 집단인가?’라고 물어보는 형태보다는 ‘1차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2차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형태가 다수 출제된다.
- 특히나 이는 ‘1차 집단’에 있어 많이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럼에도 ‘1차 집단인가?’의 형식으로 출제되는 사례는 ‘가족’, ‘또래 집단’ 외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 ‘2차 집단인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정당’ 등등 누가 봐도 2차 집단인 경우에만 위와 같은 형식을 따라 출제되는 편.

- 결합 의지에 따른 분류

구분	공동 사회	이익 사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들의 본질 의지(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기초한 의지)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 결합 자체가 목적으로서 구성원 간 친밀하고 전인격적인 관계가 중심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들의 선택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 • 이해타산적, 수단적인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사회 집단뿐만 아니라 친목 도모와 같은 전인격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 집단도 포함된다.
사례	가족, 친족 등	회사, 동아리, 시민 단체 등

- ▶ ‘결합 의지’라는 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 위에 따른 분류 자체가 매우 개념상 애매모호한 편인데, 그렇기에 실제 출제는 ‘누가 봐도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만을 공동 사회, 그게 아니면 모두 이익 사회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 ▶ 실제로 출제되는 공동 사회의 예시는 ‘가족’과 ‘친족’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며, 따라서 제시되는 사회 집단 중 ‘가족’과 ‘친족’은 공동 사회, 그게 아니면 전부 이익 사회라고 구분을 해 주면 된다. 다르게 말하면 ‘공동 사회’는 ‘가족’과 ‘친족’ 외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 소속감에 따른 분류

구분	내집단(우리 집단)	외집단(그들 집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한 소속감, 일체감, 애착심을 갖는 사회 집단이다. • 내집단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이다: 1. 해당 집단에 속해 있을 것 2. 해당 집단에 소속감과 일체감, 애착심을 가질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속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질감, 경쟁 의식, 적대감을 갖는 사회 집단이다. • 외집단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이다: 1. 해당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을 것 2. 해당 집단에 이질감, 경쟁 의식, 적대감을 가질 것
사례	우리 가족, 우리 회사 등	그들 가족, 그들 회사 등

- ▶ 뉘앙스상으로 보았을 때 ‘내집단’이 아니면 전부 ‘외집단’인 것으로, 그리고 ‘내집단 = 속해 있는 집단’ 그리고 ‘외집단 = 속해 있지 않은 집단’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속해 있다고 해도 소속감, 일체감이 없으면 내집단이 아니고 속해 있지 않다고 해도 이질감,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외집단이 아닌 것이다.
- ▶ 이에 따르면 각 집단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내집단	내집단도 외집단도 아닌 집단	외집단
이 집단에 속해 있고,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지고 있음	이 집단에 속해 있으나,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지지 않음 또는 이 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나, 적대감과 경쟁심을 가지지 않음	이 집단에 속해 있지 않고, 적대감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음

- ▶ 당장 필자는 정치외교학부에 속해 있으나, 정치외교학부에 대해 그 어떤 소속감도 일체감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치외교학부는 결코 필자에게 있어 내집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준거 집단

- 의미: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 및 신념을 형성할 때 기준으로 삼거나 행동이나 입장 선택의 근거로 삼는 집단

Ex. 서울대학교를 기준으로 삼아 공부를 해 나가는 고3 학생들

- 특징: 준거 집단은 소속 집단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전자의 경우 개인은 높은 만족감과 적극적 참여 태도를 가지게 되고, 후자의 경우 개인은 불만이나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

2. 사회 조직

(1) 의미

'사회 집단 중 '회사나 시민 단체, 정당과 같이 그 목표와 경계가 명확하고, 과업 수행을 위한 구성원들의 지위나 역할 구분,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는 사회 집단'

- ▶ 사회 조직은 사회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 ▶ 또 어떤 사회 집단이 '사회 조직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으므로 위의 의미가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너무 크게 신경쓰지는 말자. 해당 사회 집단이 사회 조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특징

- 지위나 역할 구분이 명확하며, 과업 지향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지배적이다.
- 공식적인 규범에 의해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한다.
- 조직의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구성원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3)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1. 공식 조직

-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이라고 부르는 사회 집단을 가리킴
- 그 목표와 경계가 명확하고, 과업 수행을 위한 구성원들의 지위나 역할 구분,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는 사회 집단

2. 비공식 조직

- 사내 동호회와 같이 하나의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자아실현,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 '공식 조직 내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 집단
- 공식 조직에 비해 지위나 역할 구분, 규범과 절차의 체계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 위에서 보았듯 공식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이라고 부르는 사회 집단을 가리킨다. 그렇기에 사회 집단 = 사회 조직인 것은 아니므로 비공식 조직은 사회 집단이 아니라고 오해하지는 말자. 단지 사회 집단의 특이 케이스일 뿐이다.
- ▶ 비공식 조직은 반드시 ‘단일한 공식 조직’ 내부에 존재해야 한다. 그렇기에 여러 공식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회사 연합 테니스 동아리’와 같은 것도 비공식 조직이라 할 수 없으며, ‘××회사 내 게임 동아리’와 같은 것만 비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 ▶ 또한 공식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사회 집단이라도 그 또한 공식 조직의 특성(철저한 지위나 역할 구분, 규범과 절차의 체계성)을 가진다면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공식 조직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동조합.

(4) 자발적 결사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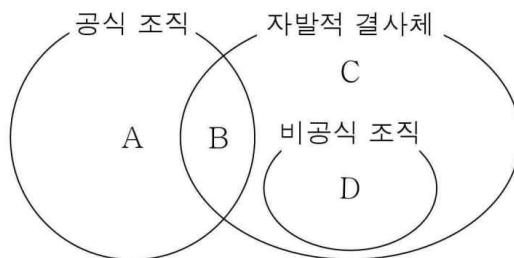
1. 의미: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사회 집단

2. 종류: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

▶ 사실 사회·문화·교과 내에서는 위의 3가지 종류만 알아두어도 무방하다.

3. 특징

-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의사 결정에 있어서 유연성과 민주성이 중시된다.
- 1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집단(친목 집단)과 2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집단(이익 집단, 시민 단체)로 구분된다.
- ▶ 어떤 사회 집단이 자발적 결사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가?’로 두면 된다. 아닌 경우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학교’와 ‘회사’는 가입이 자유롭지 않으므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고, ‘동아리’나 ‘환경 단체’는 일반적으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므로 자발적 결사체로 볼 수 있는 것.
- ▶ 물론 동아리 중에서도 가입이 자유롭지 않은(면접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례가 현실에서는 존재하나, 아직 해당 케이스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다. 만약 이것이 출제된다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라는 언급이 확실하게 문제에서 주어질 것이다.
- ▶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의 개념상 포함 관계는 다음과 같다.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 내에 속한다고 해서, ‘개념상으로도’ 공식 조직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자.



- ▶ A의 예시로는 ‘대학교’와 ‘회사’, B의 예시로는 ‘노동조합’과 ‘시민 단체’, C의 예시로는 ‘테니스 동아리’와 ‘친목회’, D의 예시로는 ‘사내 게임 동아리’와 ‘대학 락 밴드’ 등등을 들 수 있다.

3. 관료제와 탈관료제

(1) 관료제

1. 의미: 수직적인 위계 서열 구조와 수평적인 분업 체계 등에 기초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형태

2. 특징

- 권한과 책임에 따른 위계 서열화: 구성원의 지위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의사 결정의 혼란을 피하고 일사불란한 업무 수행을 지향한다.
-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세분화함으로써 구성원 간에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구성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자 한다.
- 경력에 따른 보상과 신분 보장: 구성원의 업무 경험 및 숙련도를 중시하여 연고서열이 따라 보상하고 신분을 보장한다.
-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 보장: 공개적인 경쟁 방식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선발한다.

3.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업무 담당자의 변경이나 구성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업무 수행의 안정성 및 지속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의 명확성이 높다.
역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목적 전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구성원들이 자신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워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경직된 조직 구조로 인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과 신분 보장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무사안일주의와 무력감이 발생할 수 있다.

- ▶ 애초에 대규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고안된 것이 관료제이고, 그 내용은 주어진 틀 안에 사람을 넣어 계속해서 돌리는 것이므로 사람이 바뀌던 말던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각 틀에 누가 들어갔는지가 명확하므로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높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일을 누가 맡았었는지가 너무 명확하니까.
- ▶ 목적 전치 현상이란,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정작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절차를 무시했을 때 일이 더 빨리 될 수 있음에도 그 절차를 지키느라 효율이 떨어진 경험은 다들 해 봤으리라 생각하고, 관료제야말로 주어진 틀(절차) 안에 사람을 넣어 돌리는 것이니 이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 ▶ 당연히 틀 안에 넣여진 사람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힘들고, 그 틀은 잘 바뀌지 않으므로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만약 내가 먼저 들어온 저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는데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적은 보상을 받는다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을까? 반대로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뛸려도 오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보상을 받는다면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긴장감이 들까? 관료제 하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정확히 발생한다. 그놈의 연공서열 때문에.
- ▶ 아래의 탈관료제와 비교를 한 뒤에는 관료제는 목표의 효율적 달성이 목적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 아니라는 차각을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형태’인 만큼 그것을 목적으로 가진다. 다만 예기치 못한 결함 때문에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뿐.

(2) 탈관료제

1. 의미: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형태

2. 특징

- 수평적 조직 체계: 의사 결정 권한을 분산함에 따라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된다.
- 유연한 조직 구조: 관료제 대비 중간 관리층 감소 및 의사 결정 단계의 축소, 그에 따른 구성원의 재량권 및 자율성 확대를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 능력, 업적 및 성과에 의거한 보상 체계: 연공서열보다는 구성원의 능력, 업적 및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 진다.
- ▶ 탈관료제의 틀은(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관료제의 틀에 비해 훨씬 물령하다. 그렇기에 유연하게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 구성원들이 틀을 쉽게 변형해 높은 자율성 하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고, 또 그래야지만 조직이 성공할 수 있으므로 연공서열이 아닌 구성원의 능력, 업적 및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이다.
- ▶ 하지만 틀이 존재는 하기에, 탈관료제 역시 공식적 규범에 따라 구성원들을 통제한다는(비공식적 규범이 아님) 것은 기억해두자.
- ▶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단원에 있어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로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고난도 유형이 한 가지 있는데, 해당 유형은 바로 자료에 등장한 사회 집단 및 조직의 개수를 세고 그에 대한 각 등장인물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유형이다.
- ▶ 해당 유형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71.1%의 오답률을 기록해 전체 2위의 자리에 오르는 등 현재 출제되는 개념 문항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뒤에서 살펴볼 특강에 대해 해당 유형 문항들에 대한 접근법을 한 번 살펴 보도록 하자.

● 확인 문제 Check

※ 1~5. 제시된 사회 집단이 1차 집단에 해당하면 '1', 2차 집단에 해당하면 '2'를 고르시오.

1. 회사 (1 / 2)
2. 대학교 (1 / 2)
3. 가족 (1 / 2)
4. 또래 집단 (1 / 2)
5. 시민 단체 (1 / 2)

※ 6~10. 제시된 사회 집단이 공동 사회에 해당하면 '공', 이익 사회에 해당하면 '이'를 고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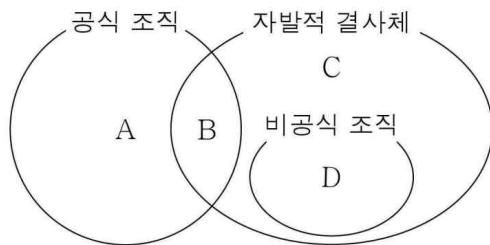
6. 가족 (공 / 이)
7. 회사 (공 / 이)
8. 환경 단체 (공 / 이)
9. 종친회 (공 / 이)
10. 고등학교 (공 / 이)
11. 개인이 속한 모든 집단은 내집단에 해당한다. (O / X)
12. 개인이 속하지 않은 모든 집단은 외집단에 해당한다. (O / X)
13. 목표와 경계가 명확하고, 과업 구행을 위한 구성원들의 지위나 역할 구분,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는 사회 집단은?
14. 비공식 조직은 개념상 공식 조직에 포함된다. (O / X)
15.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한다. (O / X)

※ 16~20. 제시된 사회 집단이 공식 조직에 해당하면 '공',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면 '비'를 고르시오.

16. 회사 (공 / 비)
17. 대학 밴드 동아리 (공 / 비)
18. 노동조합 (공 / 비)
19. 사내 코딩 동아리 (공 / 비)
20. 총동창회 (공 / 비)

21.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사회 집단은?

※ 22~25. 다음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의 개념상 포함 관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2. A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 집단의 예시를 1가지 서술하시오.

23. B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 집단의 예시를 1가지 서술하시오.

24. C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 집단의 예시를 1가지 서술하시오.

25. D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 집단의 예시를 1가지 서술하시오.

※ 26~30. 제시된 특징이 관료제의 특징에 해당하면 ‘관’, 탈관료제의 특징에 해당하면 ‘탈’을 고르시오.

26.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관 / 탈)

27.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의 명확성이 높다. (관 / 탈)

28.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관 / 탈)

29. 연공서열에 의거한 보상 체계를 따르지 않는다. (관 / 탈)

30. 무사안일주의가 나타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관 / 탈)

[정답] 1. 2 2. 2 3. 1 4. 1 5. 2 6. 공 7. 이 8. 이 9. 이 10. 이 11. X
12. X 13. 사회 조직 14. X 15. O 16. 공 17. 비 18. 공 19. 비
20. 공 21. 자발적 결사체 22. 로펌 등 23. 환경 단체 등 24. 게임 동아리 등
25. 사내 보드 동아리 등 26. 관, 탈 27. 관 28. 탈 29. 탈 30. 관

● 개념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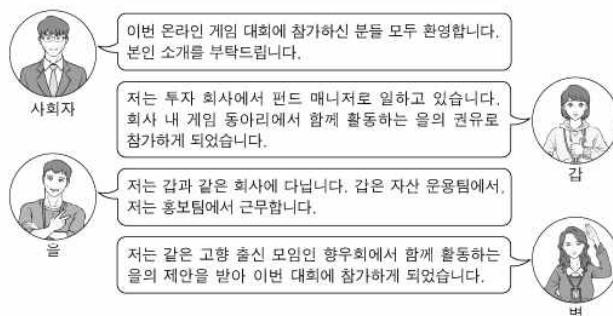
2023년에 있었던 정부의 '킬러 배제' 방침 이후 사회·문화 과목에 있어 도표 문항의 난이도가 낮아지는 경향(성 불평등 문항의 삭제, 가중 평균 활용 문항 출제의 지양 등)이 나타나면서, 대신 개념 문항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 또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 문항의 유형들이 난이도가 높은 형태로 바뀌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유형이다.

종전까지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유형은 텍스트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각 등장인물이 특정 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지 혹은 소속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까지만 요구하는 방향으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유형은 22수능 18번 문항을 원본으로 하여 주어진 자료 속에서 등장인물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회 집단을 '직접' 찾아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18. 그림에서 갑~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공동 사회와 이익 사회 모두에 속해 있다.
- ② 을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모두에 속해 있다.
- ③ 병은 1차 집단과 비공식 조직 모두에 속해 있다.
- ④ 갑은 을과 달리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다.
- ⑤ 을은 갑, 병과 달리 2차 집단에 속해 있다.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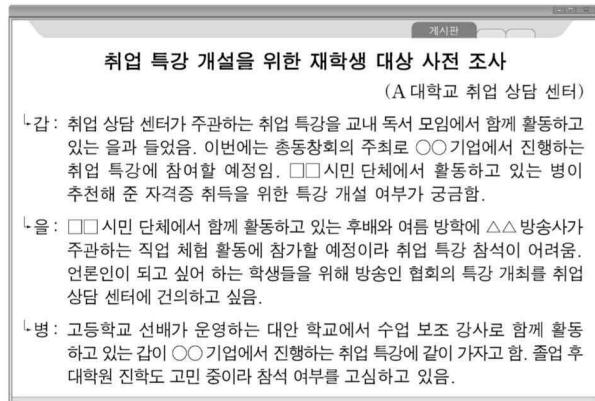
특히 아래에서 살펴볼 2024년도 9월 모의평가 문항은 자료의 분량 자체가 매우 많은 형태로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의 문제 풀이 시간과 3점을 그대로 가져가 당시 엄청난 충격을 끌고 왔었다.

덕분에 해당 '사회 집단 개수 세기' 유형은 현재까지도 각종 사설에서 유사한 상태로 변형되어 출제되고 있고, 그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유형으로 남아 있다.

그렇기에 이번 특강에선, 해당 유형을 올바르게 파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실제 출제된 문항을 풀어보며 필요한 사고 과정에 대해 한 번 살펴보는 것이다.

1. 선지를 보면 구해야 하는 내용 먼저 파악하기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 ②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같다.
- ③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 ④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적다.
- ⑤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은 없지만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 사회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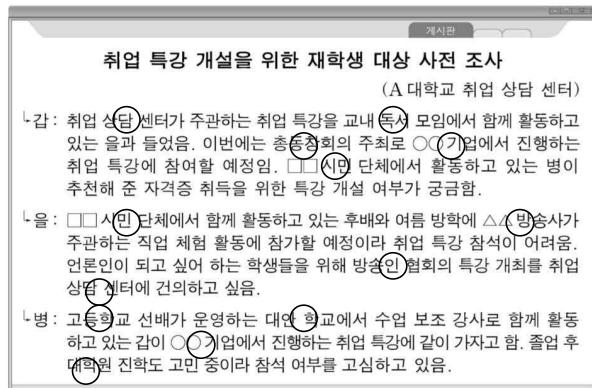
▲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항 – 오답률 69.6%

선지를 살펴보면, 1, 2번 선지에서는 특이하게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사회 집단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해당 선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모든 사회 집단들을 체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구해야 하는 내용 중 쉬운 것을 먼저 체크하기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 ②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같다.
- ③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 ④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적다.
- ⑤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은 없지만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 사회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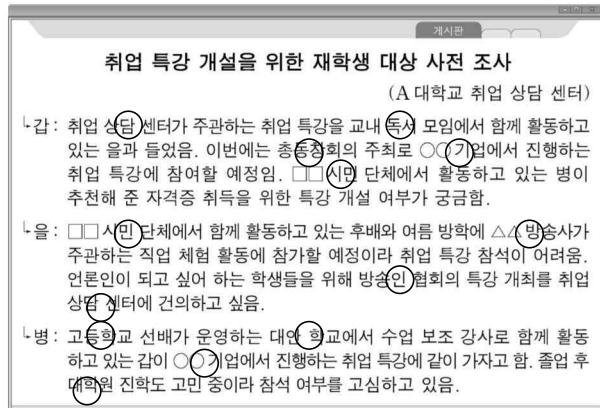
그렇기에 독자들은, 1, 2번 선지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위와 같이 각 등장인물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사회 조직들을 먼저 체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선지에서는 병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으나,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병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두도록 하겠다.

그러나 실제 문제 풀이를 할 때에는 굳이 물어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알아두고 가자.

3. 체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 가능한 선지 해결하기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 ②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같다.
- ③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 ④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적다.
- ⑤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은 없지만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 사회는 있다.

1번 선지에 있어서,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4개,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 또한 4개로 같으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번 선지에 있어서,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2개임을 알 수 있다.

이후 남은 것은 각 등장인물이 속한 집단을 체크해 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정공법밖에 해답이 없으니, 아래와 같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면 된다.

4. 나머지 내용 전부 체크해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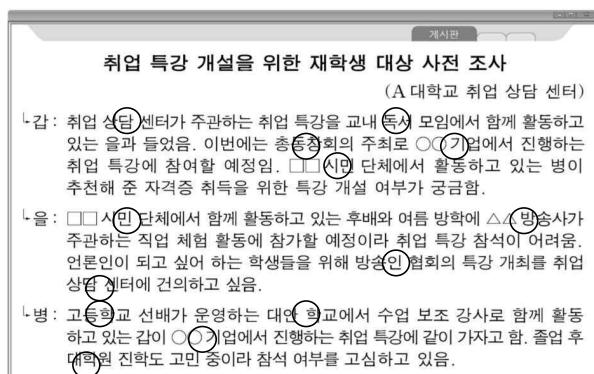
구분	독서 모임	시민 단체	대안 학교	A 대학교
갑	○	×	○	○
을	○	○	×	○
병	×	○	○	○

이렇게 체크가 완료된 뒤에는, 아래와 같이 선지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5. 체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머지 선지 판별하기

구분	독서 모임	시민 단체	대안 학교	A 대학교
갑	○	×	○	○
을	○	○	×	○
병	×	○	○	○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 ②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같다.
- ③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 ④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적다.
- ⑤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은 없지만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 사회는 있다.

2번 선지에 있어,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2개로,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같으므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인 것을 알 수 있다.

3번 선지에 있어,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2개,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2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지 않기에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4번 선지에 있어,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2개,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1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지 않기에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5번 선지에 있어,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은 없지만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 사회 역시 없기에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문항의 정답은 ②번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회 집단 개수 세기' 유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침착함'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잊지 않고 구해야 하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판별해 나가면 되는 것.

이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을 살펴보자.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능 프로그램 〈인연 만들기〉 대본

[장면 1] (내레이션): 이번 회는 연하남, 연상녀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집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들어볼까요?

[장면 2] 갑: □□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 중입니다. 대학교 때는 경영학을 공부했으나,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선택한 현재 직업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바다낚시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과 낚시를 자주 다닙니다.

[장면 3] 을: 여행을 좋아하여 △△ 은행 사내 여행 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여행 관련 회사 창업을 고민하던 중에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병의 조언에 따라 은행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관광 경영에 관한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장면 4] 병: ○○ 방송국의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시나리오를 구상 중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을과 함께 △△ 은행에서 주최한 모의 주식 투자 대회에서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동물 보호 단체 회원으로 봉사 활동을 합니다.

- ① [장면 1]에 적혀 있는 내용에는 성취 지위가, [장면 3]에 적혀 있는 내용에는 비공식 조직이 있다.
- ② [장면 2]에 적혀 있는 이익 사회의 개수는 [장면 4]에 적혀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적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역할 갈등이 해소되어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한다.
- ④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보다 적다.
- ⑤ 대본에는 갑의 재사회화와 을, 병의 예기 사회화 내용이 적혀 있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 오답률 45.5%

위 문항에서도 역시 1, 2번 선지는 '적혀 있는' 사회 집단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

그럼 당연히 아래와 같이, 각 장면에 나타난 모든 사회 조직을 체크해 주면 되는 것이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능 프로그램 〈인연 만들기〉 대본

[장면 1] (내레이션): 이번 회는 연하남, 연상녀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집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들어볼까요?

[장면 2] 갑: ○□□(2)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 중입니다. 대학교 때는 경영학을 공부했으나,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선택한 현재 직업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바다(1)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과 낚시를 자주 다닙니다.

[장면 3] 을: 어행을 좋아하여 △△(2)행 사내 여(1)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여행 관련 회(1)창업을 고민하던 중에 고등학교 총동(2)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병의 조언에 따라 은행을 그만두고, 대학(1)에 진학하여 관광 경영에 관한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장면 4] 병: ○○(1)방송국의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시나리오를 구상 중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을과 함께 △△(2)행에서 주최한 모의 주식 투자 대회에서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동물 보호 단체 회원으로 봉사 활동을 합니다.

- ① [장면 1]에 적혀 있는 내용에는 성취 지위가, [장면 3]에 적혀 있는 내용에는 비공식 조직이 있다.
- ② [장면 2]에 적혀 있는 이익 사회의 개수는 [장면 4]에 적혀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적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역할 갈등이 해소되어 즐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한다.
- ④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보다 적다.
- ⑤ 대본에는 갑의 재사회화와 을, 병의 예기 사회화 내용이 적혀 있다.

1번 선지에 있어, [장면 3]에 적혀 있는 내용에는 비공식 조직이 있으나 [장면 1]에 적혀 있는 내용에는 성취 지위가 없기에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2번 선지에 있어, [장면 2]에 적혀 있는 이익 사회의 개수는 3개, [장면 4]에 적혀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3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지 않아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3번 선지에 있어, 갑의 역할 갈등이 해소된 양상은 나타나지 않아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5번 선지에 있어, 대본에는 을의 예기 사회화 내용은 나타나나 갑의 재사회화와 병의 예기 사회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이제 각 인물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회 집단을 체크해 주자.

구분	□□기업	동호회	총동창회	대학원	○○방송국	보호 단체
갑	○	○	×	×	×	×
을	×	○	○	○	×	×
병	×	×	○	×	○	○

4번 선지에 있어,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2개, 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3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으므로 해당 현지는 옳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문항의 정답은 ④번임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을 살펴보자.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자 ○○ 신문사 탐사 보도 공모전에서 입상한 □□ 동아리를 만나 보겠습니다. 세 분이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나요?

★☆ 대학교 내 영화제작동아리 회원으로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병이 취업 준비를 위해 □□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인권 단체 회원으로 함께 활동 중인 을에게 제가 제안하여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나 공모전 준비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회복지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을 더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갑과 함께 ★☆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갑과 함께 들었던 PD 초청 특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상을 계기로 셋이 □□ 동아리 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보기>

- ㄱ. 갑과 병 모두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
- ㄴ. 을과 병이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은 각각 1개이다.
- ㄷ. 자료 전체에 적혀 있는 사회 집단에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것은 2개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 오답률 71.1%

위 문항에서 ㄷ 선지는 '적혀 있는' 사회 집단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

그럼 당연히 아래와 같이, 각 인터뷰 내용에 나타난 사회 집단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자 ○○ 신문사 탐사 보도 공모전에서 입상한 □□ 동아리를 만나 보겠습니다. 세 분이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나요?

★☆ 대학교 내 영화제작동아리 회원으로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병이 취업 준비를 위해 □□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인권 단체 회원으로 함께 활동 중인 을에게 제가 제안하여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나 공모전 준비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회복지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을 더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갑과 함께 ★☆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갑과 함께 들었던 PD 초청 특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상을 계기로 셋이 □□ 동아리 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보기>

- ㄱ. 갑과 병 모두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
- ㄴ. 을과 병이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은 각각 1개이다.
- ㄷ. 자료 전체에 적혀 있는 사회 집단에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것은 2개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동아리’가 중복되어 나타나 있는 점에 주의하자.

□ 선지에 있어, 자료 전체에 적혀 있는 사회 집단에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것은 ○○신문사와 가족의 2개이기에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각 인물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회 집단을 체크해 주자.

구분	☆☆대학교	영화제작동아리	□□ 동아리	인권 단체	사회복지대학원
갑	○	○	○	○	×
을	×	×	○	○	○
병	○	○	○	×	×

ㄱ 선지에 있어,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영화제작동아리는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기에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인 것을 알 수 있다.

ㄴ. 선지에 있어, 을이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은 3개, 병이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관 역시 3개이기에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문항의 정답은 ③번임을 알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위 유형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꼼꼼히 세고 또 각 사회 집단에 등장 인물이 속해 있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이 유의미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개념 Check

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1) 사회 실재론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면서 구성원들의 외부에서 영향을 미친다. 사회는 단순히 개개인을 합한 것 이상의 존재로, 그에 따라 개개인의 특성의 총합을 넘어선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는 개인보다 우월한 존재이기에 개인의 행동과 의식을 구속한다. 사회 전체의 공익은 개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에 있어서도 당연히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고유하게 존재할 사회의 특성을 탐구해야 한다. 각 구성원의 교체와는 상관 없이 사회는 기준에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의 특성은 때때로 사회 문제를 초래하므로, 사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개인의 의식 개선은 부족하며 사회 구조나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 마디로, 사회는 각 개개인들을 초월해서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그 속성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의 대부분이 결정되므로 사회는 개인을 구속하며, 사회 문제 역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

의의	개개인의 의식이 갖는 특성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한계	인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설명하는 데 불리하다.

(2) 사회 명목론

▶ 들어가기 전에, 사회 명목론은 ‘모든 것이 사회 실재론과 반대’라고 생각하고 가면 학습이 매우 편할 것이다. 굳이 공통점을 찾고자 한다면 두 이론 모두 ‘사회라는 개념이 존재하긴 한다.’라고 본다는 점? 근데 이 내용이 기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개개인의 집합체를 가리키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에 불과하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각 개인이 상호 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관계뿐.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은 능동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를 ‘만들어’ 간다. 사회의 특성 또한 각 개개인의 특성의 총합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사회 현상은 개인의 의식이나 심리 등을 통해 설명이 되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이 바뀌거나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면 사회의 특성 또한 저항할 수 없이 바뀐다. 그렇기에 사회 문제를 초래하는 것 또한 개개인의 잘못된 의식이나 행위이므로,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회 구조나 제도 개선은 의미가 없고, 개인의 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 정말 말 그대로 사회 실재론의 반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정도로 공통점 하나 없이 이항대립적인 개념은

사회·문화 교과 내에 없다고 봐도 될 정도.

의의	사람들의 자율적인 행위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양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한계	개인의 행위에 사회 구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 사회 명목론과 실재론은 앞에서 살펴본 ‘채점형 문항’ 외에는 거의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이 사회 명목론인지 또는 사회 실재론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형태로 출제된다.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사례

▶ 위 사례에서 갑의 관점은 ‘사회도 개인의 집합체일 뿐’에서 사회 명목론임을, 을의 관점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부품과 기계와 같고, 기계는 개별 부품의 속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성을 지님’에서 사회 실재론임을 바로 알 수 있다.

▶ 하지만 최근에는, 위 사례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

계산적 심성은 개인들이 일상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여 합목적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국가 관료제에 기반을 둔 행정과 로마법에 기초한 법률은 서구인들로 하여금 합목적적으로 행동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서구 사회의 행정과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계산적 심성은 근대적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사례

▶ 위 사례는 상대적으로 독해가 힘든 측에 속한다: ‘행정과 법률이 서구인들로 하여금 합목적적으로 행동하도록 하였다.’, 즉 ‘사회 제도가 개인이 특정 행동을하도록 이끌었다.’에서 사회 실재론적 제시문임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결국엔 독해력 싸움.

인간은 왜 제도의 명령에 복종하는가? 이것은 ‘자기기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기기만은 실제로는 자발적인 것을 필연인 것처럼 스스로 가장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역할들의 복합체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자기기만을 하며 제도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기기만을 의식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무한한 불안정성과 함께 선택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사례

▶ 위 사례는 현재까지 출제된 사회 명목론 / 실재론 제시문 중 가장 파악이 어려운 지문이다. 인간은 제도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은 그대로 사회 실재론을 고르고 넘어갔으나, 마지막 부분까지 읽고

나면 ‘계몽’을 통해 제도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언급이 주어져 있기에 해당 지문은 사회 명목론적 제시문임을 알아낼 수 있는 것.

2. 일탈 행동

(1) 의미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사회 규범이나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

- ▶ 한 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릇된 행동’을 의미한다.

(2) 특징

시대나 사회, 상황에 따라 일탈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대적이다.

(3) 일탈 행동의 원온을 설명하는 이론

1. 아노미(무규범 상태) 이론 – 거시적 관점에 기반을 둔 이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노미가 일탈 행동을 초래한다고 본다. 아노미(무규범 상태)는 말 그대로 규범이 없는 상태, 즉 기존 사회 규범이 효력을 잃고 새로운 사회 규범이 정착되지 못한 상태 또는 기존 사회 규범과 새로운 사회 규범이 혼재되어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혼란 상태를 의미한다. 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 또는 어떠한 규범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통해 사회 규범의 통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목표(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목표’)와 제도적 수단(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의 괴리(한 마디로, 목표는 있는데 이를 달성할 수단이 없는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아노미가 일탈 행동을 초래한다고 본다.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한 사회 구성원이 일탈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제도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 ‘사회 규범이 없는 상태’가 일탈 행동을 초래한다고, 다시 말해 일탈 행동의 원인이 ‘사회’에 존재한다고 보는 이론들이니 거시적 관점에 기반을 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 ▶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데 수단이 없어서 일탈 행동을 벌이는 것이 왜 사회 규범의 문제냐고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굳이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외우는 게 빠르다. 굳이 굳이 이유를 찾자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수단을 사회가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 전개를 따라간 것이지 않을까? 속이 뻥. 울컥울컥.

2. 차별적 교제 이론 – 미시적 관점에 기반을 둔 이론

-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을 ‘학습’하고, 이로서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을 내면화함으로써 학습된다고 본다.
- 그에 따라 당연히 기존에 일탈을 저지르던 사람이나 집단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이 일탈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본다.
- 일탈 행동을 줄이려면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근묵자흑(近墨者黑)’.

▶ 이 이론과 관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된 합정이 존재한다: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는 것에 대해 ‘그들로부터 일탈 행동을 학습해야지만’ 차별적 교제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

▶ 실제 기출 사례: 갑은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였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어려워지자 좌절감에 빠진 갑은 학교를 중퇴한 친구들을 모아 일학천금을 노리며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청소년기를 보냈다. – ‘친구들을 모아’라는 지점에서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차별적 교제 이론이 활용 가능한 사례인 것으로 낚였으나, 실제로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활용될 수 없는 것.

▶ 일탈의 원인을 사회가 아닌 일탈을 가르치고 또 학습한 개인에서 찾으므로 미시적 관점에 기반을 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3. 낙인 이론 – 미시적 관점에 기반을 둔 이론

-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위 3개의 이론은 모두 존재한다고 본다.), 상호 작용 과정에서 사람들이 일탈 행동이나 일탈 행위자를 규정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 1차적 일탈(최초의 일탈)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일탈자라는 낙인을 받게 된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어차피 문제아/범죄자라는 식)을 갖게 되어 2차적 일탈(이후의 일탈)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그렇기에 일탈 행동을 줄이려면 어떤 행위를 일탈 행위로, 또 어떤 사람을 일탈자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 그럼 1차적 일탈은 왜 하는 건데요? 라는 의문이 들었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매우 통찰력이 좋은 사람이 다. 실제로 저 지점(1차적 일탈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이 낙인 이론에 적용되는 비판점 중 하나.

▶ 일탈의 원인을 특정 행위나 행위자를 선불리 일탈 또는 일탈자로 규정한 개인들에게서 찾으므로 미시적 관점에 기반을 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 일탈 이론은 채점형, 사례형, 주장형 등 사회·문화 교과목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을 통틀어 가장 다양한 유형으로 가공되어 출제되고 있는 개념 중 하나이다.

7. 다음 자료에 제시된 일탈 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낙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수업용 읽을거리〉

중학생이었던 A와 B는 가벼운 장난을 하다 친구를 다치게 한 일로 문제아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로 인해 A는 스스로도 문제아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 폭력 사건 가해자로 경찰서에 들락거렸다. 한편 고등학교에 입학한 B는 경제적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프로 운동선수가 되어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결심을 한 뒤 운동에 매진하였다. 그런데 기록 향상을 위해 금지된 약물까지 복용하다 적발되어 프로구단 입단 기회가 박탈되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 범죄 조직에 가입한 A는 B에게 범죄 행위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우연을 가장하여 접촉하였다. 결국 돈이 필요했던 B는 A의 제안을 수락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교사: A, B의 사례에 일탈 이론을 적용해 보세요.
 갑: A의 중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에 걸쳐 나타난 일탈 행동에 주목하면 A의 일탈 행동에는 (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을: B의 고등학교 입학 후의 일탈 행동에 주목하면 B의 일탈 행동에는 (나)를 적용해야 합니다.
 병: B가 A와 접촉하여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B의 일탈 행동에는 (다)를 적용해야 합니다.
 교사: A, B의 일탈 행동에 (가), (나)는 적절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B는 (다)를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일탈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일탈 이론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낙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수행 평가〉

※ 문제: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혐사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탈 이론 A, B에 근거하여 의견을 서술하시오.

A	B
<p>어렸을 때에는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혐사 처벌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범죄자로서의 부정적 자아 경체성을 갖게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p> <p>그러므로 반대합니다.</p>	<p>어린 나이에 일탈 행동을 일삼는 또래와 어울리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 혐사 처벌을 받아 교정 시설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범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강화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p> <p>그러므로 반대합니다.</p>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 사례형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3점]

〈일탈 행동 사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고자 했던 갑은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였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어려워지자 좌절감에 빠진 갑은 학교를 중퇴한 친구들을 모아 일확천금을 노리며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청소년기를 보냈다. 성인이 된 갑은 중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출소 후 교도소 직업 훈련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로 취업하려 했으나 범죄 이력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에 갑은 자신이 어차피 범죄자이고, 범죄라는 굴레에 얹매인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겨 범죄 조직에 가담하였다.

불질적 성공에 대한 욕구가 커던 을은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 한 회사에 취업한 을은 승진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했다. 그러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매번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자, 을은 더 이상 이 회사에서는 승진 기회가 없음을 알고 체념하였다. 그러던 중 회사 기밀을 넘기면 거액을 주겠다는 경쟁 회사 측의 제의에 응해 회사 기밀을 흘렸다.

〈교사의 해설〉

제시된 사례에서 청소년 시기 갑의 일탈 행동은 A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출소 후 갑의 일탈 행동은 C가 아니라 B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을의 취업 후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A, B, C 중 [] 이 적합합니다.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 주장형

1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자: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범죄 현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갑: 금속한 사회 변동으로 경제적 성취와 개인주의라는 새로운 가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작동했던 전통적 규범과 새롭게 등장한 가치가 혼재되면서 삶의 기준을 상실한 사람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을: 성공에 필요한 합법적 기회가 있는 사람들마저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들은 비합법적 수단으로 큰돈을 번 사람들과 빈번하게 교류하며 그들의 방식과 태도를 습득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병: 청소년 시기어 전과자가 된 사람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성공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불질적 성공에 필요한 기회가 제한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 사례형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3점]

14. 다음은 일탈 이론 A~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와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임.) [3점]

* 질문에 따라 A, B, C, D를 '예', '아니요'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칸에 적으시오.

질문	예	아니요	채점 결과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B, C	A, D	3점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B, D	A, C	2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B, D	A, C	1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B, C	A, D	3점

* 질문별로 채점하며, 맞게 적은 이론에는 각 1점을, 틀리게 적은 이론에는 각 0점을 부여함. 질문별 만점은 4점임.

교사: A, B, C, D 중 각자에게 배정된 2가지 일탈 이론의 공통된 특징을 제시하고, 각 일탈 이론의 사례를 발표해 보세요.

갑: A와 B는 모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A의 사례로 부유한 생활을 원하는 장기 실업자가 쉽게 돈을 벌고자 사이버 사기를 저지른 것, B의 사례로 돈을 벌리고 깊지 않아 친구들에게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받은 후 이를 내면화하여 사이버 사기를 저지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을: C와 D는 모두 일탈 행동 자체보다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주목합니다. C의 사례로 사이버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법 규정의 미비로 손쉽게 사이버 사기를 저지르게 된 것, D의 사례로 사기 전파자들과 어울려 그들의 태도와 수법을 배워 사이버 사기에 가담하게 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교사: 갑과 을은 모두 각자에게 배정된 2가지 일탈 이론 중에서 하나에만 해당하는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사례 4가지 중에는 D의 사례만 맞습니다.

- ① A와 달리 C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규범의 부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② B와 달리 A는 일탈 행동의 대책으로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강조한다.
- ③ C와 달리 D는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④ D와 달리 B는 일탈 행동의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강조한다.
- ⑤ A, B, C와 달리 D는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 채점형

▶ 따라서 본 개념에서 파생되어 출제되는 문항들의 해결에 있어서는, 단순 개념 이해는 필수에 각 출제 유형들에 대한 대비까지 특히 확실히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이건 사회·문화 개념 대부분에 있어 적용되긴 한다., 특히 채점형은.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 채점형

● 확인 문제 Check

※ 1~5. 다음 특징이 사회 명목론의 특징에 해당하면 '명', 사회 실재론의 특징에 해당하면 '실'을 고르시오.

1. 사회가 개인에 비해 우월한 존재라고 본다. (명 / 실)
2. 사회는 개개인의 집합체를 가리키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본다. (명 / 실)
3. 사회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된 의식과 행위라고 본다. (명 / 실)
4. 인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설명하는 데 불리하다. (명 / 실)
5. 사회의 특성은 개개인의 특성의 총합과 동일하다고 본다. (명 / 실)

※ 6~11. 제시된 특징이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의 특징에 해당하면 '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특징에 해당하면 '머', 차별적 교제 이론의 특징에 해당하면 '차', 낙인 이론의 특징에 해당하면 '낙'을 고르시오.

6. 거시적 관점에 기반을 둔다. (뒤 / 머 / 차 / 낙)
7. 2차적 일탈에 대한 설명보다 1차적 일탈에 대한 원인 규명에 집중한다. (뒤 / 머 / 차 / 낙)
8.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이 발생하는 양상에 집중한다. (뒤 / 머 / 차 / 낙)
9.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이 학습되는 양상에 집중한다. (뒤 / 머 / 차 / 낙)
10.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뒤 / 머 / 차 / 낙)
11. 급속한 사회 변동이 일탈 행동을 초래한다고 본다. (뒤 / 머 / 차 / 낙)

※ 12~16. 주어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일탈 이론을 모두 서술하시오.

12. 한 회사에 취업한 을은 승진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했다. 그러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매번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자, 을은 더 이상 이 회사에서는 승진 기회가 없음을 알고 체념하였다. 그러던 중 회사 기밀을 넘기면 거액을 주겠다는 경쟁 회사 측의 제의에 응해 회사 기밀을 흉쳤다.
13.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공을 강요하지만 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이 저를 사회의 낙오자로 취급하였고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14. 저는 범죄자인 친구와 함께 살면서 범죄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갖게 되었고 결국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소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사회 규범과 전통적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혼란으로 방황하다가 저는 다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15. 저는 한 번의 실수를 하였지만 사람들은 저를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저 또한 제 자신을 범죄자라고 생각하게 되니 진짜 범죄자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후 교도소에서 반성하며 지내보려 했지만 다른 재소자에게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워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16.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고자 했던 갑은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였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어려워지자 좌절감에 빠진 갑은 학교를 중퇴한 친구들을 모아 일확천금을 노리며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청소년기를 보냈다. 성인이 된 갑은 중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출소 후 교도소 직업 훈련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로 취업하려 했으나 범죄 이력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에 갑은 자신이 어차피 범죄자이고, 범죄라는 굴레에 얹매인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겨 범죄 조직에 가담하였다.

[정답] 1. 실 2. 명 3. 명 4. 실 5. 명 6. 뒤, 머 7. 뒤, 머, 차 8. 차, 낙
9. 차 10. 머 11. 뒤 12. 머튼의 아노미 이론
13. 머튼의 아노미 이론, 낙인 이론 14. 차별적 교제 이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15. 낙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16. 머튼의 아노미 이론, 낙인 이론



사회·문화 기초 & 실전 개념서

Sapiens

3.

문화와 일상생활

#8. 문화의 이해

#9. 현대 사회의 문화 양상

#10. 문화 변동의 양상과 대응

● 개념 Check

1. 문화의 의미

(1) 좁은 의미의 문화

- 의미: 고상하거나 세련된, 고급스러운 것과 관련된 의미를 가진 사회적 생활 양식
- 예시: 문화생활, 문화인, 문화 공원, 문화 관광 등

(2) 넓은 의미의 문화

- 의미: 한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 의식주, 가치와 규범, 사고방식 등 인간으로서 영위하는 모든 사회적 생활 양식
- 예시: 하위문화, 세대 문화, 대중문화, 사회·문화 등

▶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문화는 ‘문화XX’, 넓은 의미의 문화는 ‘XX문화’로 지칭되는 것을 의미하나, 여기에는 예외 역시 존재하므로 맹신해서는 안 되고, 좁은 의미의 문화와 넓은 의미의 문화를 가르는 기준으로는 ‘고급스러운 것과 관련이 있는가?’를 선정하는 게 좋다.

Ex.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화적 환경에 대해 거부하고 또래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청소년들은 은어와 속어를 사용한다. –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사례로, 밑줄 친 부분은 ‘문화XX’로 지칭되었으나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2. 문화의 속성

(1) 공유성

의미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다.
특징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있어 유사한 부분을 만들어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며, 이로서 원활한 사회적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사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김치를 김장해 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 마주하게 될 어떠한 사례가 되었건 간에 공유성은 그 특성상 ‘사람들이 해당 문화를 공유한다.’를 전제로 깔고 있으므로 어떠한 사례에서건 미미한 정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공유성을 포함한 문화의 속성들이 부각되었다는 사례를 볼 때에는 어떠한 속성이 ‘가장’ 부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자.

(2) 학습성

의미	문화는 선천적·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닌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로부터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생활 양식이다.
특징	개인의 사회적 행동이 그가 겪게 되는 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본능에 따른 행동 (Ex. 하품, 수면 등)이 문화가 아니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사례	한국으로 이민을 온 외국인이 한국인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운다.

▶ 본능에 따른 행동이 문화가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본능에 따른 행동은 학습을 통해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게 된 것이기 때문.

(3) 전체성(총체성)

의미	문화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한 총체의 형태를 가지며,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생활 양식이다.
특징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연관된 상태로 존재하기에, 한 요소에서의 변동은 곧 다른 요소들의 연쇄적인 변동을 초래한다.
사례	스마트폰의 보급화는 기존에 활용되던 피처폰의 종말을 불러왔으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 전체성이 드러난 사례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주로 가진다:

1. 그냥 처음부터 ‘~~는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던지기
2. ‘~~의 변동은 ~~와 ~~의 연쇄적 변동을 가지고 왔다.’라고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4) 변동성

의미	문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이 가진 의미나 내용이 변화하는 생활 양식이다.
특징	전체성이 드러난 사례에서 높은 확률로 확인할 수 있다.
사례	훈민정음의 자음은 원래 17자였으나 현재는 14자만 확인할 수 있다.

▶ 위에서 언급한 전체성이 드러난 사례의 두 번째 형태에서 무조건 드러나게 되는 사례인데, ‘변동이 변동을 가지고 옴’은 변동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변동성보다 전체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외워두자.

(5) 축적성

의미	문화는 세대 간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됨에 따라 점점 더 풍부해지는 생활 양식이다.
특징	문화는 언어, 문자 등을 통해 세대 간 전승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문화가 발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사례	기존의 자동차에 에어백이 추가되고 내비게이션이 더해졌다.

- ▶ 아직 출제된 요소는 아니긴 하지만, ‘세대 간 전승’만 이루어지고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지 않은 사례가 축적성인 척 하면서 등장할 수 있다. 혹시 모르니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만 해 두자.
- ▶ 문화의 속성은 거의 무조건 특정 사례를 주고, 해당 사례에서 부각된 속성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끔 하는 형태를 골자로 하여 출제된다.

5. (가)와 달리 (나)에만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가) 사람의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전통 사회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누군가의 원한이나 주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굿으로 치료하려고 하였다. 반면, 질병의 원인을 과학에 근거하여 바이러스나 세균에서 찾는 오늘날에는 누구나 아픈 경우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한다.

(나) 판소리는 북장단에 맞춰 소리, 아니리, 발림을 섞은 전통 민속악이다. 최근에 판소리는 소리꾼의 소리에 베이스, 드럼, 댄스를 더해 남녀 노소가 쉽게 즐기는 퓨전 음악으로 재탄생했다. 판소리의 이야기가 갖는 서사성은 유지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리듬과 흥겨운 춤이 더해져 판소리와 랩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 ▶ 위 문항의 (가)에서는 ‘전통 사회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누군가의 원한이나 주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굿으로 치료하려고 하였다.’에서 전체성, ‘전통 사회에서 현대로 넘어오며 치료의 형태가 변한 것’에서 변동성, 오늘날 누구나 아픈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한다.’에서 공유성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 또한 위 문항의 (나)에서는 ‘최근의 판소리는 소리꾼의 소리에 베이스, 드럼, 댄스를 더해 퓨전 음악으로 재탄생’한 부분에서 축적성을, ‘판소리가 향유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공유성역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위에서 언급했듯 모든 사례는 해당 문화가 향유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공유성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 그러나 최근 출제되는 문항은 위에 더해, 개념의 종류가 5개로 매우 많다는 점을 활용해 아래와 같이 상황에 대한 판단까지 요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 개념 학습이 완료된 후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자.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문화의 속성 5가지를 서로 다르게 1가지씩 배정했습니다. '자전거'를 소재로 각자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말해 볼까요?



김 출퇴근 수단으로 ○○국 사람들이 자전거를 떠올리는 것은 A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을 예전과 다르게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는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B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병 (가) 은 축적성이 부각된 사례입니다.

정 (나) 은 전체성이 부각된 사례입니다.

무 (다) 은 변동성이 부각된 사례입니다.

김과 정은 각각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물은 무가 배정받은 속성, 병은 학습성, 무는 병이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E는 각각 공유성, 변동성, 전체성, 축적성, 학습성 중 하나임.) [3점]

교사: 문화의 속성 5가지를 모둠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 하였습니다. 각 모둠은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웹툰 문화에서 찾아 발표해 볼시다.

<1 모둠>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웹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A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2 모둠> 부모 세대에서 웹툰을 만화라고 부르고 만화가 보고 싶을 때 만화방을 떠올리는 것은 B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3 모둠> 만화책을 보는 사람이 줄어들고 태블릿 PC로 웹툰을 보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C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4 모둠> 부모 세대에서 눈으로만 즐기던 만화에 음성 지원, 배경 음악 재생 기능 등이 추가된 현재의 웹툰은 D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학생: 선생님, <2 모둠>의 발표 사례는 D가 부각된 것이 아닐까요?

교사: <2 모둠>의 사례는 D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부모 세대에서 만화방을 떠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B가 부각된 것이 맞습니다.

<3 모둠>과 <4 모둠>은 발표한 사례가 서로 바뀌어야 각 모둠에 배정된 속성이 부각됩니다. <1 모둠>은 <5 모둠>에 배정된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발표했어요. A를 배정받은 <1 모둠>과 E를 배정받은 <5 모둠>은 다음 시간에 발표합시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3.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 빈출 주제까진 아니나, 가끔 선지에서 언급이 되는 개념이므로 알아두고 가도록 하자.

(1) 총체론적 관점

전제	문화의 각 구성 요소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로서 전체를 이루고 있다.
연구 방법	문화의 각 구성 요소가 가지는 의미를 다른 문화 요소 및 전체와 맺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의의	문화 현상을 부분적으로만 바라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이해를 막을 수 있음.

▶ 문화의 속성 '전체성'과 일맥상통하다.

(2) 비교론적 관점

전제	각 사회의 문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연구 방법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진 특성을 비교하며 각 문화가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의의	자기 문화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명료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3) 상대론적 관점

전제	문화는 그것이 향유되는 사회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연구 방법	자신의 입장이 아닌,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그 문화가 가진 고유한 의미를 파악한다.
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특정 문화를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오류를 방지한다.

- ▶ 뒤에서 살펴볼 문화 이해의 태도 ‘문화 상대주의’와 일맥상통하다.

4. 문화 이해의 태도

(1) 자문화 중심주의

의미	자기 문화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사회의 문화를 자기 문화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여기는 태도
순기능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는 집단 내 일체감을 강화시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 및 보전에 유리하다.
역기능	국수주의에 빠져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거나 문화의 무리한 이식 시도로 문화 마찰을 초래할 수 있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어렵게 한다.

- ▶ ‘국수주의’란 자기 나라에 대한 우월감으로 자국의 문화, 역사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다른 나라의 것을 배척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자문화 중심주의’와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 키워드이니 알아두자.

(2) 문화 사대주의

의미	자기 문화가 가장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사회의 문화를 자기 문화에 비해 더 높게 여기는 태도
순기능	자기 문화의 단점을 개선하고,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할 수 있다.
역기능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고유문화의 소멸 및 외래 문화에의 종속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모두 ‘문화 절대주의’라고도 불린다는, 또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3) 문화 상대주의

의미	문화를 우열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각 문화가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가지는 고유한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이다.
순기능	다른 문화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한 태도이다.
역기능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나아갈 경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 ▶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란 인간 생명과 존엄성, 정의와 평등 등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근본 가치를 해치는 문화까지 이해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예를 들면 신분제, 노예제, 명예 살인 등의 문화까지 이해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있겠다.

● 확인 문제 Check

※ 1~5. 다음 예시가 좁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하면 ‘좁’, 넓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하면 ‘넓’을 고르시오.

1. 문화생활 (좁 / 넓)
2. 청소년 문화 (좁 / 넓)
3. 문화 공연 (좁 / 넓)
4. 대중문화 (좁 / 넓)
5. 문화적 환경 (좁 / 넓)

※ 6~10. 제시된 사례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을 서술하시오.

6. 출퇴근 수단으로 특정 나라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떠올리는 것
7. 예전과 다르게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택시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
8. 어릴 적 자전거 타는 방법을 부모에게 배워 능숙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것
9. 기존의 자전거에 변속기가 추가되고 충격 흡수 장치가 더해지는 것
10.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자 기업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유 경제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전용 도로를 건설하는 것

※ 11~13. 제시된 의의를 가지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서술하시오.

11. 자기 문화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명료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12.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특정 문화를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오류를 방지한다.
13. 문화 현상을 부분적으로만 바라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이해를 막을 수 있다.

※ 14~16. 다음 진술에 나타난 문화 이해의 태도를 서술하시오.

14. A국 사람들은 동료들과 함께 식사해도 자신이 먹은 음식 값은 각자 지불해. A국 사람들의 세련되고 진보된 문화를 우리 사회가 본받았으면 좋겠어.
15. 나는 연장자나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기분 좋게 음식 값을 모두 지불하는 우리의 문화가 훌륭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A국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본받아야 해.
16. A국의 문화도, 우리의 문화도 모두 의미가 있지. 무엇이 더 훌륭한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 그 사회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정답] 1. 좁 2. 넓 3. 좁 4. 넓 5. 넓 6. 공유성 7. 변동성 8. 학습성 9. 축적성
10. 전체성 11. 비교론적 관점 12. 총체론적 관점 13. 상대론적 관점
14. 문화 사대주의 15. 자문화 중심주의 16. 문화 상대주의

● 개념 Check

1. 주류문화와 하위문화

주류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사회 내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문화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 구성원 전체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게 함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p>Ex. 한국에서 김치를 먹는 문화, 미국에서 슈퍼볼에 열광하는 문화 등</p>
하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회 내의 특정 집단에서만 공유하는 문화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 구성원 전체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게 하며, 타 집단과의 차별성 까지 부여 사회 전체에 대해서 문화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제공 상반되는 성격의 하위문화가 다수 존재할 때 사회 집단 간 대립,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p>Ex. 청소년 문화, 지역 문화, 세대 문화, 반문화, 사투리 문화 등</p>
반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위문화의 일종으로, 지배 집단에 대하여 도전하거나 기존 질서에 상반되는 문화 주류 세력에 의해 일탈 또는 범죄 문화로 규정될 수 있음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하여 사회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 주어 사회 발전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음 기존 주류 문화에 저항하기 때문에 사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함 <p>Ex.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 조선의 천주교 문화, 프랑스 신흥 부르주아 문화 등</p>

▶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포함되는 개념이기에, 하위문화에 적용되는 모든 특징은 반문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

▶ 또한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무조건 해당한다는 사실은 아래 예시처럼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출제되기도 한다.

7.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반문화, 주류 문화, 하위문화 중 하나이다.) [3점]

표는 갑국에 존재하는 세 가지 문화가 갑국에서 A ~ C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나타낸 것이다.

구분	A	B	C
◇◇ 문화	×	○	×
□□ 문화	○	×	○
☆☆ 문화	×	×	○

* ○: 해당함, ×: 해당하지 않음.

▲ 2020년 고3 10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항

▶ □□ 문화는 A와 C에 동시에 해당하는데, 동시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는 반문화와 하위문화이므로 B는 주류문화이고, A와 C는 반문화와 하위문화 중 하나이다. 이때 ☆☆ 문화는 C에만 해당하는데, C가 반문화이

면 ☆☆ 문화는 A에도 해당해야 하므로 모순, 따라서 C는 하위문화, A는 반문화임을 알 수 있다.

▶ 또한 주류 문화와 하위문화, 반문화에 있어서 아래 표와 같은 헷갈릴 수 있는 선지들이 종종 출제되므로, 여러 번 읽어보며 이해해 두도록 하자.

번호	옳지 않은 선지	이유
1	모든 하위문화의 총합은 주류 문화이다.	상식적으로, 한국의 사투리 문화와 청소년 문화, 부유층의 문화를 합친다고 갑자기 김치가 튀어나오지는 않지 않는가?
2	주류 문화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다.	주류 문화도 문화이다. 다른 조건 다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주류 문화가 1개 있는 사회보다는 10개 있는 사회가 문화적으로 더 다양한 것.
3	하위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주류 문화를 대체하기도 한다.	애초에 반문화는 하위문화의 일종이며, 반문화인 하위문화 역시 주류 문화를 대체할 수 있다. 당장 조선 시대에 노비 해방을 주장하는 것은 반문화로 취급받았으나, 현대 사회에는 어떤가?
4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주류 문화를 향유하지 않는다.	매일 방망이 들고 치고받고 싸우고 사시미칼 들고 다니는 조폭들도 밥과 김치는 매일 먹고 다닌다. 주류 문화는 거부하려 해도 하기가 매우 힘든 것.
5	주류 문화는 시간이 지나며 하위문화로는 변할 수 있으나, 반문화로는 변할 수 없다.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노비를 부리는 것이 조선 시대에서는 주류 문화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6	하위문화는 주류 문화와 달리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강화시킨다.	애초에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소속감 강화’는 그냥 ‘문화’의 특성이다. 우리가 매일 한국어를 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7	하위문화는 주류 문화와 달리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과연 미국에서 김치를 먹는 것이 주류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

2. 대중문화

(1) 의미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초월하여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인 대중이 공유하면서 향유하는 문화

(2) 특징

- 빠르게 퍼져 다수에게 영향을 준다.
- 대중 매체를 통해 대량 생산되고 소비된다.
- 사회 구성원의 생활 양식을 동질화하는 경향이 있다.

(3) 대중문화와 대중 매체

- **대중 매체의 의미:** 대중을 상대로 정보 전달의 매개 역할을 하는 수단
- **대중 매체의 유형**

일방향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TV 등 전통적인 대중 매체 •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뚜렷하게 구별되고, 정보 소비자가 수동적임
쌍방향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IPTV 등의 뉴 미디어 •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 구분(경계)가 모호하고, 정보 소비자가 정보 생산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 일방향 매체는 정보 생산자 → 소비자의 한 방향으로만 정보가 전달되므로 일방향 매체인 것이고, 쌍방향 매체는 소비자가 정보 생산자가 되어 소비자(정보 생산자) <→ 소비자(정보 생산자)의 두 방향으로 정보가 전달되므로 쌍방향 매체인 것이다.

(4) 기능

순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락 및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활력소가 됨 • 고급문화를 대중화하여 평균적인 문화 수준이 향상됨 • 시민 의식의 성숙과 문화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함
역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상업화, 획일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 지나친 상업성의 추구로 대중문화가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음 • 지배층의 대중 조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 어차피 최근 대중 문화 & 매체에서는 제시문 독해의 형식으로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

16.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기능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의료 지식, 법률 지식과 같이 오랜 기간 숙련을 통해 얻는 전문 지식은 소수의 특권이었다. 하지만 의무 교육의 확산과 TV,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로 대다수 사람이 응급 상황이나 법적 분쟁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 과거에 골프는 상류층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대중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스포츠 미디어의 활성화로 인해 골프가 대중에게 친숙해지면서 예전보다 많은 사람이 골프를 즐기게 되었다.

- ① 오락 및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 ② 고급문화를 대중화하여 평균적인 문화 수준을 높인다.
- ③ 성숙한 시민 의식을 제고하여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한다.
- ④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 ⑤ 대중을 수동적인 문화 소비자에서 주체적 생산자로 만든다.

▲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항

● 확인 문제 Check

※ 1~5. 다음 예시가 주류 문화에 해당하면 ‘주’, 하위문화에 해당하면 ‘하’, 반문화에 해당하면 ‘반’을 고르시오.

1.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 (주 / 하 / 반)
2. 우리나라 각 지역의 사투리 문화 (주 / 하 / 반)
3.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먹는 문화 (주 / 하 / 반)
4. 조선의 천주교 문화 (주 / 하 / 반)
5. 미국에서 슈퍼볼에 열광하는 문화 (주 / 하 / 반)

6. 모든 하위문화의 총합은 주류 문화이다. (O / X)
7. 주류 문화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O / X)
8. 하위문화와 반문화는 모두 주류 문화를 대체할 수 있다. (O / X)
9.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주류 문화를 향유하지 않는다. (O / X)
10. 주류 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문화 또는 하위문화로 변할 수 있다. (O / X)
11. 주류 문화와 하위문화는 모두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강화시킨다. (O / X)
12. 하위문화와 주류 문화는 모두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O / X)

※ 13~20. 다음 매체가 일방향 매체에 해당하면 ‘일’, 쌍방향 매체에 해당하면 ‘쌍’을 고르시오.

13. TV (일 / 쌍)
14. 인스타그램 (일 / 쌍)
15. 틱톡 (일 / 쌍)
16. 신문 (일 / 쌍)
17. 잡지 (일 / 쌍)
18. 라디오 (일 / 쌍)
19. 영화 (일 / 쌍)
20. 유튜브 (일 / 쌍)

● 개념 Check

1. 문화 변동의 의미와 요인

(1) 문화 변동의 의미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이나 다른 문화 체계와의 접촉을 통해 한 사회의 문화 체계에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

(2) 문화 변동의 요인

- **내재적 요인:** 한 사회 내부에서 새롭게 등장하여 해당 사회의 문화 체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

구분	의미	사례
발명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기술이나 사물 등을 만들어 내는 행위나 그 결과물	자동차, 인터넷, 증기 기관 등
발견	‘기존에 존재하나’ 알려지지 않았던 사물이나 원리를 찾아내는 행위나 그 결과물	석탄, 물, 전기 등

▶ 발견은 ‘기존에 존재’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발명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

- **외재적 요인(문화 전파):** 한 사회 내부에서 새롭게 등장하여 해당 사회의 문화 체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

구분	의미	사례
직접 전파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인간 대 인간의) 접촉 과정에서 문화 요소가 전달되어 정착되는 현상	문의점이 봇뚜껑에 목화씨를 숨겨 온 것 등
간접 전파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매개체(대중 매체 등)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 요소가 전달되어 정착되는 현상	유튜브를 통해 K-Pop이 외국으로 전파된 것 등
자극 전파	다른 문화 체계 안에 존재하는 문화 요소와 관련해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이를 얻은 사회 내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 내는 현상	한자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이두문자를 만들어 낸 것 등

▶ 앞으로 보게 될 ‘문화 전파’는 내재적 요인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에만 사용되는 용어인 점을 알아두자. 애초에 한 사회 내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은 어휘적 의미 그대로의 ‘전파’

라고 볼 수 없으니.

- ▶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모두 마지막에 해당 문화 요소가 ‘정착되어야’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B국에 침략한 A국이 자국의 문화를 B국에 전파하고자 시도했으나 끝내 저항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으면 이는 직접 전파의 사례로 볼 수 없는 것.
- ▶ 자극 전파가 나타났을 때에는 항상 ‘아이디어를 얻어’나 ‘영감을 얻어’, ‘자극받아’ 정도의 언급이 항상 나온다. 하지만 자국의 문화에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 것은 결코 자극 전파가 아니라는 점에 항상 주의하자.

2. 문화 변동의 양상

(1) 문화 변동 요인에 따른 구분

- **내재적 변동:** 발명, 발견 등의 내재적 요인에 의해 한 사회의 내부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생겨난 후,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수용되고 문화 체계 속에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문화 변동.
- ▶ 발명, 발견이 이루어졌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문화 변동이라고 볼 수 없다. 아직 출제되지 않은 고난도 요소이므로 꼭 알아 두자.
- **외재적 변동(문화 접변):** 서로 다른 사회가 접촉하면서 문화 전파(외재적 요인) 등에 의해 문화 요소의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한쪽 사회 또는 양쪽 사회 모두의 문화 체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
- ▶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가 이루어졌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문화 변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이미 출제되어 찍어도 오답률 80%인 5지선다 주제에 89.5%의 오답률을 찍은 문항을 만들어낸 요소이므로 확실하게 주의해 두자.

13.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으로 유입된 난민들은 정착 초기부터 마셔오던 자국의 전통 음료에 착안하여 새로운 A 음료를 개발하였다. 이 A 음료는 상인들을 통해 을국과 병국으로 전해졌고, 을국에서는 갑국에서와 같이 대중적인 음료 중 하나가 되었다. 이후 을국의 한 학자가 A 음료의 제조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진행한 연구 중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을 찾아냈다. 한편, 병국에서는 정국으로부터 서적을 통해 전달된 정국의 전통적인 면 요리에 병국 사람들도 즐기는 A 음료를 첨가하여 새로운 맛을 내는 면 요리가 탄생되었다. 이 새로운 요리는 병국과 갑국의 전쟁 중에 병국 취사병에 의해 갑국에 알려졌지만 갑국 사람들의 식탁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 2024년 고3 7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항

- ▶ 위 사례의 뒤에서 세 번째 줄에서는 새로운 요리가 병국과 갑국의 전쟁 중에 병국 취사병에 의해 갑국에 알려졌지만(직접 전파?) 갑국 사람들의 식탁에는 오르지 못하였다(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수용 X)는 언급이 나타나 있고, 이로 인해 직접 전파가 갑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문화 접변의 양상

▶ ‘문화 접변’이란, 문화가 ‘접해서 변한다.’이다. 따라서 접할 일이 없는 발견, 발명의 내재적 변동의 경우에는 문화 접변이라고 볼 수 없음에 유의하자.

• 강제성 및 자발성에 따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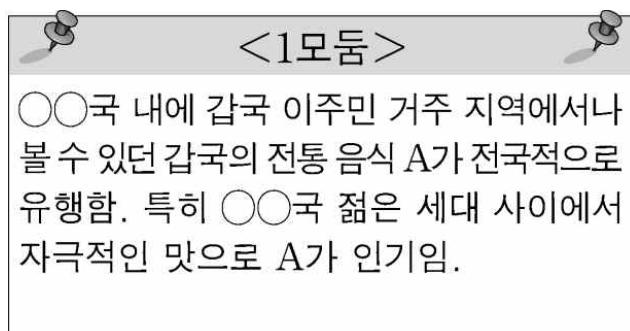
- 강제적 문화 접변: 정복 등과 같은 상황에서 물리적 강제력에 기초하여 지배적 입장에 있는 사회의 문화 요소가 피지배 사회에 강제적으로 이식되어 나타나는 문화 변동
 - ▶ 저항에 성공해 문화 요소가 이식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볼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6·25 전쟁의 결과로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것.
- 자발적 문화 접변: 바람직하거나 필요하다고 느껴 스스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를 자기 사회의 문화 체계 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나는 문화 접변
 - ▶ 강제적 문화 접변과 자발적 문화 접변은 배타적이다. 다르게 이야기해, 강제적 문화 접변이 아닌 문화 접변은 모두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고 볼 수 있다.

• 변동 결과(문화 접변의 결과)에 따른 구분

구분	의미
문화 공존 (문화 병존)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한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 Ex. 서양 의학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후 우리나라에 서양식 병원과 한의원이 둘 다 존재
문화 동화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 흡수되어 정체성을 상실하는 현상 Ex. 북아메리카 원주민이 이주한 유럽인과 교류하면서 자기들의 문화를 상실한 것
문화 융합	기존 문화 요소와 외래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기존 문화 요소들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기존 문화 요소들과 다른 성격을 지닌 제3의 문화를 형성하는 현상 Ex. 우리나라의 전통 주거 문화인 온돌과 서양의 문화 요소인 침대가 결합해 만들어진 돌침대

▶ 세 가지 문화 접변의 결과 중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은 문화 동화뿐이다. 다시 말해, 제3의 문화 안에 여전히 기존의 문화 요소가 가진 성격이 남아 있는 문화 융합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한 결과가 아니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문화 공존에 대한 요상한,,,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출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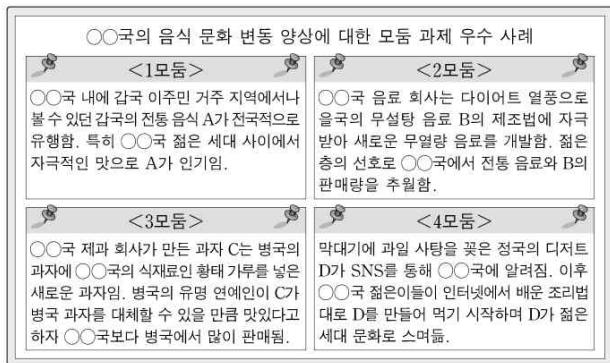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자료

- ▶ 얼핏 봐서는 위 자료에서 문화 공존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평가원에서는 이를 두고 문화 공존이 나타난 사례인 것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EBS 해설은 아래와 같다: 1모둠이 작성한 내용 중 ‘갑국의 전통 음식 A가 전국적으로 유행했다’는 내용을 통해 문화 공존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 심지어 위 내용은 정답 선지에 대한 판별 근거로 작용해 많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결국 해당 문항은 50%를 상회하는 오답률을 기록했다. 개인적으로는 출제 오류에 가깝다고 생각하나,,,뭐 어쩌겠는가 평가원이 그렇다는데. ‘전국적으로 유행’이라는 워딩이 있으면 문화 공존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그냥 암기해 두자.

3. 문화 변동으로 인한 문제점

- **문화 충격 및 정체성 상실:**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 불안감 또는 거부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고, 또한 이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과 추종은 자기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문화 지체:**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가 뒤따르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화 요소 간의 부조화 현상이다.
- **기술 지체:**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가 뒤따르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화 요소 간의 부조화 현상이다.
- ▶ 기술 지체는 기술(이) 지체인 것으로 알아두고, 문화 지체는 기술 지체의 반대 현상인 것으로 알아두면 편하다.
- ▶ 문화 지체의 예시로는 공유 전동 킥보드가 개발되었으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발전하지 않아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들 수 있고, 기술 지체의 예시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여기에 활용된 온라인 기기의 개발이 미흡한 상황을 들 수 있다.
- **아노미:**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 문화 변동에 대해서는 주로 주어진 사례에서 나타난 문화 변동의 요인이 무엇인지, 또 문화 접변의 양성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독해형/상황 판단형 문항이 주로 출제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예시를 한 번 보자.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1모둠과 2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문화 공존이 나타난다.
- ② 3모둠과 4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
- ③ 1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발명이, 2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직접 전파가 나타난다.
- ④ 3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문화 동화가, 4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간접 전파가 나타난다.
- ⑤ 1모둠과 2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자극 전파가, 3모둠과 4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난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 ▶ 1번 선지에서, 1모둠이 작성한 내용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해괴망측한 이유로 인해,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2모둠이 작성한 내용에서는 ○○국에서 '무열량 음료', '전통 음료', 'B'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사실 판단에 의해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문항의 정답은 1번.
- ▶ 2번 선지에서, 3모둠이 작성한 내용에서는 'C는 병국의 과자에 ○○국의 식재료인 황태 가루를 넣은 새로운 과자임.'의 언급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4모둠이 작성한 내용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는다.
- ▶ 3번 선지에서, 1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발명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너무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 2모둠이 작성한 내용에서도 직접 전파가 아닌 자극 전파가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4번 선지에서, 3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문화 동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4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정국의 디저트 D가 SNS를 통해 ○○국에 알려짐'에서는 간접 전파가 나타났다는 사실 또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 5번 선지에서, 1모둠이 작성한 내용에서는 자극 전파가 나타나지 않지만, 2모둠이 작성한 내용에서는 '○○국 음료 회사는 을국의 무설탕 음료 B의 제조법에 자극받아 새로운 무열량 음료를 개발함.'에서 자극 전파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3모둠과 4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는데, 3모둠과 4모둠이 작성한 내용에는 모두 문화 접변이 나타났고, 해당 문화 접변은 강제적 문화 접변이 아니므로 모두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 봄아 하는 것.

1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 디저트 열풍에 대한 조사

<p>● A국에서 유행하는 B국의 고급 초콜릿 디저트</p> <p>B국의 상류 사회에서 즐겨 먹던 고급 초콜릿을 B국에 여행을 다녀온 A국 사람들이 기념 선물로 들여 오면서 A국에서 다수가 좋아하는 디저트가 됨.</p> <p>작성자: 갑</p>	<p>● A국의 전통 음식을 재해석한 복고풍 디저트</p> <p>A국 연예인이 자국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에서 사라진 전통 음식을 찾아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는 독특한 디저트를 만들어 소개함. 이후 이 디저트는 A국의 여러 세대에서 즐겨 먹는 다양한 디저트 중 하나가 됨.</p> <p>작성자: 을</p>	<p>● A국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즐겨 먹는 C국 디저트</p> <p>C국 유명 요리사가 자국의 전통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를 A국에 차리면서 SNS를 통해 카페 정보가 A국 사람들에게 공유됨. A국 사람들이 이 디저트를 즐겨 새로운 음식 문화로 정착됨.</p> <p>작성자: 병</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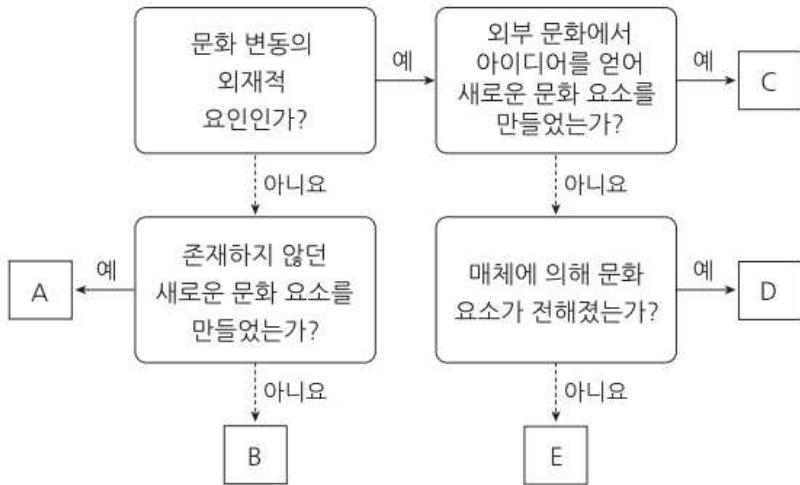
- ① 갑이 작성한 내용에는 문화 동화가 나타난다.
- ② 을이 작성한 내용에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난다.
- ③ 병이 작성한 내용에는 직접 전파가 나타난다.
- ④ 갑과 달리 을, 병이 작성한 내용에는 문화 공존이 나타난다.
- ⑤ 갑, 을과 달리 병이 작성한 내용에는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 ▶ 1번 선지에서, 갑이 작성한 내용에 문화 동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한다.
- ▶ 2번 선지에서, 얼핏 보았을 때에는 을이 작성한 내용에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난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잘 보면, 을이 작성한 내용에서는 발명만이 나타났기에, 문화 접변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기에 2번 선지는 오답 선지.
- ▶ 3번 선지에서, SNS를 통해 카페 정보가 A국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다는 내용에서 간접 전파가 나타났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C국 유명 요리사가 자국의 전통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를 A국에 차린 시점서 이미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 SNS를 통해 카페 정보가 공유되기 전 이미 해당 디저트를 A국에서 팔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
- ▶ 4번 선지에 대해서는 먼저 EBS 해설을 보자: 문화 공존은 문화 접변의 결과 중 하나이다. 을이 작성한 내용에는 문화 접변이 나타나지 않는다. <- 이게 끝이다. 을이 작성한 내용에서는 문화 접변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기에 문화 공존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으나, 갑, 병이 작성한 내용에서는 그놈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례 때문에 문화 공존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 사실 병이 작성한 내용에서는 해당 디저트가 ‘새로운’ 음식 문화로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음식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고, 이로부터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는 확실한 근거를 잡을 수 있다. 이 선지에 대해서는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가자. 일단 오답 선지인 것은 확실하니.
- ▶ 5번 선지에서, 갑과 을은 물론이거니와, 병이 작성한 내용에서도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정도는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한다.
- ▶ 이렇듯 문화 변동에서의 문항은 실제 사례를 보면서 그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비는, 최대한 많은 사례를 접해보며 다양한 판단을 미리 해 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그냥 문제 많이 풀라는 소리다.

● 확인 문제 Check

1. A~E에 들어갈 문화 변동의 요인을 각각 서술하시오.



※ 2~6. 다음 예시에 나타난 문화 변동의 요인을 서술하시오.

- 갑국 사람들은 A국의 요리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보고, 영화에서 그 요리사가 만든 방법 그대로 A국의 전통 옥수수빵을 따라 만들어 일상에서 즐기게 되었다.
- 을국 사람들은 무역을 하면서 만난 B국 사람들이 B국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만들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청결 유지를 위한 다양한 용품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독특한 식사 문화를 갖게 되었다.
- 병국 사람들은 이웃 주민인 C국 이민자들이 C국의 전통적 농기구인 호미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호미를 구매하여 정원을 가꾸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 A국은 자석이 철을 끌어 당기는 원리를 이용하여 최초로 나침반을 만들었다. 태양과 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항해를 하던 B국 사람들은 A국 상인들을 통해 나침반을 접하고 이를 원거리 항해에 활용하게 되었다.
- 고유한 토착 신앙을 지니고 있던 C국 사람들은 D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D국의 종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당했다. 그러자 C국 사람들은 D국의 종교 교리와 의식에 자신들의 토착 신앙 요소를 결합시킨 새로운 신앙 체계를 만들었다.

※ 7~10. 다음 예시에 나타난 문화 접변의 결과를 서술하시오.

- 갑국 사람들은 A국의 요리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보고, 영화에서 그 요리사가 만든 방법 그대로 A국의 전통 옥수수빵을 따라 만들어 일상에서 즐기게 되었다.
- 을국 사람들은 무역을 하면서 만난 B국 사람들이 B국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만들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청결 유지를 위한 다양한 용품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독특한 식사 문화를 갖게 되었다.
- 미국 알래스카주 남부 해안 원주민들의 언어였던 에야크어는 소멸되었다. 원주민들이 백인들의 지배하에 놀

인 이후로 수 세대에 걸쳐 학교와 사회에서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에야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10. 고유한 토착 신앙을 지니고 있던 C국 사람들은 D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D국의 종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당했다. 그러자 C국 사람들은 D국의 종교 교리와 의식에 자신들의 토착 신앙 요소를 결합시킨 새로운 신앙 체계를 만들었다.

※ 11~12. 다음 예시에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나면 '강',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나면 '자'를 고르시오.

11. 미국 알래스카주 남부 해안 원주민들의 언어였던 에야크어는 소멸되었다. 원주민들이 백인들의 지배하에 놀인 이후로 수 세대에 걸쳐 학교와 사회에서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에야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강 / 자)

12. 우리 음악계에서 국악과 서양 음악을 접목하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전통 민요나 판소리 등이 재즈, 록, 댄스 음악 등과 결합해 새로운 정체성을 보이는 이른바 퓨전 국악은 젊은 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 / 자)

[정답] 1. A: 발명 B: 발견 C: 자극 전파 D: 간접 전파 E: 직접 전파 2. 간접 전파
3. 자극 전파 4. 직접 전파 5. 발명 6. 직접 전파 7. 문화 공존 8. 문화 공존
9. 문화 동화 10. 문화 융합 11. 강 12. 자



사회·문화 기초 & 실전 개념서

Sapiens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11.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이해

#12.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

#특강3. 계층 이동 도표 분석

#13.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14.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특강4. 복지 제도 도표 분석

● 개념 Check

1. 사회 불평등 현상

(1) 의미

사회 구성원들 간에 학력, 소득, 지위나 위신, 권력 등 사회적 희소가치의 소유 정도나 접근 기회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2) 다양한 영역의 사회 불평등

- **경제적 불평등**: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희소가치가 차등적으로 분배됨으로써 나타나는 불평등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사회 불평등의 양상임.
- **정치적 불평등**: 권력의 소유 정도나 정치 참여 기회에 있어 나타나는 불평등으로써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정치 참여를 배제할 경우 심화될 수 있음.
-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위신이나 명예, 건강, 문화 및 여가 생활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자원이 차등적으로 분배됨으로써 나타나는 불평등

▶ 해당 개념들 자체에 대해 문제가 출제된다기보다는, 뒤에서 알아볼 '계층론'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기에 수록 하였다. 따라서 위 특징을 달달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각 불평등의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인상 정도만 기억하고 가면 된다.

(3) 영향

- **긍정적 영향**: 사회 구성원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부정적 영향**: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2. 사회 계층화 현상과 그 이론

(1) 의미

사회 구성원들 간 불평등 양상이 일정한 요인에 따라 범주화되고, 범주화된 사람들 간에서 비교적 구조화되고 지속적인 서열이 만들어지는 현상

(2) 이론

구분	계급론(마르크스)	계층론(베버)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급은 생산 수단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단일한' 위계 구조에서 공통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층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범주화된 각각의 위계 서열에서 공통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계층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다른 모든 측면에서의 사회 불평등을 결정함(일원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급, 위신, 권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이 다른 위치를 차지하게 됨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회 불평등이 발생함(다원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연속적·이분법적으로 계급을 구분한다. 동일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계급 의식을 가지고 연대하며 계급 간 대립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계급 간 생산 수단을 둘러싼 갈등·대립 관계가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계층화 현상을 범주화하여 설명한다. 계층화가 '연속적'이고 '다분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서열화임을 강조한다.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 최근 출제되고 있는 주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가장 최근 출제가 2020년 고3 10월 모의고사이다), 아예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니므로 만약을 대비해 알아두도록 하자.
- ▶ 계급론과 계층론에서 각각 바라보는 사회 계층의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계급론〉

경제적 요인
유산 계급(자본가)
무산 계급(노동자)

〈계층론〉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상층	상층	상층
중층	중층	중층
하층	하층	하층

- ▶ 계급론에서도 경제적 요인 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서의 불평등 자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긴 한다. 다만 해당 요인들에서의 불평등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 ▶ 계급론에서는 단일 요인에 따라서 계급이 나뉘어지므로 누가 상위 계급이고 하위 계급인지가 명확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기가 쉬우므로 대립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 계층론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계급이 나뉘어지므로 누가 상위 계급이고 하위 계급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보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상위 계급인데 정치적 요인에서는 하위 계급이면 전체적인 계급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니까.
- ▶ '지위 불일치'란 계급, 위신, 권력의 각 측면에서 나타나는 계층 서열에서 개인의 위치가 서로 다른 현상을 가리킨다. 당연히 계급론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계층론만이 설명할 수 있는 개념.

3.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1) 기능론

사회 불평등의 발생 원인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직업별 사회적 중요도 및 기여도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
가치 배분 기준	개인의 능력과 노력, 그에 따른 업적 등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된 기준
기본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구성원 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 불평등 덕에 각 지위나 직업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사회 불평등에의 평가	사회 불평등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꼭 존재해야 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 ▶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사회 불평등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 ▶ 만약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과 노력을 했는데 똑같은 사회적 위치에 있다면(사회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아 아예 모두가 평등하다면) 과연 나는 능력을 이용해서 노력을 하고 싶을까? 사회 불평등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들도 노력을 하지 않아 업적을 쌓지 않을 것이기에 결국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역으로 사회 불평등이 존재하기에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유지된다는 게 기능론의 입장.

(2) 갈등론

사회 불평등의 발생 원인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유지 및 계급 재생산을 위해 지배 집단이 만든 분배 구조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
가치 배분 기준	권력, 재산, 가정 배경 및 지배 집단만의 합의가 반영된 기준
기본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 희소가치가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기준에 따라 분배됨으로써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고, 피지배 집단 구성원의 계층 상승을 억압함으로써 계급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 불평등은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고착화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 불평등에의 평가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으며, 없애야 할 현상이므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

- ▶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사회 불평등이 가정 배경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 ▶ 만약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과 노력을 했는데 저 사람은 가정 배경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고, 나는 절대로 이 현실을 뒤집을 수 없다면(이것이 갈등론이 사회 불평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므로) 과연 나는 능력을 이용해서 노력을 하고 싶을까? 어차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를 이용한 노력, 그로서 쌓은 업적만을 가지고는 죽어도 가정 배경에 의거한 현실을 뒤집을 수 없으므로, 그럴 바에는 아예 사회 불평등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 갈등론의 입장.

● 확인 문제 Check

※ 1~5. 다음 특징이 계급론의 특징에 해당하면 ‘급’, 계층론의 특징에 해당하면 ‘층’을 고르시오.

1. 불연속적·이분법적으로 계급을 구분한다. (급 / 층)
2.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계층화 현상을 범주화하여 설명한다. (급 / 층)
3.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서의 불평등의 존재를 인정한다. (급 / 층)
4.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급 / 층)
5. 계급 간 생산 수단을 둘러싼 갈등·대립 관계에 주목한다. (급 / 층)

※ 6~10. 다음 특징이 기능론의 특징에 해당하면 ‘급’, 갈등론의 특징에 해당하면 ‘층’을 고르시오.

6.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가치가 배분된다고 본다. (기 / 갈)
7.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본다.. (기 / 갈)
8. 지배 집단만의 합의가 반영된 기준에 따라 가치가 배분된다고 본다. (기 / 갈)
9. 사회 불평등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기 / 갈)
10. 사회 불평등 현상이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기 / 갈)

[정답] 1. 급 2. 층 3. 급, 층 4. 층 5. 급
6. 기 7. 기 8. 갈 9. 기, 갈 10. 기

● 개념 Check

1. 사회 이동

(1) 의미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계층에서 차지한 위치가 변화하는 현상

(2) 유형

- 이동 방향에 따른 구분

구분	수평 이동	수직 이동
의미	다른 계층으로 이동(상층에서 중층,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지 않고 동일한 계층 내에서 직업이나 종사하는 분야에 변화가 나타나는 사회 이동	다른 계층으로 이동하여 계층 구조 내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사회 이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 시험도 합격한 괴물사람이 회계사로서 근무하다 변호사로서 새로 근무를 시작함 • 특정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회사에서 똑같이 부장의 위치로 이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정을 일삼다 결국 폐위당한 연산군 •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으나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로서 승승장구하고 정치계에도 진출해 결국 국가원수의 자리에까지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

- 이동 원인에 따른 구분

구분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
의미	기존 계층 구조 내에서 노력이나 업적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 이동	기존 계층 구조에 변화를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 위치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사회 이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정을 일삼다 결국 폐위당한 연산군 •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으나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로서 승승장구하고 정치계에도 진출해 결국 국가원수의 자리에까지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술국치로 인해 몰락한 수많은 조선시대의 양반들 • IMF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20세기 말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 이동 범위(세대 범위)에 따른 구분

구분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
의미	조부모, 부모 등 이전 세대와 별개로 한 개인의 생애 내부에서 나타나는 사회 이동	조부모, 부모 등 이전 세대의 계층과 비교했을 때 한 개인의 계층 위치가 변화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 이동
사례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감	부모가 물려준 막대한 재산을 흥청망청 쓴 끝에 신용 불량자의 신세가 된 사람

▶ 세대 간 이동의 예시: 부모 하층 → 자녀 상층, 부모 상층 → 자녀 중층

▶ 세대 내 이동의 예시: 본인의 최초 계층 중층 → 본인의 현재 계층 상층

2. 사회 계층 구조

(1) 의미

한 사회에서 희소 가치가 차등적으로 배분되고,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면서 일정한 형태로 고정이 된 구조

(2) 유형

- 수직 이동 가능성에 따른 구분

구분	폐쇄적 계층 구조	개방적 계층 구조
의미	계층 간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수직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계층 구조	계층 간 이동이 보장되어 수직 이동이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 계층 구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속 지위가 중시됨 서로 다른 계층 간 교류가 업격하게 통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취 지위가 중시됨 서로 다른 계층 간 교류에 제한이 없음
사례	신분제 사회였던 근대 이전까지의 계층 구조	현대 민주 사회의 계층 구조

- 계층 구성 비율에 따른 구분

구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형태			

의미	하층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계층 구조	상층 비율과 하층 비율에 비해 중층의 비율이 높은 계층 구조	중층의 비율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상층의 비율이 낮으며, 하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 구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계층 구조이다. 소수의 상층이 희소 자원을 독점하고 다수의 하층을 지배하며 통제한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정도가 심하여 사회 통합 및 안정의 가능성성이 낮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대 이후의 고도 산업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계층 구조이다. 사회 복지 제도의 확충으로 인해 중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난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정도가 낮아 사회 통합 및 안정의 가능성성이 높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 및 세계화가 이루어진 뒤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비관적 형태의 계층 구조이다. 정보 격차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화됨으로써 나타난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정도가 심하여 사회 통합 및 안정의 가능성성이 낮다.

▶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으로 이루어진다. 단순히 모래시계 그 자체의 모양만을 생각해 상층과 하층 간 대소 관계는 중층이 가장 적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하층이 상층보다 많아야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됨을 알아두자.

▶ ‘사회 통합의 가능성성이 낮음’과 ‘계층 간 이동 가능성성이 낮음’을 동일시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사회 통합의 가능성성이 낮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서, 상층에서 하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 확인 문제 Check

- 유사한 규모의 다른 회사에서 동일한 직책으로 이직한 갑의 사례는 수평 이동에 해당한다. (O / X)
- 도박으로 물려받은 전 재산을 잃은 을의 사례는 수직 이동에 해당한다. (O / X)
- 개인적 이동은 기존 계층 구조의 변동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O / X)
- 구조적 이동은 사회 구조적 요인이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다. (O / X)

※ 5~8. 다음은 갑, 을의 부모 계층과 본인의 최초 계층, 본인의 현재 계층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세대 내 이동은 부모 계층과 본인의 현재 계층 간 비교를 통해, 세대 간 이동은 본인의 최초 계층과 본인의 현재 계층 간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

구분	부모 계층	본인의 최초 계층	본인의 현재 계층
갑	상층	중층	중층
을	하층	중층	하층

- 갑은 세대 내 이동을 겪었다. (O / X)
- 갑은 세대 간 이동을 겪었다. (O / X)
- 을은 세대 내 이동을 겪었다. (O / X)
- 을은 세대 간 이동을 겪었다. (O / X)

-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는 귀속 지위가 중시된다. (O / X)
- 개방적 계층 구조에서는 서로 다른 계층 간 교류가 엄격하게 통제된다. (O / X)

※ 11~15. 다음은 갑~병국의 계층별 인구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구분	갑국	을국	병국
상층	20	30	60
중층	30	50	10
하층	50	20	30

- 갑국에서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O / X)
- 을국에서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O / X)
- 병국에서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O / X)
- 을국의 계층 구조는 갑국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O / X)
- 갑, 병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O / X)

[정답] 1. O 2. O 3. X 4. O 5. O 6. X 7. X 8. O 9. O 10. X 11. O 12. O
13. X 14. O 15. X

3

#특강 3. 계층 이동 도표 분석

'계층 이동 도표 분석' 유형이란, 문제에서 주어진 상~하층 간 계층 이동 현황을 표의 형태로 정리한 뒤, 이를 활용해 선지의 정오를 판단해야 하는 유형이다.

계층 도표는 이전까지는 계층 이동이 아닌 계층 간 비율 현황만 판단하게 하거나(2023, 2025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이미 이동 현황을 제시해 주었기에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2022, 2024학년도 수능)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을 알아두자.

하지만 이제는 계층 간 비율 현황뿐만 아니라 계층 이동 현황까지 파악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파악의 과정에 계산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임이 예고되었다.

여기서 퀴즈: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 다음 중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1. 계층 간 비율 현황
2. 계층 이동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해 답을 내어놓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계층 간 비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 비율에서 이동을 한 / 하지 않은 인구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의 현황은 당연히 파악을 하지 못할 것.

그렇기에 '계층 이동' 문항을 해결함에 있어, 문제를 푸는 독자들은 먼저 부모 / 자녀 세대의 계층 비율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항에서는, 부모 / 자녀 세대의 계층 비율 현황이 바로 제시가 되었다아가 정말 많이 봐 준 것.

다음은 ○○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과 세대 간 이동 현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이며, 세대 간 이동에서 같은 A에서 B로, 을은 C에서 B로 하강 이동을 하였고, 병은 A에서 C로 상승 이동을 하였다. 단,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자료 1>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
(단위: %)

구분	A	B	C
부모 세대	30	50	20
자녀 세대	50	30	20

하지만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아래의 사례와 같이 부모 / 자녀 세대의 계층 비율 현황을 직접 구하게끔 하는 형태로도 언제든지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갑국 정부는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분배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갑국 내 모든 부모의 자녀가 1명씩인 (가), (나) 지역에 정책을 적용해 보았다. 갑국은 사회 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하며, A~C는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자녀 세대 계층 인구 대비 부모 세대 계층 인구의 상대적 비>														
<table border="1"><thead><tr><th rowspan="2">계층</th><th colspan="2">상대적 비</th></tr><tr><th>(가) 지역</th><th>(나) 지역</th></tr></thead><tbody><tr><td>A</td><td>0.8</td><td>1.6</td></tr><tr><td>B</td><td>0.4</td><td>0.4</td></tr><tr><td>C</td><td>2.0</td><td>1.0</td></tr></tbody></table>	계층	상대적 비		(가) 지역	(나) 지역	A	0.8	1.6	B	0.4	0.4	C	2.0	1.0
계층		상대적 비												
	(가) 지역	(나) 지역												
A	0.8	1.6												
B	0.4	0.4												
C	2.0	1.0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의 일부

(가), (나) 사회의 계층은 A~C로만 구성되며,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 구성의 상대적 비>				
구분	(가) 사회		(나) 사회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frac{A+C}{A+B}$	$\frac{7}{9}$	$\frac{5}{8}$	$\frac{5}{9}$	$\frac{5}{7}$
$\frac{A+C}{B+C}$	$\frac{7}{4}$	$\frac{5}{7}$	$\frac{5}{6}$	$\frac{5}{8}$

2020학년도 수능 20번의 일부

그렇기에 독자들은, 수능에서는 계층 비율 현황을 직접 구하게끔 하는 형태의 문항을 마주할 가능성 역시 항상 고려를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뒤에서 살펴볼 ‘인구 부양비’ 형태의 문항과 놀랍도록 유사한 사고를 요구한다: 계층 이동 도표 문항에서 계층별 비율을 구하는 것과, 인구 부양비 문항에서 연령별 인구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사고 과정을 요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기에 이 교재를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본 유형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기 전 뒤의 ‘인구 부양비’ 유형에 대한 학습을 선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계층 비율 현황을 직접 구하게끔 하는 형태의 문항은 ‘인구 부양비’ 유형의 문항에 대한 완벽한 상위호환이기 때문.

그리고 만약 수능에서 계층 비율 현황을 직접 구하게끔 하는 형태의 문항이 등장한다면, 독자들은 ‘인구 부양비 문항을 해결한다’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계층 비율 현황을 구했으면, 이제는 계층 이동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구해야 한다.

실제로 26 9월 모의평가 10번에 있어, 많은 학생들은 계층 이동 현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풀이의 첫 지점부터 잡지 못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존재한다: 5×5 사이즈의 표를 그린 뒤, 해당 표에 계층 비율 현황을 먼저 정리하면 된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되고,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임.) [3점]

다음은 ○○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과 세대 간 이동 현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이며, 세대 간 이동에서 같은 A에서 B로, 을은 C에서 B로 하강 이동을 하였고, 별은 A에서 C로 상승 이동을 하였다. 단,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자료 1>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

(단위: %)

구분	A	B	C
부모 세대	30	50	20
자녀 세대	50	30	20

<자료 2>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세대 간 이동 현황

세대 간 이동 양상	세대 간 이동 비율(%)
A→B	10
C→B	5
A→C	10

*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을 비교하여 판단함.

- ① 같은 부모 계층보다 을의 부모 계층이 낮다.
- ②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보다 중층이 많다.
- ③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가 적다.
- ④ 부모 세대 계층 구조와 달리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 ⑤ 자녀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 실현에 유리하다.

위 문항의 사례에 있어서는, A가 중층, B가 하층, C가 상층인 것을 파악한 뒤에는 아래와 같이 표에 정리를 할 수 있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20
중층				50
하층				30
전체	20	30	50	100

여기까지 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가운데에 있는 3×3 사이즈의 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

그리고 이 질문은, 이후 문제 풀이의 과정에 있어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이 된다.

9개의 칸 각각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할당될 수 있다:

1. 부모 상층, 자녀 상층
2. 부모 상층, 자녀 중층
3. 부모 상층, 자녀 하층
4. 부모 중층, 자녀 상층
5. 부모 중층, 자녀 중층
6. 부모 중층, 자녀 하층

7. 부모 하층, 자녀 상층
8. 부모 하층, 자녀 중층
9. 부모 하층, 자녀 하층

그리고 이제 독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문제에서 주어진 기타 단서 조항들을 활용해 각 특성이 할당된 부분에 대해 표를 채우는 것이 된다.

위의 2026학년도 9평 10번 문항에 있어서는, 중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자녀 세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자녀 세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5%, 중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한 자녀 세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로 제시되어 있다.

이 정보는, 다음과 같이 반영해서 표를 채울 수 있는 것.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0		20
중층				50
하층	5	10		30
전체	20	30	50	100

여기까지 채우고 나면 보이는 부분이 있다:

1. 부모 중층, 자녀 중층
2. 부모 하층, 자녀 하층

의 특성이 할당된 칸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비율을 활용해 다음과 같이 들어갈 비율을 구할 수 있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0		20
중층		10		50
하층	5	10	15	30
전체	20	30	50	100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4개의 칸이 남았다: 그리고 이 칸은, 문제에서 주어진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라는 단서를 활용해 채울 수 있다.

자녀 세대 중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10%, 자녀 세대 하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15%인데,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이니 자녀 세대 상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5%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5	10		20
중층		10		50
하층	5	10	15	30
전체	20	30	50	100

여기까지 채웠다면,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비율을 활용해 다음과 같이 표를 마무리 해 줄 수 있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5	10	5	20
중층	10	10	30	50
하층	5	10	15	30
전체	20	30	50	100

여기까지 왔다면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선지를 판단한 뒤, 2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는 것.

이렇게 해서 계층 이동 문항을 해결함에 있어 독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기초 지식은 모두 소개가 끝났다: 하지만 '모든 것'으로 칼럼 네이밍을 해 놓고 여기서 끝내긴 아쉬우니, 한 가지 문제를 활용하여 더 연습해 보도록 하자.

20. 다음 자료는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세대별 계층 간 상대적 비율〉		
구분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상층+하층 전체 계층	$\frac{1}{2}$	$\frac{4}{5}$
상층 중층+하층	$\frac{1}{4}$	$\frac{1}{3}$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 계층 일치의 상대적 비율〉		
상층	중층	하층
$\frac{1}{5}$	$\frac{1}{2}$	$\frac{4}{11}$

*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이고, 갑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함.
** 상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 인구와 하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인구의 비는 2:1임.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의 일부

이제는 먼 옛날의 기억이 되어버린, 2017년에 출제된 매우매우 녹슨 문항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 풀어 봤을 때에는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항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문항은 계층 비율 현황을 바로 준 것이 아니라, 계산을 통해 직접 구하게끔 출제가 되었다.

전체 계층 비율을 100%로 둔다면 $\{(상층 + 하층) / 전체 계층\}$ 비율에 의해 부모 세대에서 상층 + 하층 비율은 50%가 되며, 자녀 세대에서는 80%가 된다.

이에 따라 부모 세대에서 중층 비율은 50%, 자녀 세대에서 중층 비율은 20%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층 / (중층 + 하층) 비율\}$ 에 의해 부모 세대에서 상층 비율은 20%, 자녀 세대에서 상층 비율은 25%가 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 세대에서 하층 비율은 30%, 자녀 세대에서 하층 비율은 55%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것: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25
중층				20
하층				55
전체	20	50	30	100

이제는 표 안의 3×3 공간을 채워 넣을 차례이다: 그리고 이는 문항에서 주어진 두 번째 단서, 다시 말해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 계층 일치의 상대적 비율'을 활용해서 채울 수 있다.

우선 상층에서 해당 비율은 $1/5$ 이다: 따라서 자녀 세대 상층에서 부모와 자녀 계층이 일치하는,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가 모두 상층인 비율은 5%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층에서 해당 비율은 $1/2$ 이다: 따라서 자녀 세대 중층에서 부모와 자녀 계층이 일치하는,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가 모두 중층인 비율은 10%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층에서 해당 비율은 $4/11$ 이다: 따라서 자녀 세대 하층에서 부모와 자녀 계층이 일치하는,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층인 비율은 20%임을 알 수 있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5			25
중층		10		20
하층			20	55
전체	20	50	30	100

여기까지 온 뒤, 남은 칸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

그에 대한 단서는 아래 각주에, '상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 인구와 하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인구의 비는 2 : 1임'에서 제시가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비율을 모르기에, 아래와 같이 미지수로 둘 수 있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5			25
중층		10	x	20
하층	2x		20	55
전체	20	50	30	100

그럼 자연스레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비율을 활용해 다음과 같이 표를 채울 수 있고,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5			25
중층	15-2x	10	x	20
하층	2x		20	55
전체	20	50	30	100

자녀 세대 중층 비율에서 $25-x=20$ 으로 $x=5$ 임을 알 수 있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5			25
중층	5	10	5	20
하층	10		20	55
전체	20	50	30	100

여기까지 왔다면, 역시 채워지지 않은 비율을 활용해 다음과 같이 표를 완성할 수 있는 것.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5	15	5	25
중층	5	10	5	20
하층	10	25	20	55
전체	20	50	30	100

여기까지 구한 뒤, 선지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 앞에서 봄 온 문항들과는 달리, 다소 나이도가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 두기 바란다.

갑국 정부는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분배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갑국 내 모든 부모의 자녀가 1명씩인 (가), (나) 지역에 정책을 적용해 보았다. 갑국은 사회 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하며, A~C는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자녀 세대 계층 인구 대비 부모 세대 계층 인구의 상대적 비>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계층</th> <th colspan="2">상대적 비</th> </tr> <tr> <th>(가) 지역</th> <th>(나)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A</td> <td>0.8</td> <td>1.6</td> </tr> <tr> <td>B</td> <td>0.4</td> <td>0.4</td> </tr> <tr> <td>C</td> <td>2.0</td> <td>1.0</td> </tr> </tbody> </table>				계층	상대적 비		(가) 지역	(나) 지역	A	0.8	1.6	B	0.4	0.4	C	2.0	1.0
계층	상대적 비																
	(가) 지역	(나) 지역															
A	0.8	1.6															
B	0.4	0.4															
C	2.0	1.0															
<각 계층의 대물림 인구의 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비율</th> </tr> <tr> <th>(가) 지역</th> <th>(나)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부모와 자녀가 모두 A인 인구 비율 + 부모와 자녀가 모두 B인 인구 비율</td> <td>40%</td> <td>30%</td> </tr> <tr> <td>부모와 자녀가 모두 B인 인구 비율 + 부모와 자녀가 모두 C인 인구 비율</td> <td>30%</td> <td>40%</td> </tr> <tr> <td>부모와 자녀가 모두 C인 인구 비율 + 부모와 자녀가 모두 A인 인구 비율</td> <td>50%</td> <td>50%</td> </tr> </tbody> </table>				구분	비율		(가) 지역	(나) 지역	부모와 자녀가 모두 A인 인구 비율 + 부모와 자녀가 모두 B인 인구 비율	40%	30%	부모와 자녀가 모두 B인 인구 비율 + 부모와 자녀가 모두 C인 인구 비율	30%	40%	부모와 자녀가 모두 C인 인구 비율 + 부모와 자녀가 모두 A인 인구 비율	50%	50%
구분	비율																
	(가) 지역	(나) 지역															
부모와 자녀가 모두 A인 인구 비율 + 부모와 자녀가 모두 B인 인구 비율	40%	30%															
부모와 자녀가 모두 B인 인구 비율 + 부모와 자녀가 모두 C인 인구 비율	30%	40%															
부모와 자녀가 모두 C인 인구 비율 + 부모와 자녀가 모두 A인 인구 비율	50%	50%															
<small>* (가), (나) 지역의 부모 세대 인구는 동일하며, (가), (나) 지역의 자녀 세대 인구도 동일하다. ** (가), (나) 지역 각각 부모 세대의 각 계층 간 인구의 상대적 비는 A:B:C = 2:3:1 B:A+C = 1:9로 동일하다.</small>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의 일부

(가), (나) 지역 각각 부모 세대의 각 계층 간 인구의 상대적 비에서, A는 40%, B는 10%, C는 50%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라는 데에서 A는 중층, B는 상층, C는 하층인 것을 알 수 있다: A~C를 특정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 문항들과는 나이도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게 확 느껴진다.

그리고 '자녀 세대 계층 인구 대비 부모 세대 계층 인구의 상대적 비'에서 (가), (나) 지역 자녀 세대 계층 인구 비율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가) 지역 - 중층 50%, 상층 25%, 하층 25%

(나) 지역 - 중층 25%, 상층 25%, 하층 50%

이에 따라 각 지역 표를 다음과 같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25
중층				50
하층				25
전체	10	40	50	100

(가) 지역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25
중층				25
하층				50
전체	10	40	50	100

(나) 지역

그리고 아래에는 '각 계층의 대물림 인구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표에서 제시한 비율을 모두 더한 뒤 2로 나누면

부모와 자녀가 모두 A인 인구 비율

+ 부모와 자녀가 모두 B인 인구 비율

+ 부모와 자녀가 모두 C인 인구 비율

이 도출됨'
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가), (나) 사회 각각에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A~C'인 인구 비율을 구하면

(가) 지역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A(중층)인 인구 비율: 30%

부모와 자녀가 모두 B(상층)인 인구 비율: 10%

부모와 자녀가 모두 C(하층)인 인구 비율: 20%

가 도출되고,

(나) 지역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A(중층)인 인구 비율: 20%

부모와 자녀가 모두 B(상층)인 인구 비율: 10%

부모와 자녀가 모두 C(하층)인 인구 비율: 30%

가 도출된다.

이에 따라 (가), (나) 지역 각각에서 다음과 같이 표를 채워 줄 수 있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0			25
중층		30		50
하층			20	25
전체	10	40	50	100

(가) 지역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0			25
중층		20		25
하층			30	50
전체	10	40	50	100

(나) 지역

그런데 두 지역 모두에서 부모 세대 상층 비율은 10%인데,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상층 비율도 10%이다: 이는 두 지역 모두에서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중층 / 하층의 비율은 0%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0			25
중층	0	20		25
하층	0		30	50
전체	10	40	50	100

(가) 지역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0			25
중층	0	30		50
하층	0		20	25
전체	10	40	50	100

(나) 지역

여기까지 표를 채워 준 뒤에는, 역시 채워지지 않은 비율을 활용해 표를 아래와 같이 완성해 줄 수 있겠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0	0	15	25
중층	0	20	5	25
하층	0	20	30	50
전체	10	40	50	100

(가) 지역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0	5	10	25
중층	0	30	20	50
하층	0	5	20	25
전체	10	40	50	100

(나) 지역

이렇게 해서 계층 이동 도표에 대한 기초적 내용의 소개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물론 본 유형에 대해 현재까지 출제된, 기초의 영역을 벗어난 고난도 요소들은 다수 존재하나, 아래에서 소개할 한 가지 외에는 수능에서 출제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판단.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알아두고 가야 한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0			20
중층		10		50
하층			20	30
전체	20	30	50	100

각 계층에 대한 비율,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이 나타나 있는 표이다: 이것 외 다른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정보 없이 주어진 표를 모두 채울 수 있다.

부모 세대 상층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이고, 하층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이다: 합치면 전체 인구의 40%이다.

그리고 자녀 세대 중층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비율은 전체 인구의 40%이다: 이 비율은 부모 세대 상층이 되었건, 또는 하층이 되었건 어디로 들어가서든 채워져야 한다.

그런데 만약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이동한, 그리고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 이동한 비율이 1%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0		1	20
중층	9	10	29	50
하층	1		20	30
전체	20	30	50	100

다음 표와 같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녀 세대 중층 비율 50%를 맞추지 못한다.

이에 따라 위 상황에서는, 부모 세대 상층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비율 10%와 하층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비율 30%는 모두 자녀 세대 중층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0		0	20
중층	10	10	30	50
하층	0		20	30
전체	20	30	50	100

이와 같이 되어야만 자녀 세대 중층 비율이 50%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0	10	0	20
중층	10	10	30	50
하층	0	10	20	30
전체	20	30	50	100

남은 칸을 채우면 다음과 같은 표가 완성된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20학년도 이전 다수의 기출에서 활용되었던 아이디어인 만큼 올해 수능에도 등장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존재하기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분명 표가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단서 조항이 남아 있지 않을 때에는 부모 / 자녀 세대 특정 계층의 비율을 총족시키기 위해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비율 모두가 해당 계층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란다.

● 개념 Check

1. 사회적 소수자 문제

(1)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특성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주류 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小數)인 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됨 주류 집단에 비해 사회적 자원(학력, 권력, 재산, 지위)을 획득하는 데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음 스스로가 주류 집단에 비해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시대와 사회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집단은 달라짐

▶ 다른 내용들은 전부 상식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小數)인 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가 된 케이스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를 기억하자.

(2) 사회적 소수자의 규정 기준 및 차별 양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인종, 종교, 사상, 장애, 국적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각 개인은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될 수 있음 사회의 다원화, 지역 및 국가 간 인구 이동의 증가 등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과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류 집단과 다른 신체적, 문화적 특징을 지녔다는 이유로 비정상으로 간주되고 차별을 받음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 업무 능력에 대한 편견, 취업 기회나 임금 차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정치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한 법과 정책의 마련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움

▶ 실제 문항에서는 사례를 준 뒤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 해당한다면 어떠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게끔 한다. 어떠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의 경우 상식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의 경우 위 표에서 오히려 ‘기준’보다 ‘양상’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 ‘비정상으로 간주되고 차별을 받음’, ‘사회적 서비스에서 배제됨’ ‘정보 부족, 편견, 기회나 임금 차별 등을 겪음’ ‘정치 참여 기회가 제한됨’ 따위의 양상이 나타난다면 해당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사회적 소수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19. 다음 자료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전쟁을 피해 홀로 이주해 온 어머니 B와 어린 시절 사고로 시각 장애인이 된 아버지 C 사이에서 태어났다. B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힘들었고 C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별을 받았다. 그런데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도입되어 C는 안마사로 일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 안마사가 되고 싶어 했던 비장애인 D가 이 제도에 대해 국가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지켜보던 A는 시각 장애인을 대변하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A는 법을 공부하러 갑국에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외국인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자, 난민 여성으로 차별받았던 B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 A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법률 회사에 입사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여 입사한 E와 함께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① A는 B와 달리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② B는 C와 달리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 ③ D는 E와 달리 주류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 ④ A와 D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 ⑤ C와 E는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적용을 받았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 ▶ A의 경우 ‘외국인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자’에서, B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힘들었고’에서, C의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에서, E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고’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E의 경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저러한 우대 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
- ▶ 반면에 D의 경우에는 ‘비정상으로 간주되고 차별을 받음’, ‘사회적 서비스에서 배제됨’ ‘정보 부족, 편견, 기회나 임금 차별 등을 겪음’ ‘정치 참여 기회가 제한됨’ 따위의 양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회적 소수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3) 사회적 소수자 문제의 해결 방안

• 의식적 측면

1.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공존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
2. 사회의 다원화된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제도적 측면

1.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제도와 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2. 적극적 우대 조치(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차별받아 온 집단에 대해 다양한 방면에서 혜택을 주어 우대하는 정책)과 같이 사회적 소수자를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마련이 필요함.

2. 빙곤 문제

(1) 빈곤의 의미와 원인

- **의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상태

(2) 빈곤의 유형

1. 절대적 빈곤

- **의미:**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
- **특징:** 주로 개발 도상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경제 성장을 통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 **절대적 빈곤선:** 절대적 빈곤 인구 또는 가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해당함.

2. 상대적 빈곤

- **의미:**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원이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득 격차가 심화된 국가완전 한국인데에서 부각되며, 선진국과 같이 경제 성장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 **상대적 빈곤선:** 상대적 빈곤 인구 또는 가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중위 소득(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상위 50%에 있는 값)의 50%에 해당함.
 - ▶ 예를 들면, 특정 국가의 중위 소득이 300만 원에 해당한다면, 상대적 빈곤선은 150만 원이 되는 것.
 - ▶ 또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있어서 아래 표와 같은 헷갈릴 수 있는 선지들이 종종 출제되므로, 여러 번 읽어보며 이해해 두도록 하자.

번호	옳지 않은 선지	이유
1	절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사회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용어의 유사성을 이용한 말장난인데, 일단 뭐가 되었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빈곤한 건데, 상대적 박탈감이 안 들 수가 있을까?
2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을 더하면 전체 빈곤율이 된다.	상대적 빈곤율이 10%, 절대적 빈곤율이 5%라 할 때, 절대적 빈곤은 하위 5%, 상대적 빈곤은 하위 10%를 의미할 것이므로 절대적 빈곤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된 것이지, 둘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체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 중 더 높은 비율이다.
3	절대적 빈곤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해서 빈민층이 존재하지 않을까?
4	상대적 빈곤은 개인이 스스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중위 소득의 50%'라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 개인이 스스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는 '주관적 빈곤'이라고 한다.

5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서울 강남에 자가가 있는 사람도 이재용 10명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빈곤할까?
6	절대적 빈곤은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최저 생계비’와 ‘최저 임금액’은 ‘최저’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 외에는 같은 부분이 없다.

● 확인 문제 Check

- 사회적 소수자는 수적으로 소수(小數)인 집단을 의미한다. (O / X)
- 사회적 소수자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O / X)

※ 3~7. 아래는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현상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 : 갑국에서 인구 비중이 90%를 넘는 흑인은 경제, 사회, 정치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
B : 노인은 일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고용상의 차별을 받기도 한다.
C : 소수 민족 구성원이기만 한 사람보다 소수 민족 구성원이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적 차별을 더 많이 받기도 한다.
D : 최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아주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소수자가 등장하고 있다.
E : 올국에서 올국 국교를 믿는 사람이 병국에서는 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 A는 사회적 소수자가 권력의 열세가 아닌 수적 열세라는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O / X)
- B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역차별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O / X)
- C는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O / X)
- D는 사회적 소수자가 생득적인 요인보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결정됨을 보여준다. (O / X)
- E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규정이 가변적이지 않고 고정적임을 보여준다. (O / X)

- 절대적 빈곤선은 일반적으로 중위 소득의 50%에 해당한다. (O / X)
- 상대적 빈곤선은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에 해당한다. (O / X)
- 절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O / X)
- 전체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의 합에 해당한다. (O / X)
- 절대적 빈곤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O / X)
- 절대적 빈곤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보다 낮은 국가에서 많이 나타난다. (O / X)
- 절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O / X)
- 상대적 빈곤은 개인이 스스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O / X)
-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O / X)
- 절대적 빈곤은 최저 임금액을 기준선으로 활용한다. (O / X)

[정답] 1. X 2. O 3. X 4. X 5. O 6. O 7. X 8. X 9. X 10. O
11. X 12. O 13. O 14. O 15. X 16. X 17. X

● 개념 Check

1. 사회 복지와 복지 국가

(1) 사회 복지

- 의미: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과 지원

(2) 복지 국가

- 의미: 국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행을 중요한 책무로 여기는 국가
- 등장 배경: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빈부 격차 심화, 실업 증가, 노동 조건의 악화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나타남.
- 복지 국가의 전개: 사회적 약자의 최저 생활 보장 → 모든 국민의 삶의 질 보장

2. 복지 제도

(1) 사회 보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비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모든 국민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함미래에 직면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함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함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됨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됨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건강 보험: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가족에게 연금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 고용 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 급여를 제공하고,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는 제도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부상 및 장애, 사망 등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보험이란 것 자체가 이후 발생할 사고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기에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지는 거고, 금전적 지원을 약속으로 하는 것이 보험이라는 사실은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 본다.
- ▶ 보험료라는 것을 내야 하므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수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그 사람이 가진 경제력’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리고 ‘부조’란 쉽게 말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로 내가 도움을 받고 반대로 내가 낸 보험료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으므로 ‘상호 간’ 부조가 이루어지는 것. 강제 가입은 그냥 외워 두자.
- ▶ 사회 보험의 종류는 굳이 외워둘 필요 전혀 없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한 번 읽기만 하자.

(2) 공공 부조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함 사회 보험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함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 있음 재원을 부담하는 자(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와 수혜자(일부 국민)이 불일치함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의료 급여 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기초 연금 제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 모두에 대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몇몇에게만 제공하므로 선별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기에 모두에게 지원하는 사회 보험보다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것이다. 또한 이미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것.

-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므로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저 사람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저걸 받겠지, 저거 다 우리 세금인데’라는 인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원은 (결국에는 우리 세금이 맞지만) 사회·문화 교과 내에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므로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하는 것.
- ▶ 사회 보험과 마찬가지로 공공 부조의 종류 또한 굳이 외워둘 필요 전혀 없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한 번 읽기만 하자.

(3) 사회 서비스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와 같은 비금전적 지원의 제공을 원칙으로 함 •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물론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음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한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 발달 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지원 사업

- ▶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따로 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민간 봉사 단체 등에서도 얼마든지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한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외워 두자.
- ▶ 사회 서비스 또한 그 종류를 또한 굳이 외워둘 필요 전혀 없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한 번 읽기만 하자.
- ▶ 실제 문항에서는, 주어진 제도가 사회 보험인지 또는 공공 부조인지, 사회 서비스인지를 설명을 보고 판단하게끔 출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키워드를 기억하자:
 - **공공 부조**: ‘생활이 어려운 사람’, ‘소득이 기준액 이하’
 - **사회 서비스**: ‘서비스’, ‘비금전적 지원’
 - 그리고 사회 보험은 위 두 가지 키워드가 없는 것으로 찾으면 되는 것이다.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A~C의 사례

- A의 사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해 급여 제공
- B의 사례: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가족에게 연금 급여 실시
- C의 사례: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사례

- ▶ A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키워드로 인해 공공 부조임을, C는 ‘가사·간병 서비스’라는 키워드로 인해 사회 서비스임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B가 사회 보험임을 알 수 있다.

<자료 1>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가) 노인 세대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인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사례

▶ (가)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는 키워드로 인해 공공 부조임을, (다)는 ‘돌봄 서비스’라는 키워드로 인해 사회 서비스임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나)가 사회 보험임을 알 수 있다.

3. 복지 제도의 한계와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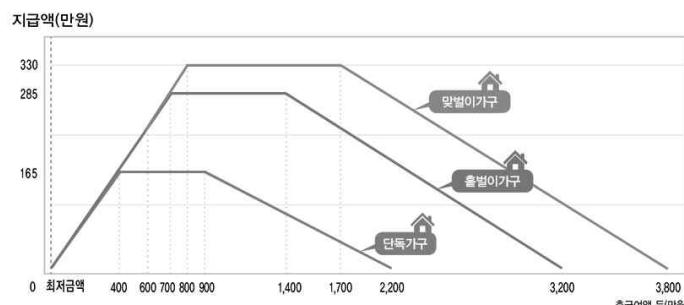
(1) 복지 제도의 한계

- 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근로 의욕이 저하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복지 병 발생 우려).
- 복지 제도의 확대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이는 과도한 조세 징수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

(2) 대안: 생산적 복지

- **의미:** 복지와 노동을 연계(근로 연계 복지,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지원 정도도 올라감)을 통해 복지와 경제 성장을 함께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
- **내용:**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근로 의욕과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경제적 효율성 달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함.

▶ 생산적 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로 장려금 제도를 들 수 있다.



▶ 가구별로 특정 급여액의 수준까지는 지급액이 상승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라 해당 수준에 급여가 위치하는 가구는 더 많은 급여를 벌게끔(경제 활동에 참여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 사회 복지 제도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도표 문항으로서 출제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고, 해당 주제를 활용해 출제된 도표 문항에는 앞에서 살펴본 각종 평균과 벤 다이어그램이 활용되어야 하는 형태가 자주 나타나므로,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특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확인 문제 Check

※ 1~15. 다음 특징이 사회 보험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보’, 공공 부조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부’, 사회 서비스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서’를 고르시오.

1.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함. (보 / 부 / 서)
2.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됨. (보 / 부 / 서)
3.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함. (보 / 부 / 서)
4. 비금전적 지원의 제공을 원칙으로 함. (보 / 부 / 서)
5.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보 / 부 / 서)
6.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됨. (보 / 부 / 서)
7. 민간 부문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음. (보 / 부 / 서)
8.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큼. (보 / 부 / 서)
9.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음. (보 / 부 / 서)
10.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함. (보 / 부 / 서)
11.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됨. (보 / 부 / 서)
12.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함. (보 / 부 / 서)
13. 선별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함. (보 / 부 / 서)
14.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함. (보 / 부 / 서)
15.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등을 그 내용으로 함. (보 / 부 / 서)

16. 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은?
17.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여 복지와 경제 성장을 함께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은?

[정답] 1. 보 2. 보, 부 3. 부 4. 서 5. 보, 서 6. 보 7. 서 8. 부
9. 부 10. 부 11. 보 12. 보 13. 부 14. 부 15. 서
16. 복지병 17. 생산적 복지

4

#특강 4. 복지 제도 도표 분석

사회 복지 제도를 활용한 도표 문항은 지금에서 10년도 더 전부터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문항으로, 계층 이동을 활용한 3×3 도표 문항이 사라진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단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적이 없는 단골 손님이다.

하지만 그렇거나 자주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형의 문항은 대부분의 경우 60%가 넘는 오답률을 기록해(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6.7%,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75.6%)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항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사회 복지 제도 도표 문항이 출제되는 양상의 종류를 파악한다면, 해당 문항의 해결은 더 이상 고난도의 영역이 아닌,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

위 문항이 출제되는 양상은 다음의 세 종류가 존재한다:

1. 가중 평균이 적용된 형태
2. 벤 다이어그램이 적용된 형태
3. 둘 중 어떤 요소도 적용되지 않은 형태

사전 학습에서 가중 평균과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 학습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 학습했던 것은, 모두 사회 복지 제도를 활용한 도표 문항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가중 평균을 활용해야 할지, 또 어떤 경우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야 할지, 또 어떤 경우 둘 중 어떤 요소도 활용하지 않아도 될지는 어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다:

가중 평균은 일반적으로 ‘두 변수와 이들이 합쳐진 전체 변수’가 주어진 경우

벤 다이어그램은 일반적으로 ‘중복 수급자 또는 비(非)수급자’가 주어진 경우

활용되는 것이다.

<자료 2> 갑국의 (가)~(다) 제도의 지역별 수혜자 비율

(단위: %)

제도 \ 지역	A	B	전체
(가)	⑦	8	10
(나)	3	6	4
(다)	10	7	⑨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함.

▲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항의 일부

위 문항에서는 ‘A 지역’과 ‘B 지역’이라는 두 변수, 그리고 이들이 합쳐진 ‘전체 지역’이라는 전체 변수가 주어져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 문항의 해결에 있어 가중 평균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갑국의 A, B 수급자와 비(非)수급자의 비율>

(단위: %)

구분	t년	t+30년
A 수급자	70	77
B 수급자	26	7
비(非)수급자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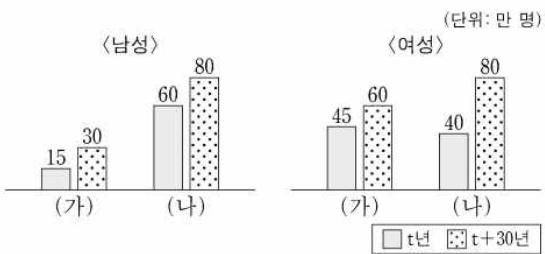
* 비(非)수급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사람

** 중복 수급자: A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B 수급자인 사람

▲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항의 일부

그리고 위 문항에서는 ‘중복 수급자’와 ‘비(非) 수급자’가 모두 주어져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 문항의 해결에 있어 가중 평균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자료 2> 갑국의 성별 · 시기별 (가), (나) 제도의 수급자 수



*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함.

** t년과 t+30년 모두 갑국의 남녀 인구는 각각 1,000만 명임.

▲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항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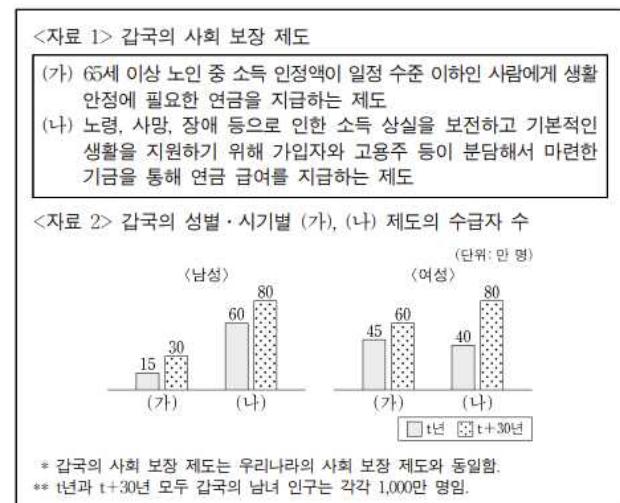
그리고 위 문항에서는 ‘두 변수와 이들이 합쳐진 전체 변수’, ‘중복 수급자 또는 비(非)수급자’가 모두 주어져 있지 않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 문항의 해결에 있어 가중 평균 또는 벤 다이어그램을 모두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문항에 대한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한 번 살펴보자:

1. 가중 평균 또는 벤 다이어그램을 모두 활용할 필요가 없는 문항
2. 가중 평균을 활용해야 하는 문항
3.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야 하는 문항
4. 가중 평균과 벤 다이어그램을 모두 활용해야 하는 문항

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t년에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남성 수급자 수는 여성 수급자 수의 3배이다.

ㄴ. t년에 비해 t+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60만 명 증가하였다.

ㄷ. t년에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남성 수급자 비율은 t+30년에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 비율보다 높다.

ㄹ. t년에 갑국 인구 중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t+30년에 갑국 인구 중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보다 낮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항 – 오답률 63.8%

바로 위에서 살펴봤던 사례의 원본 문항이다: 당연히 ‘두 변수와 이들이 합쳐진 전체 변수’, ‘증복 수급자 또는 비(非)수급자’를 모두 확인할 수 없기에, 우리는 가중 평균과 벤 다이어그램을 모두 활용하지 않고 바로 선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가)는 공공 부조, (나)는 사회 보험임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ㄱ 선지에 있어,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는 공공 부조인 (가)이고, t년에 (가)의 여성 수급자 수(45만 명)는 남성 수급자 수(15만 명)의 3배가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ㄴ 선지에 있어,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 보험인 (나)이고, (나)의 수급자 수는 t년에 100만 명(남성 60만 명, 여성 40만 명), t+30년에 160만 명(남성 80만 명, 여성 80만 명)으로 t년 대비 t+30년에 60만 명 증가하였으므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ㄷ 선지에 있어,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와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모두 사회 보험인 (나)이고, t년에 (나)의 수급자(100만 명) 중 남성 수급자(60만 명)의 비율은 60%이고 t+30년에 (나)의 수급자(160만 명) 중 여성 수급자(80만 명)의 비율은 50%이므로 전자는 후자보다 높아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근 선지에 있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사회 보험인 (나)이고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 부조인 (가)이며, t년에 갑국 인구(남성 1,000만 명+여성 1,000만 명=2,000만 명) 중 (나)의 수급자(남성 60만 명+여성 40만 명=100만 명)의 비율은 5%이다.

그리고 t+30년에 갑국 인구(남성 1,000만 명+여성 1,000만 명=2,000만 명) 중 (가)의 수급자(남성 30만 명+여성 60만 명=90만 명) 비율은 4.5%이므로 전자는 후자보다 높아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문항의 정답은 ③번이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다)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가)~(다) 제도의 지역별 수혜자 비율 (단위: %)			
제도	지역	A	B
(가)	⑦	8	10
(나)	3	6	4
(다)	10	7	⑧

*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함.
** 해당 지역 수혜자 비율(%) = (해당 지역 수혜자 수/해당 지역 인구) × 100

- ① ⑦은 11, ⑧은 8이다.
- ② (가)와 (나) 중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적다.
- ③ 갑국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3배이다.
- ④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2배보다 많다.
- ⑤ 갑국 전체에서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수혜자 수의 2배보다 적다.

▲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항 – 오답률 51.8%

위 문항에서는 ‘A 지역’과 ‘B 지역’이라는 두 변수, 그리고 이들이 합쳐진 ‘전체 지역’이라는 전체 변수가 주어져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 문항의 해결에 있어 가중 평균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 (다)는 사회 서비스임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도의 경우 ‘B 지역 수혜자 비율-전체 수혜자 비율’이 ‘전체 수혜자 비율-A 지역 수혜자 비율’의 2배이므로 가중 평균의 원리에 의해 A 지역 인구는 B 지역 인구의 2배임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원리에 의해 ⑦은 11, ⑧은 9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갑국의 전체 인구를 3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구분	A 지역	B 지역	전체
인구 수	200	100	300
(가) 제도 수혜자 수	22	8	30
(나) 제도 수혜자 수	6	6	12
(다) 제도 수혜자 수	20	7	27

1번 선지에 있어, ㉠은 11, ㉡은 90이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2번 선지에 있어, (가)와 (나) 중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 부조인 (나) 제도이고, (나) 제도의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6, B 지역이 6으로 같아 전자가 후자보다 적지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3번 선지에 있어, 갑국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다) 제도의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20, B 지역이 70이므로 전자는 후자의 3배가 아니기에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4번 선지에 있어,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가) 제도의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22, B 지역이 80이므로 전자는 후자의 2배보다 많기에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5번 선지에 있어, 갑국 전체에서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가) 제도의 수혜자 수는 30,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나) 제도의 수급자 수는 12로 전자는 후자의 2배보다 많아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문항의 정답은 ④번이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A와 B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고,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중복 수급자 비율은 $t+30$ 년이 t 년에 비해 50% 감소하였고, 중복 수급자 수는 t 년과 $t+30$ 년이 동일하다.

<갑국의 A, B 수급자와 비(非)수급자의 비율>

(단위: %)

구분	t 년	$t+30$ 년
A 수급자	70	77
B 수급자	26	①
비(非)수급자	14	15

* 비(非)수급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사람

** 중복 수급자: A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B 수급자인 사람

- ① ㉠은 t 년의 중복 수급자 비율보다 작고 $t+30$ 년의 중복 수급자 비율보다 크다.
- ②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t+30$ 년이 t 년에 비해 8% 감소하였다.
- ③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 년과 $t+30$ 년이 동일하다.
- ④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t+30$ 년이 t 년의 2배이다.
- ⑤ t 년에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t+30$ 년 비(非)수급자 수의 2배이다.

▲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항 – 오답률 75.4%

위 문항에서는 ‘중복 수급자’와 ‘비(非) 수급자’가 모두 주어져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 문항의 해결에 있어 가중 평균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A는 사회 보험, B는 공공 부조임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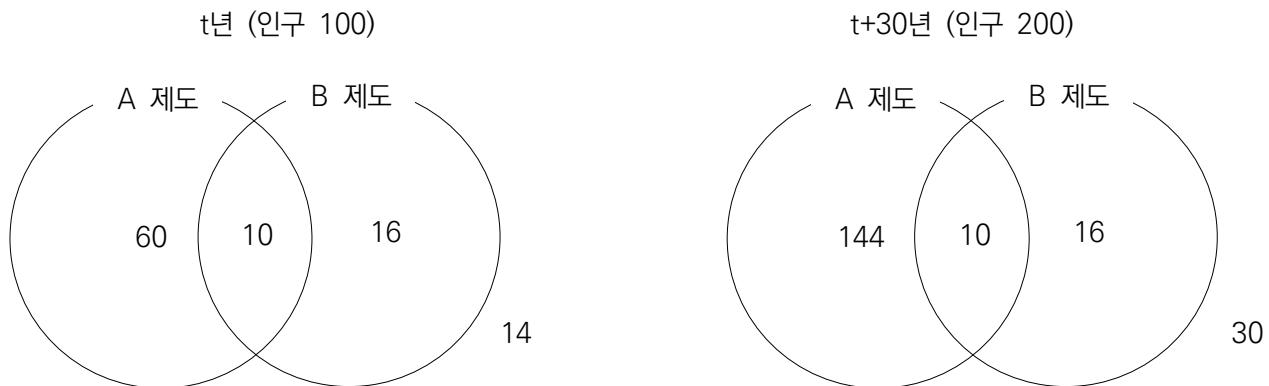
t 년의 A 수급자 비율은 70%, B 수급자 비율은 26%인데 비수급자 비율은 14%이므로 A 또는 B 수급자 비율은 86%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A와 B 중복 수급자 비율을 $k\%$ 이라고 두었을 때 $(70+26-k)\% = 86\%$, $k=10$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 년의 A와 B 중복 수급자 비율은 10%인데, 중복 수급자 비율은 $t+30$ 년이 t 년에 비해 30% 감소하였으므로 $t+30$ 년의 A와 B 중복 수급자 비율은 5%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연도의 비수급자 비율은 15%이므로 A 또는 B 수급자 비율은 85%이고, 이에 따라 B 수급자 비율을 $s\%$ 라고 두었을 때 $(77+s-5)\% = 85\%$, $s=13$ 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중복 수급자 수는 t 년과 $t+30$ 년이 동일한데 중복 수급자 비율은 t 년이 $t+30$ 년의 2배이므로 전체 인구는 $t+30$ 년이 t 년의 2배임을 알 수 있으며, 전자를 200, 후자를 100으로 둘 수 있다.

이때 연도에 따른 갑곡의 A 수급자, B 수급자, A와 B 중복 수급자, 비수급자 수를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번 선지에서, ⑦은 ‘13%’이고 t 년의 중복 수급자 비율은 10%, $t+30$ 년의 중복 수급자 비율은 5%이기에 ⑦은 t 년의 중복 수급자 비율과 $t+30$ 년의 중복 수급자 비율 모두보다 크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인 것을 알 수 있다.

2번 선지에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 부조인 B이고,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t 년이 16%, $t+30$ 년이 8%로 t 년 대비 $t+30$ 년에 50% 감소하였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인 것을 알 수 있다.

3번 선지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사회 보험 또는 공공 부조, 즉 A 또는 B의 수급자 수는 t 년이 86, $t+30$ 년이 170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인 것을 알 수 있다.

4번 선지에서,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공공 부조인 B이고,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t년이 16, t+30년이 16으로 후자는 전자의 2배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인 것을 알 수 있다.

5번 선지에서,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 보험인 A이고, t년에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60, t+30년에 비수급자 수는 30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인 것을 알 수 있고, 위 문항의 정답은 ⑤번이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중 하나임.) [3점]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A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B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표는 갑국의 시기별 (가), (나) 지역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갑국은 (가), (나)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전체 인구는 t년에 비해 t+20년이 20% 많다.

(단위: %)

구분	t년			t+20년		
	(가) 지역	(나) 지역	전체	(가) 지역	(나) 지역	전체
A 수급자	46	36	40	46	52	50
B 수급자	30	20	24	30	42	38
A와 B 중복 수급자	15	10	12	6	18	14

- ①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20년의 (가) 지역이 t년의 (가) 지역보다 20% 많다.
- ②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20년의 (가) 지역이 t년의 (나) 지역보다 많다.
- ③ t년의 (가) 지역에서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와 B 중복 수급자 수의 2배이다.
- ④ t+20년에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2배이다.
- ⑤ t+20년에 A와 B 중복 수급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3배이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 – 오답률 63.4%

위 문항에서는 ‘중복 수급자’가 주어져 있고, ‘(가) 지역’과 ‘(나) 지역’, ‘전체 지역’이 모두 주어져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 문항의 해결에 있어 벤 다이어그램과 가중 평균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A는 사회 보험, B는 공공 부조임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

t년에 ‘(가) 지역 수급자 비율-전체 수급자 비율’:‘전체 수급자 비율-(나) 지역 수급자 비율’은 3:2이므로 가중 평균의 원리에 의해 (나) 지역의 전체 인구는 (가) 지역의 전체 인구의 1.5배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 지역의 전체 인구를 400, (나) 지역의 전체 인구를 600으로 둘 수 있다.

이때 전체 인구는 t+20년이 t년에 비해 20% 많으므로 t+20년의 전체 인구는 1200임을 알 수 있으며, t+20년에 ‘전체 수급자 비율-(가) 지역 수급자 비율’:‘(나) 지역 수급자 비율-전체 수급자 비율’은 2:1이므로 가중 평균의 원리에 의해 (나) 지역의 전체 인구는 (가) 지역의 전체 인구의 2배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가) 지역의 전체 인구는 400, (나) 지역의 전체 인구는 800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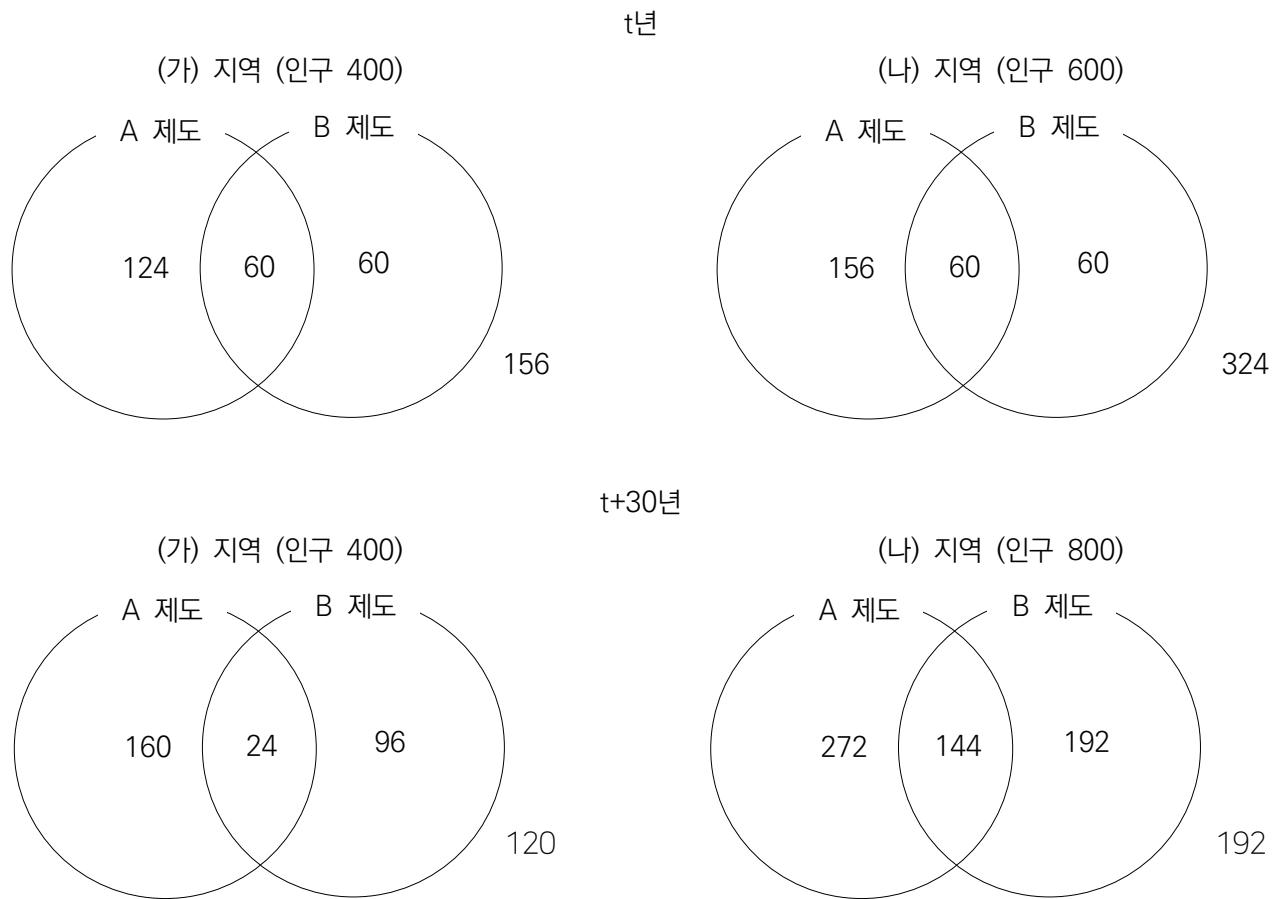
한편 t 년 (가) 지역에서 A 수급자는 46%, B 수급자는 30%인데 A와 B 중복 수급자는 15%이므로 비수급자는 $(100-46-30+15)\% = 39\%$ 임을 알 수 있다.

t 년 (나) 지역에서 A 수급자는 36%, B 수급자는 20%인데 A와 B 중복 수급자는 10%이므로 비수급자는 $(100-36-20+10)\% = 54\%$ 임을 알 수 있다.

$t+30$ 년 (가) 지역에서 A 수급자는 46%, B 수급자는 30%인데 A와 B 중복 수급자는 6%이므로 비수급자는 $(100-46-30+6)\% = 30\%$ 임을 알 수 있다.

$t+30$ 년 (나) 지역에서 A 수급자는 52%, B 수급자는 42%인데 A와 B 중복 수급자는 18%이므로 비수급자는 $(100-52-42+18)\% = 24\%$ 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도에 따른 (가) 지역과 (나) 지역의 A 수급자, B 수급자, A와 B 중복 수급자, 비수급자 수를 벤다이어그램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번 선지에서,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 보험인 A이고, A 수급자 수는 $t+20$ 년 (가) 지역이 184, t 년 (가) 지역이 184로 전자는 후자보다 20% 많지 않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인 것을 알 수 있다.

2번 선지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 보험인 A이고, A 수급자 수는 $t+20$ 년의 (가) 지역이 184, t 년 (나) 지역이 216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지 않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인 것을 알 수 있다.

3번 선지에서,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공공 부조인 B이고, t년 (가) 지역에서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600이다.

한편 A와 B 중복 수급자 수는 60인데,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인 것을 알 수 있다.

4번 선지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 부조인 B이고, t+20년에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가) 지역이 96, (나) 지역이 192로 후자는 전자의 2배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인 것을 알 수 있다.

5번 선지에서 A와 B 중복 수급자 수는 (나) 지역이 144, (가) 지역이 240이므로 전자는 후자의 3배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인 것을 알 수 있고, 위 문항의 정답은 ④번이다.

이렇듯 복지 제도 도표에 있어서 핵심은 마주한 문항이 가중 평균,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야 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마는 오로지 많은 양의 연습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므로, 최대한 많은 문항들을 풀어보며 많은 상황을 접해보기를 바란다.



사회·문화 기초 & 실전 개념서

Sapiens

5.

현대의 사회 변동

#15.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16. 현대 사회의 변화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특강5. 인구 부양비

● 개념 Check

1. 사회 변동

(1) 의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양식, 사회적 관계, 규범과 가치, 의식 구조 등이 변화하는 현상

(2) 특징

- 사회 변동 자체는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하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사회 변동 속도나 방향, 모습 등은 사회마다 다양하게 나타남.
-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변동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경제, 정치,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변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남.
- 사회 변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사회 어느 한 영역의 변화는 다른 영역의 변화를 유발하거나 촉진할 수 있음.

2.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1) 사회 변동 방향을 기준으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1. 진화론

기본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그 방향은 진보와 발전의 방향임. 단순한 원시 생명체가 복잡한 유기체로 진화한 것과 같이 사회도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함.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을 설명하는 데 유용함. 개발 도상국이 근대화 과정을 거쳐 선진국으로 발전한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함.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변동은 항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퇴보나 멸망을 경험한 문명을 설명하기가 어려움.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임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기에, 서구의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진화론은 찰스 다윈(서구인)의 이론을 사회에 적용한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친 서구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임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서구의 제국주의 역사를 두고 ‘우리가 야만인들의 사회를 발전의 방향으로 계몽시켜 준 것이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

2. 순환론

기본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는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반복함. 사회는 진보에서 퇴보로 이어진 뒤 다시 생성, 진보로 나아가는 일종의 순환을 반복함.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생성과 소멸의 반복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리함. 내부 갈등, 전쟁 등에 의해 흥망성쇠를 거듭한 사회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함.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사회의 변동을 예측하여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음. 순환론이 전제하는 순환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기에(당장 조선 왕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단기적인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움.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힘을 과소평가함.

- ▶ 순환론은 ‘어차피 다 망하고, 언젠간 또 살아나~’라고 보는 이론이기에, 미래 사회의 변동을 예측하는 데 크게 의지가 없다. 어차피 지금 사회는 언젠간 망할 것이기에 아무리 발버둥쳐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기에 인간 행위에 따라 사회가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사회 변동의 방향을 순환적인 모습으로 정해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 ▶ 헛갈리지 않아야 할 게, 기능론과 순환론 모두 사회 변동에 일정한 ‘양상’은 존재한다고 본다. 진화론은 ‘일정하게 발전하는’ 양상, 순환론은 ‘일정하게 순환하는’ 양상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 다만 일정한 ‘방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뿐이다.
- ▶ 진화론과 순환론에 관한 문항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제시문이 진화론과 순환론 중 어떤 이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출제된다.

명(明)조의 시작은 고요한 겨울날 같았다. 왕조의 전반기는 질서와 안정 그 자체였다. 왕조의 겨울은 얼마 후 시끌벅적한 봄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소박한 농경 사회의 안정성은 투기적 상업에 자리를 빼앗겼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농경 사회의 토대는 무너져 내렸다. 가을에는 은의 유입과 상품 경제의 발달로 부자 대 빈자, 상인 대 농민, 이윤 대 도덕이 대립하면서 참혹함이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왕조는 질서를 회복하며 안정을 향해 나아갔다.

▲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사례

- ▶ 위 제시문은 명조의 전반기는 순조로웠으나 이후에는 무저녁 내렸으며, 이후 새로운 왕조가 다시 번영해 나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순환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이 찾아낸 과학적 지식은 자연이 가하는 제약으로 만들어진 원시적인 미신과 선입견, 오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축적되고 정해진 하나의 방향을 향해 진전하며 확장한다. 문명의 전개도 근대 과학의 이러한 과정과 유사하다.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사례

- ▶ 위 제시문은 인간이 찾아낸 과학적 지식은 선입견, 오류의 극복 과정서 전진하며 확장(발전)해 나가고, 문명 또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진화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상이한 민족 간의 적대주의는 문명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다. 힘이 강한 민족은 자신들의 활력을 바탕으로 정교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이들은 힘이 약한 민족을 정복하면서 위대한 문명의 꽃을 피운다. 이 과정에서 지배자들은 결혼을 통해 피지배자들과 섞이고, 이와 함께 자라나는 혐오감은 전체 문명의 활력을 소진시킨다. 이때 적대감으로 무장한 또 다른 강한 민족이 정복의 열쇠를 들고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연다.

▲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사례

▶ 위 제시문은 힘이 강한 민족은 힘이 약한 민족을 정복하며 문명의 꽃을 피우나, 이로써 자라나는 혐오감은 전체 문명의 활력을 소진시키고, 이때 또 다른 민족이 나타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순환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1. 기능론

기본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는 다양한 부분들이 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때 균형을 이루고 안정을 유지하게 됨. 사회 변동은 사회의 부분이나 전체가 일시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새로운 균형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임.
장점	질서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함.
비판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려움.

▶ 1단원에서 살펴본 기능론에 관한 사항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된다. 달라진 건 없다.

2. 갈등론

기본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배 구조나 사회 규범 등을 피지배 집단에 강제하고, 사회는 이러한 강제와 억압으로 유지됨. 사회 변동은 새로운 사회 질서를 원하는 피지배 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배 집단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공정한 배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 간 갈등이 표출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장점	사회 구조적 모순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함.
비판	사회 변동을 갈등과 대립의 측면에서만 파악함.

▶ 1단원에서 살펴본 갈등론에 관한 사항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된다. 달라진 건 없다.

3. 사회 운동

(1) 의미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행동

(2) 유형

- **복고적 운동**: 과거의 사회 유형, 제도 등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운동
- **보수주의 운동**: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이미 발생중인 변화에 대해 저항하려는 운동
- **개혁주의 운동**: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특정 부분에 대한 변화만을 추구하는 운동
- **급진적 혁명 운동**: 현재의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급격하게 바꾸고자 하는 운동

(3) 특징

- 뚜렷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방법, 계획을 가짐
- 목표와 활동 방향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음
- 어느 정도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짐.

▶ 실제 문항은 제시문에 나타난 현상이 사회 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형태로도 출제가 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위 특징을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아래에서 보도록 하자.

(가) 정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변화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알리기 위해 관계 부처가 협동하여 온라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나) □□ 전쟁의 실상이 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분노한 시민들이 즉흥적으로 거리로 나와 자국 군대의 철수와 전쟁 반대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다.

(다)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는 전국 대학생 연합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존 사회 질서로부터 근본적인 해방을 주장하는 혁명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라) 1990년대의 패션을 재해석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복고 스타일을 SNS를 통해 뽐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 2024년 고3 7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사례

▶ (가)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집단적인 행동이 아니므로 사회 운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의 경우 시민들이 ‘즉흥적으로’ 거리에 나와서 한 행동이므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의 경우 ‘전국 대학생 연합’이라는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기존 사회 질서로부터의 근본적인 해방’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혁명 운동을 ‘이어오고’ 있으므로 사회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라)의 경우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가) ◇◇ 환경 보호 단체 회원들은 해양 오염물을 줄이기 위해 매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작업 및 해양 생태 보호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나) △△ 프로 구단이 감독 인사를 단행했다는 소식을 경기 중에 들은 일부 열혈 관중들이 불합리한 인사 결정 방식에 항의하며 경기 직후에 돌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다) ○○ 단체는 왕정과 신분 제도를 폐지하고 선거를 통해 민주 정부를 수립하고자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시위를 전개하였다.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사례

▶ (가)의 경우 ‘환경 보호 단체’라는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환경 오염 방지’라는 이념을 가지고 ‘매달’ 활

동을 하였으므로 사회 운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의 경우 ‘돌발적으로’ 시위를 벌였으므로 사회 운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의 경우 ‘○○ 단체’라는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민주 정부 수립’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위를 전개하였으므로 사회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4) 의의

사회 구조적 모순이나 갈등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변동을 유발하는 동력이 됨

● 확인 문제 Check

- 사회 변동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하는 보편적 현상이다. (O / X)
- 사회 변동 속도나 방향, 모습 등은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O / X)

※ 3~10. 다음 특징이 진화론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진', 순환론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순'을 고르시오.

-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봄. (진 / 순)
- 사회 변동이 일정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봄. (진 / 순)
- 사회 변동에 적용되는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힘을 과소평가함. (진 / 순)
- 흥망성쇠를 거듭한 사회의 사례를 설명하는 데 적합함. (진 / 순)
-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전제함. (진 / 순)
- 단기적인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에 불리함. (진 / 순)
- 사회는 생성, 성정,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봄. (진 / 순)
- 퇴보나 멸망을 경험한 문명을 설명하기가 어려움. (진 / 순)
- 사회 운동은 뚜렷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가진다. (O / X)
- 사회 운동은 사회 변동을 유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O / X)

※ 13~16. 아래는 사람들이 진행한 행동의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환경 단체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하기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나) 국민 가수로 칭송받던 인기 연예인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자, 추모를 위해 사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현화와 함께 음주 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메모를 남겼다.

(다) 오랜 전통에 따라 여성 운전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던 △△국에서 시민 운동가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이 법을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

(라) ○○ 노동조합은 정부의 연금 개시 연령 상향 정책에 대해 퇴직 후 연금 수령 시작 시기가 늦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 (가)는 뚜렷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사회 운동으로 볼 수 있다. (O / X)
- (나)는 조직적이지 않은 군중이 일시적으로 모인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운동으로 볼 수 없다. (O / X)
- (다)는 기존 사회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개혁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사회 운동이라 볼 수 있다. (O / X)
- (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 운동이라 볼 수 없다. (O / X)

● 개념 Check

1. 세계화

(1) 의미

삶의 공간이 국경을 넘어 전 지구로 확대되면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는 현상

(2) 원인

교통 및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

(3) 영향

긍정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국가 간 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더욱 창의적이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인류의 존엄, 자유, 평등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부정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간 경쟁의 심화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개발 도상국의 산업이 위축되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빈부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선진국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문화가 동질화되고, 약소국이나 소수 민족의 문화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국제적인 거대 자본 등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

(4) 대응 방안

- 기술 혁신과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 우리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의 자세와 상대주의적 태도를 견지한다.
-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사회·문화 교과에 있어 ‘세계화’에 대해서는 주로 제시문 독해형 추론 문항이 출제되지, 위의 개념을 전부 다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

8.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세계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프리카에 바이러스 감염이 빈발하게 된 것은 병원체나 숙주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국적 기업들의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이 더욱 확대되어 원충지 역할을 하던 산림이 파괴되면서 야생 동물의 바이러스가 곧장 인간을 숙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 국지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바이러스를 더 멀리 신속하게 실어 나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늘어난 대륙 간 항공망과 이로 인한 국가 간 교류의 증대였다. 바이러스의 이슬비는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내린다.

- ① 국제 분업으로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심화된다.
- ②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한다.
- ③ 국가 간 교류 증대로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된다.
- ④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된다.
- ⑤ 자본의 이윤 추구로 인한 지역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된다.

▲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사례

▶ 그렇기에 위 개념들을 전부 다 암기하려 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충분하다.

2.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

(1) 산업 사회

정의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으로 에너지 시대가 열리면서 발전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한 사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산업이 산업에서 중심이 됨 • 노동과 자본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됨 •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주축이 됨 • 관료제적 사회 조직이 주로 나타남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어 노사문제가 종종 발생함 •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어 공해, 위생, 주택, 빈민가 등의 도시 문제가 발생함 •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산업 활동으로 인해 대량의 매연과 오수가 도시환경을 오염시킴 • 관료제적 조직의 확산으로 인해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됨

▶ 2차 산업이 무엇인지는 통합사회에서 배웠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기에 노동과 자본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리라는 것 또한 2차 산업이 무엇인지 알면 바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대해, ‘품종이 적다’는 아래의 정보 사회와 비교했을 때 도출되는 사실이고, 품종은 더 적은데 투입할 수 있는 에너지는 같으니 품종 하나당 생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료제적 사회 조직은 애초에 산업혁명으로 열린 에너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2) 정보 사회

정의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결합하여 정보의 수집, 가공, 유통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발전한, 정보의 생산, 저장, 유통, 분배가 활발한 사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차 산업이 산업에서 중심이 됨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됨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주축이 됨 탈관료제적 사회 조직이 주로 나타남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상적 인간관계의 확산으로 인해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됨 정보에 대한 접근, 소유, 활용에 있어 경제력과 권력, 세대가 독립 변수가 되는 요인에 의해 불평등한 분배 양상이 나타남 컴퓨터 기술을 악용한 해킹으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고, 익명성을 이용한 육설 등의 사이버 언어 폭력 또한 증대됨 정보의 유출과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짐

- ▶ 3차 산업이 무엇인지는 통합사회에서 배웠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기에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리라는 것 또한 3차 산업이 무엇인지 알면 바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 ▶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대해, '품종이 많다'는 위의 산업 사회와 비교했을 때 도출되는 사실이고, 품종은 더 많은데 투입할 수 있는 에너지는 같으니 품종 하나당 생산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탈관료제적 사회 조직은 애초에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 ▶ 왜 정보 사회에서는 탈관료제적 사회 조직이 확산되었는데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지 의문을 가질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한데, 정보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 현상은 탈관료제적 사회 조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대면 생활 양식이 확산되면서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니 피상적 인간 관계가 확산되고, 그에 따라 인적 교류를 하지 못하니 발생하는 것이다. 우한폐렴 당시 비대면 수업을 겪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단번에 깨달을 수 있을 것.

3.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적 변화

(1) 저출산·고령화

- 의미 및 원인

구분	의미	원인
저출산	출산률이 적정 수준보다 낮은 현상	출산과 양육 부담에 대한 증가,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고령화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	저출산 현상,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 증가 등

- 영향

1.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음
2.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여 세대 간 갈등이 증가할 수 있음
3. 노인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음
4. 노후 빈곤 문제, 노인 소외 현상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대응 방안

1. **저출산**: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청년 일자리·신혼 부부 주거 문제 해결 등
2. **고령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노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 역시 외울 필요 없이, 상식에 의거해 한 번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너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 관련 지식은 이미 다 갖추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바이다.

(2) 다문화적 변화

- 다문화 사회의 의미: 한 사회 안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사는 사회
- 다문화 사회의 영향

긍정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다양성이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음
부정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사회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문화 사회의 대응 방안

1. 관용의 자세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2. 다문화적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3. 이주민의 사회 적응을 돋고 차별을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역시 그냥 읽어보며 이해하고 가면 되는 부분. 외울 필요 전혀 없다.

4.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1) 의미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 국가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 문제

(2) 특징

-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하여 발생함

- 그렇기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줌

(3) 종류와 해결 방안

• 환경 문제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자원 소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 인간 중심적 사고, 무분별한 자원 남용으로 환경 파괴가 초래됨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이상 기후,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함 열대림 파괴: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열대 우림의 파괴로 토양 유실,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함 사막화: 가뭄, 농경지와 목축지의 과잉 개발에 따른 삼림과 초원의 황폐화로 사막화 현상이 발생함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인식의 마련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상품 생산 국제 사회 내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 자원 문제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 생산 및 분배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 기아 문제가 발생함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고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자원을 둘러싼 국제 분쟁이 발생함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 절약 및 자원의 재활용 확대 친환경적인 대체 자원 개발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경제 개발을 추구하는 태도

• 전쟁과 테러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상호 간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인명 피해, 인류 명예와 삶의 터전 및 자연환경의 파괴가 나타남 테러: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이 납치나 살인, 방화 등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인해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민족·인종 갈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 당사자들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의 모색 국제 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의 분쟁 조절

-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역시 적어도 문제 하나하나당 개념을 외웠는지를 물어보는 형태는 적어도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위 개념들에 있어서는 암기를 할 필요가 없이 한 번 읽어보며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충분하다.
- 위에서 살펴본 개념 중 ‘저출산과 고령화’와 관련해 ‘인구 부양비’를 활용한 도표 문항이 현재 매우 활발하게 출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특강을 통해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 확인 문제 Check

1. 세계화는 교통 및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진행되었다. (O / X)
2. 세계화는 기업이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O / X)
3. 세계화는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 간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O / X)
4. 세계화는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O / X)
5. 세계화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문화의 창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O / X)

※6~15. 다음 특징이 산업 사회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산', 정보 사회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정'을 고르시오.

6. 3차 산업이 중심이 됨. (산 / 정)
7. 관료제적 조직의 확산으로 인해 인간 소외 현상이 심해짐. (산 / 정)
8.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주체가 됨. (산 / 정)
9. 2차 산업이 중심이 됨. (산 / 정)
10. 생산 활동으로 인한 부산물의 환경 오염 문제가 두드러짐. (산 / 정)
11. 탈관료제적 사회 조직이 주로 나타남. (산 / 정)
12. 정보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 양상이 사회 문제가 되어 나타남. (산 / 정)
13.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큼. (산 / 정)
14.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됨. (산 / 정)
15. 노동과 자본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됨. (산 / 정)

16.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세대 간 갈등의 증가를 결과로 가질 수 있다. (O / X)
17.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은 저출산 현상의 해결 방안에 해당한다. (O / X)
18.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O / X)
19.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의 영향은 현재 세대에만 국한된다. (O / X)
20.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의 해결은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O / X)

[정답] 1. O 2. X 3. O 4. O 5. X 6. 정 7. 산 8. 산 9. 산 10. 산
11. 정 12. 정 13. 정 14. 정 15. 산 16. O 17. X 18. X 19. X 20. O

‘인구 부양비’ 유형이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 각 지역 또는 연도의 노년/부양/유소년 인구를 구하고, 그렇게 구한 인구를 활용해 선지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의 정오 판단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본 유형은 2021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에 처음 등장한 후, 이후 모든 평가원 시험에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전부 출제되었기에 만점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정복해야 할 유형에 해당한다.

본 유형의 문항들은 풀이 방향이 굉장히 정형적이기에, 해당 풀이 방향을 체화하게 된다면 본 유형은 손쉽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문항들의 집합이 되지만, 체화하지 못한다면 매번 접근조차 실패해 점수를 잃게 하는 주범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 유형에서 본 교재를 보고 있는 독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은 ‘풀이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가는 것이고, 본 교재에서 설명하는 내용도 풀이 방향을 명확하게 체화시킨 후 실제 문제로 연습을 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인구 부양비 문항은 노년 인구/부양 인구/유소년 인구에 관한 조건으로부터 실제 해당 인구를 구해야 하는 형태로 제시되고, 너무나도 당연히 이 세 종류의 인구를 구하는 것은 이 유형의 문항을 푸는 데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해당 조건들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치를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한편, 다른 조건과 엮어야만 수치를 설정할 수 있는 조건도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는 ‘ t 년 부양 인구는 $t+10$ 년 유소년 인구의 2배이다.’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이 조건만 가지고도 t 년 부양 인구를 200, $t+10$ 년 유소년 인구를 100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노년 인구 대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t 년이 $t+10$ 년의 1.5배이다.’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t 년 또는 $t+10$ 년의 노년 인구, 유소년 인구에 관한 조건을 활용해 해당 인구를 설정해야만 한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조건 중, 독자들은 문항의 해결에 있어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을 후자의 경우에 대항하는 조건보다 먼저 이용해 식을 세워야만 한다.

예를 들면, ‘ t 년 부양 인구는 $t+100$ 년의 부양 인구와 같고(1), t 년에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100$ 년에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같다(2).’라는 조건이 있으면, 여기에서 독자들은 (1)의 조건을 (2)의 조건보다 먼저 이용해 식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자체적으로 수치를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의 구체적인 예시를 더 들어 보자면, ‘ t 년의 부양 인구는 $t+10$ 년의 유소년 인구의 2배이다.’나 ’ A 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노년 인구의 1.2배이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인구 간 관계가 제시된 조건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다.

다른 조건과 엮어야만 수치를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의 구체적인 예시를 더 들어 보자면, ’ t 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t+100$ 년의 노년 부양비와 같다.’나 ’ A 지역의 부양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율은 A 지역이 B 지역의 2배이다.’와 같이 인구의 비율 간 관계가 제시된 조건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다.

물론 전자가 되었건 후자가 되었건 간에 제시될 수 있는 조건의 경우는 무궁무진하기에, 실제 문제에서 마주한 조건이 둘 중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각 경우를 일일이 외우기보다는, 독자들이 가진 직관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물론 처음에는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힘들 수 있겠지만, 문제 풀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해당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느샌가 어렵지 않은 지점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에서 제시된 모든 조건을 다 활용해 주어진 지역/연도의 노년/부양/유소년 인구를 모두 구한 뒤에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 선지 판단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

이제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매뉴얼을 활용해, 실제 예시를 바탕으로 노년/부양/유소년 인구에 관한 정보를 구하는 연습을 진행해 보자.

갑국에서 $t+20$ 년 노령화 지수는 t 년의 3배이고, t 년 총부양비는 100이다. $t+20$ 년 노년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의 2배이고 t 년 부양 인구는 $t+20$ 년 노년 인구와 같으며, t 년 대비 $t+20$ 년 부양 인구의 증가율은 전체 인구의 증가율과 같다.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times 100$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times 100$

**** 총부양비 =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times 100$

위 예시에서 제시된 정보를 수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t+20$ 년 노령화 지수는 t 년의 3배
2. t 년 총부양비는 100
3. $t+20$ 년 노년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의 2배
4. t 년 부양 인구는 $t+20$ 년 노년 인구와 같음
5. t 년 대비 $t+20$ 년 부양 인구의 증가율은 전체 인구의 증가율과 같음

위의 다섯 가지 조건 중, 자체적으로 수치를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은 4번 조건이니 4번 조건을 활용해 t 년 부양 인구와 $t+20$ 년 노년 인구를 모두 100으로 둘 수 있다.

이제 다른 조건들을 활용해서 나머지 인구를 구해야 하는데, 우선 2번 조건을 활용해서 t 년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합이 100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 3번 조건을 활용하면 $t+20$ 년 노년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의 2배인데, 두 비율의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같으므로 분자에 들어가는 수인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배가 됨을 알 수 있고, 자연스레 $t+20$ 년 유소년 인구는 50, 노령화 지수는 200이 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t+20$ 년 노령화 지수를 이용하면, 1번 조건을 활용해 t 년 노령화 지수는 $200 / 3$ 임을 알 수 있는데, t 년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합이 100이므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합하면 t 년 노년 인구는 40, 유소년 인구는 60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조건은 5번 조건인데, 이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t+20$ 년 부양 인구를 미지수로 두어야 한다: 해당 인구를 미지수 k 로 둔다면 $t+20$ 년의 전체 인구는 $150 + k$ 가 될 것이다.

t 년 대비 $t+20$ 년 부양 인구의 증가율은 전체 인구의 증가율과 같으므로 $\{(k - 100) / 100\} \times 100 = \{(150 + k - 200) / 200\} \times 100$ 이고, 이 식을 계산해주면 $k = 150$ 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한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t년	t+20년
노년 인구	40	100
부양 인구	100	150
유소년 인구	60	50

이처럼 ‘인구 부양비’ 유형의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한 뒤, 해당 조건들을 적절한 순서로 활용해 필요한 정보들을 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능력은 많은 경험에서부터 우러져 나오니,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마주하며 ‘이 조건은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사고를 위주로 연습하기 바란다.

1. 다음 자료를 활용해 연도에 따른 갑국의 연령별 인구를 구하시오. (단, 1960년 대비 2020년에 부양 인구는 10% 감소하였다.)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구분	1960년	1990년	2020년
유소년 부양비	40	30	20
노령화 지수	30	50	100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sim64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sim14세 인구)} \times 100$

활용 가능한 조건:

- 1960년 대비 2020년 부양 인구 10% 감소
- 각 연도별 유소년 부양비
- 각 연도별 노령화 지수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자체적으로 식을 세울 수 있는 조건들이지만, 2, 3번 조건을 먼저 사용하면 이후 1번 조건을 사용하기 번거로워지므로 1번 조건을 먼저 사용하여 식을 세워 보자.

2, 3번 조건을 먼저 사용하면 주어진 연도의 노인/부양/유소년 인구 비율을 모두 구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후 1번 조건에 맞추어 1960년과 2020년 인구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 것이 된다.

1번 조건을 활용하면 1960년의 부양 인구를 100, 2020년의 부양 인구를 90으로 놓을 수 있다: 또한 1990년의 부양 인구는 관련된 조건이 없으므로 100k라고 놓을 수 있다.

1번 조건을 활용해 부양 인구에 관한 정보를 얻었으므로, 그 다음으로는 부양 인구와 얹혀있는 조건인 2번 조건을 활용한 뒤 마지막으로 3번 조건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은 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2020년, 유소년 부양비는 20인 것에서 유소년 인구를 a라 하면 $a / 90 \times 100 = 20$, $a = 180$ 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18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령화 지수는 100인 것에서 노년 인구를 b라 하면 $b / 18 \times 100 = 100$, $b = 180$ 이므로 노년 인구도 18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1990년, 유소년 부양비는 30인 것에서 유소년 인구를 c라 하면 $c / 100k \times 100 = 30$, $c = 30k$ 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30k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령화 지수는 50인 것에서 노년 인구를 d라 하면 $d / 30k \times 100 = 50$, $d = 15k$ 이므로 노년 인구는 15k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60년, 유소년 부양비는 40인 것에서 유소년 인구를 e라 하면 $e / 100 \times 100 = 40$, $e = 400$ 이므로 유소년 인구는 4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령화 지수는 30인 것에서 노년 인구를 f라 하면 $f / 40 \times 100 = 30$, $f = 120$ 이므로 노년 인구는 12인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1960년	1990년	2020년
노년 인구	12	15k	18
부양 인구	100	100k	90
유소년 인구	40	30k	18

2. 다음 자료를 활용해 갑국 각 지역의 연령별 인구를 구하시오.

다음은 (가), (나) 두 지역으로만 구성된 갑국의 인구 관련 지표이다. (가) 지역의 생산 연령 인구는 (나) 지역의 생산 연령 인구의 2배이다.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고령화 지수	⑦	⑧
유소년 부양비	20	20
노년 부양비	30	80

* 고령화 지수 = {노년(65세 이상) 인구 / 유소년(0~14세) 인구} × 100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0~14세) 인구 / 생산 연령(15~64세)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년(65세 이상) 인구 / 생산 연령(15~64세) 인구} × 100

활용 가능한 조건:

1. (가) 지역 생산 연령 인구는 (나) 지역 생산 연령 인구의 2배
2. 각 지역의 유소년 부양비
3. 각 지역의 노년 부양비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건 모두 단독으로 식을 세울 수는 있으나 2, 3번 조건을 먼저 사용하는 것 보다 1번 조건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문제 풀이에 더 편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번 조건을 먼저 사용하면 (가) 지역 생산 연령 인구를 200, (나) 지역 생산 연령 인구를 100으로 둘 수 있다: 그리고 2번, 3번 조건 모두 생산 연령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조건이므로 두 조건 중 어떤 것을 먼저 사용하건 간에 문제풀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가) 지역의 유소년 인구를 a, 노년 인구를 b로 둔다면 유소년 부양비는 20이므로 $a / 200 \times 100 = 20$, a는 40임을 알 수 있고 노년 부양비는 30이므로 $b / 200 \times 100 = 30$, b는 60임을 알 수 있다.

(나) 지역의 유소년 인구를 c, 노년 인구를 d로 둔다면 유소년 부양비는 20이므로 $a / 100 \times 100 = 20$, a는 20임을 알 수 있고 노년 부양비는 80이므로 $d / 100 \times 100 = 80$, d는 80임을 알 수 있다.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노년 인구	60	80
생산 연령 인구	200	100
유소년 인구	40	20

3. 다음 자료를 활용해 연도별 A 지역의 연령별 인구를 구하시오.

표는 A 지역의 인구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00년에 비해 2020년 A 지역의 총인구는 20% 증가하였다. A 지역의 노령화 지수는 2000년에 60, 2020년에 125였다. 단, 음영 처리된 부분은 주어진 자료와 단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구분	2000년	2020년
0~14세 인구 (유소년 인구)		20
15~64세 인구 (부양 인구)		
65세 이상 인구 (노인 인구)	15	

*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 부양비 = $(0~14세 인구 / 15~64세 인구) \times 100$

*** 노인 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times 100$

**** 총부양비 = $\{(0~1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times 100$

활용 가능한 조건:

1. 2000년에 비해 2020년 총인구 20% 증가
2. 2000년 노령화 지수는 60
3. 2020년 노령화 지수는 125
4. 2000년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
5. 2020년의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

이 조건들 중 다른 조건 없이도 식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은 1, 4, 5번 조건이 있는데, 4번과 5번 조건을 먼저 사용하면 1번 조건을 사용하기 힘들어지므로 1번 조건을 먼저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번 조건을 먼저 사용하면 2000년 총인구를 500, 2020년 총인구를 600으로 둘 수 있다: 이후 4, 5번 조건을 사용하면 2000년의 노인 인구는 $500 \times 0.15 = 75$, 2020년의 유소년 인구는 $600 \times 0.2 = 120$ 인 것을 알 수 있다.

2번 조건에 의해 2000년 노령화 지수는 60이므로, 2000년 유소년 인구를 a로 두면 $75 / a \times 100 = 60$, $a = 75 \times 5 / 3 = 125$ 임을 알 수 있고, 자동으로 2000년 부양 인구는 $500 - 75 - 125 = 300$ 임을 알 수 있다.

3번 조건에 의해 2020년 노령화 지수는 125이므로, 2020년 노인 인구를 b로 두면 $b / 120 \times 100 = 125$, $b = 120 \times 5 / 4 = 150$ 임을 알 수 있고, 자동으로 2020년 부양 인구는 $600 - 120 - 150 = 330$ 임을 알 수 있다.

구분	2000년	2020년
노년 인구	75	150
부양 인구	300	330
유소년 인구	125	120

4. 다음 자료를 활용해 연도별 A~C국의 연령별 인구를 구하시오. (단, 유소년 인구의 비는 A국 : B국 : C국 = 3 : 1 : 1이다.)

구분	A국	B국	C국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	10	15	40
총부양비	25	25	100

$$* \text{총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14세 인구) + \text{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64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sim14세 인구)} \times 100$$

활용 가능한 조건:

1. 유소년 인구의 비는 A국 : B국 : C국 = 3 : 1 : 1
2. 각 국가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
3. 각 국가 총부양비

3번 조건은 단독으로 식을 세우는 것이 어렵고, 1번과 2번 조건은 단독으로 식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나 2번 조건을 먼저 사용하면 이후 1번 조건을 사용하기 힘들어지므로 1번 조건을 먼저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번 조건을 사용하면 A국의 유소년 인구를 30, B국의 유소년 인구를 10, C국의 유소년 인구를 10으로 둘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2번, 3번 조건인데, 현재 구한 유소년 인구에 관한 정보만 가지고는 2번과 3번 조건 중 어느 조건도 사용할 수 없다.

2번과 3번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인 인구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때 노인 인구를 미지수로 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 인구를 미지수로 둔 뒤 3번 조건을 사용해 각 국가의 부양 인구를 해당 미지수로 나타낼 수 있고, 2번 조건을 사용해 미지수의 값을 구해 최종적으로 각 국가의 노인/부양/유소년 인구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A국의 노인 인구를 a , 부양 인구를 b 라 한다면 3번 조건에 의해 $(a + 30) / b \times 100 = 250$ 이므로 $b = 4a + 120$ 임을 알 수 있고 2번 조건에 의해 $a / (30 + a + 4a + 120) \times 100 = 100$ 이므로 $0.5a + 15 = a$, $a = 30$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한 a 의 값을 각 인구를 나타내는 식에 대입하면 A국의 노인 인구는 30, 부양 인구는 240, 유소년 인구는 30인 것을 알 수 다.

B국의 노인 인구를 c , 부양 인구를 d 라 한다면 3번 조건에 의해 $(c + 10) / d \times 100 = 250$ 이므로 $d = 4c + 40$ 임을 알 수 있고 2번 조건에 의해 $c / (10 + c + 4c + 40) \times 100 = 150$ 이므로 $0.75c + 7.5 = c$, $c = 30$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한 c 의 값을 각 인구를 나타내는 식에 대입하면 B국의 노인 인구는 30, 부양 인구는 160, 유소년 인구는 10인 것을 알 수 있다.

C국의 노인 인구를 e , 부양 인구를 f 라 한다면 3번 조건에 의해 $(e + 10) / f \times 100 = 1000$ 이므로 $f = e + 10$ 임을 알 수 있고 2번 조건에 의해 $e / (10 + e + e + 10) \times 100 = 400$ 이므로 $0.8e + 8 = e$, $e = 40$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한 e 의 값을 각 인구를 나타내는 식에 대입하면 C국의 노인 인구는 40, 부양 인구는 50, 유소년 인구는 10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구분	A국	B국	C국
노년 인구	30	30	40
부양 인구	240	160	50
유소년 인구	30	10	10

사회·문화, 사피엔스로 모래주머니 효과 그 이상을 누리다



후기로 검증된 예리한 컨텐츠, 사피엔스에는 선택의 후회가 없습니다.

으아ㅏㅏ 1회 2회 퀄리티 너무너무 좋아요ㅠㅠㅠ
혹시 몇 회까지 계획에 있으실지요??
시중에 나와있는 그 어떤 실모보다 좋아요 ㅠㅠ

한 세트 한 세트 풀 때마다 수능 시험지 1,2,3...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문을 절대 놓으면 안 되겠다! 라는 교훈을 일깨워준 고마운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수능전까지 아껴서 풀고 싶을 정도에요ㅠㅠ 개념과 도표 모두 적절하고 근거 있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나이도 조절과 참신한 유형으로, 모래주머니 효과를 느끼기에 아주 좋은 거 같아요.

타임어택과 개념에 대한 심층적 물음을 모두 잡은 모의고사. 쉽게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도, 뒤돌아보면 선지 하나하나에 개념의 완전한 이해를 묻는 모의고사이다. 특히 도표 문제에서마저 개념을 물으며 '사회문화'의 본질을 잡는 모습은 가히 완성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다. 계산의 복잡함만을 추구하던 기존 모의고사들과 확연한 차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평가원 출제기조를 성실히 반영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 위 후기는 100% 실제 독자 후기입니다.

Head-Master

사회문화 1등급 로드맵

*정식판매 종이책과, 양질의 무료자료로 반드시 최소비용으로 1등급을 만들어드립니다.

*형광펜 친 부분이 정식 판매책, 네모박스가 무료자료입니다. 두가지를 병행하여 1등급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 했습니다.

개념 학습

인강 추천 윤성훈T 불후의 명강, 임정환 Lim it

독학서 추천 **Sapiens 사회·문화 개념서**(헤드마스터 무료 제공), **기출의 파급효과 사회·문화**

기출 학습

문제집 추천 마더텅, 자이스토리 등 '교육청 기출'까지 모두 포함한 기출 문제집을 활용하세요.

(사회·문화는 많은 양의 문제 풀이가 필수적인 과목이기에, 교육청 기출에 대한 학습도 매우 중요함)

N제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는, 최소 '500문항' 가량의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음

Level 1 **Headmaster Q150 N제** (헤드마스터 무료 제공) or **손고운T 전공자의 N제**

: 기출과 유사한 난이도의 실전 문제 학습을 통한 1등급 가능권의 실력 확보

Level 2

★ **사피엔스 200제** (정식 종이책 판매)

: 기출 이상의 고난도 문제 학습을 통한 모래주머니 효과로 1등급을 넘어 만점 가능

최상위권의 실력 확보를 위한 필수 문제집

실전 모의고사

★ **사피엔스 모의고사** (정식 모의고사 판매)

: 실전과 가장 유사한, 그러면서도 높은 난이도를 갖춘 실전 모의고사 학습을 통한 실전 연습과 행동 영역의 마련, 빈출 유형과 신유형에 대한 학습

✓ **사피엔스 무료 제공 모의고사** (헤드마스터 무료제공 / 아래 목록)

- ① 6평 대비 사피엔스 모의고사 1회
- ② 9평 대비 사피엔스 모의고사 1회
- ③ 수능 대비 사피엔스 모의고사 1회
- ④ 교육청 우수 기출 문항 재배치 모의고사 3회

추가 자료 (헤드마스터 무료 자료)

✓ **헤드마스터 무료제공 자료**

- ① 교육청이 알려주는 사회·문화 미출제 요소
- ②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문화 분석서
- ③ 2026학년도 수능완성 사회·문화 분석서
- ④ 사회·문화 중요 선지 정리본

